

CBETA電子佛典集成

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
ebook

X87n1614

禪苑蒙求瑤林

金志明撰 元 德諫注

目次

- [編輯說明](#)
- [章節目次](#)
 - [禪苑蒙求目錄](#)
 - [No._1614-A](#)
 - [No._1614-B 雪堂和尚注禪苑瑤林引](#)
 - [No._1614-C](#)
 - [No._1614-D 禪苑蒙求引](#)
 - [釋迦七步](#)
 - [達磨九年](#)
 - [靈山密付](#)
 - [少室單傳](#)
 - [晝原與斧](#)
 - [南岳磨磚](#)
 - [大雄創寺](#)
 - [百丈開田](#)
 - [為仰體用](#)
 - [曹洞正偏](#)
 - [雲門數句](#)
 - [臨濟三玄](#)
 - [世尊良久](#)
 - [維摩默然](#)
 - [帝釋插草](#)
 - [布袋乞錢](#)
 - [黃蘗一掌](#)
 - [大愚三拳](#)
 - [李翱問道](#)
 - [陳操論禪](#)
 - [靈雲見花](#)
 - [香巖擊竹](#)
 - [沙彌尋思](#)
 - [道者覓宿](#)
 - [鳥窠吹毛](#)
 - [龍潭滅燭](#)
 - [孚公搖頭](#)

- [居士翹足](#)
- [三角禾豆](#)
- [南華稻粟](#)
- [婆子作齋](#)
- [甘贄設粥](#)
- [灌溪劈箭](#)
- [踈山嚙鏹](#)
- [天鉢花開](#)
- [九峰麥熟](#)
- [亞子延僧](#)
- [則天賜浴](#)
- [尚書打球](#)
- [大夫雙陸](#)
- [行者失咲](#)
- [陸百合哭](#)
- [太寂吹耳](#)
- [尊者撥眉](#)
- [寒山茄串](#)
- [解脫粥篋](#)
- [陳老蒲鞋](#)
- [龐蘊漚籬](#)
- [悟本紙撚](#)
- [法眼香匙](#)
- [光仁女子](#)
- [玄則童兒](#)
- [九峰拽擺](#)
- [保福扶犁](#)
- [玄泰布衲](#)
- [克符紙衣](#)
- [庵主不顧](#)
- [良窾盡知](#)
- [常侍擲筆](#)
- [太傅過泥](#)
- [王頓失色](#)
- [李勃懷疑](#)
- [石鞞張弓](#)
- [禾山打鼓](#)
- [歸宗拽石](#)

- [木平般士](#)
- [官鑿斫牌](#)
- [白雲搖鱸](#)
- [道吾起拜](#)
- [迦葉作舞](#)
- [涌泉騎牛](#)
- [牧庵跨虎](#)
- [徑山螻螟](#)
- [地藏鸚鵡](#)
- [石霜侍師](#)
- [慈覺養母](#)
- [谷泉配役](#)
- [長興遭虜](#)
- [宣老為男](#)
- [信公作女](#)
- [四賢問道](#)
- [三佛下語](#)
- [直際庭栢](#)
- [守初麻斤](#)
- [浮石鬻卜](#)
- [王老賣身](#)
- [香巖原夢](#)
- [普化描直](#)
- [婆子偷筭](#)
- [行者施銀](#)
- [莊宗得寶](#)
- [船子得鱗](#)
- [趙州狗子](#)
- [臨濟真人](#)
- [華林二虎](#)
- [青原一麟](#)
- [道吾裝鬼](#)
- [拾得呵神](#)
- [大覺潑水](#)
- [興教墮薪](#)
- [三師行說](#)
- [二老踈親](#)
- [文殊白槌](#)

- [百丈捲席](#)
- [大達妄想](#)
- [洛鉢消息](#)
- [藥山曲調](#)
- [青原階級](#)
- [夾山揮劍](#)
- [隱峰飛錫](#)
- [洞山寒暑](#)
- [谷山聲色](#)
- [元祐迴牒](#)
- [鹿門辭勅](#)
- [華亭藏身](#)
- [雲門聞頰](#)
- [北禪烹牛](#)
- [三角喝賊](#)
- [保寧擲口](#)
- [洪英招膝](#)
- [恭語不灰](#)
- [玄言上石](#)
- [滿號銀山](#)
- [秀名鐵壁](#)
- [龍牙禪板](#)
- [長慶蒲團](#)
- [盤山肉案](#)
- [峴子臺盤](#)
- [巴陵銀椀](#)
- [雲巖寶冠](#)
- [荊門犢鼻](#)
- [踈山布單](#)
- [芭蕉拄杖](#)
- [資福剎竿](#)
- [祿清紅蓼](#)
- [惠稜牡丹](#)
- [南泉翫月](#)
- [保福遊山](#)
- [寶林冷笑](#)
- [韶陽熱謾](#)
- [乾峯一路](#)

- [兜率三關](#)
- [谷泉逐馮](#)
- [圓照戲端](#)
- [誌公難貌](#)
- [六祖難塑](#)
- [章敬撥空](#)
- [雲門抽顧](#)
- [悟本稱奇](#)
- [大禪叫悟](#)
- [義存歸庵](#)
- [老觀閉戶](#)
- [尚座觀魚](#)
- [師伯見兔](#)
- [明教薑杏](#)
- [馬祖鹽醋](#)
- [竹林麻鞋](#)
- [木平草履](#)
- [地藏種田](#)
- [懶瓚煨芋](#)
- [天盖浴室](#)
- [侍者巡鋪](#)
- [老諗四門](#)
- [師備三句](#)
- [彥從不會](#)
- [法遠不去](#)
- [道吾舞筩](#)
- [秘魔擎杖](#)
- [雲岩摸枕](#)
- [南泉指花](#)
- [曹山白酒](#)
- [直際清茶](#)
- [懸泉皂角](#)
- [洞山苧麻](#)
- [祐禪拈柿](#)
- [從展度瓜](#)
- [導師金鎖](#)
- [象骨鍊枷](#)
- [祖心叱狗](#)

- [靈祐餵鴿](#)
- [元珪放戒](#)
- [竈墮翻邪](#)
- [玄沙指虎](#)
- [歸宗斬蛇](#)
- [古德火抄](#)
- [靈樹風車](#)
- [能仁雙趺](#)
- [達磨隻履](#)
- [盧能賣薪](#)
- [懶融負米](#)
- [黃蘗吐舌](#)
- [丹霞掩耳](#)
- [龍牙行拳](#)
- [俱胝豎指](#)
- [提婆赤幡](#)
- [玄沙白紙](#)
- [茂源掩鼻](#)
- [石霜咬齒](#)
- [汾陽六人](#)
- [洞山三子](#)
- [招慶煎茶](#)
- [雲岩拂地](#)
- [禪鑑符讖](#)
- [青州應記](#)
- [首山綱要](#)
- [明安宗旨](#)
- [法華卦齋](#)
- [德普預祀](#)
- [長沙猛虎](#)
- [百丈野狐](#)
- [汾陽師子](#)
- [江西馬駒](#)
- [紫胡獐狗](#)
- [三聖瞎驢](#)
- [懶安白牯](#)
- [佛嶼花奴](#)
- [南山鼈鼻](#)

- [東海鯉魚](#)
- [國師塔樣](#)
- [資福轆模](#)
- [鹽官索扇](#)
- [仰嶠旱珠](#)
- [長慶淘金](#)
- [伏牛下書](#)
- [惠然透網](#)
- [希運捋鬚](#)
- [傳明散眾](#)
- [茲受棄徒](#)
- [三峰玉琯](#)
- [大哥金鋤](#)
- [德山行棒](#)
- [臨濟下喝](#)
- [趙州布衫](#)
- [普化直裰](#)
- [佛日茶籃](#)
- [道者酒榼](#)
- [香林一燈](#)
- [賢女三物](#)
- [石頭碌磚](#)
- [雲門屎橛](#)
- [二僧卷簾](#)
- [三老翫月](#)
- [惠滿二針](#)
- [古德三鞞](#)
- [演師禮字](#)
- [行者唾佛](#)
- [東坡解帶](#)
- [裴休納笏](#)
- [舜老民衣](#)
- [芙蓉束髮](#)
- [思大吞佛](#)
- [大士講經](#)
- [老盧幡動](#)
- [僧伽鈴鳴](#)
- [麻谷振錫](#)

- [普化搖鈴](#)
- [隱山晦迹](#)
- [洞山除名](#)
- [廬陵米價](#)
- [偃溪水聲](#)
- [大士側坐](#)
- [道者橫行](#)
- [智岩懸囊](#)
- [惠忠掛鎗](#)
- [佛日豆爆](#)
- [典座蟲牛](#)
- [惠可了了](#)
- [瑞岩惺惺](#)
- [慈道罐破](#)
- [文悅盆傾](#)
- [官人千眾](#)
- [惠安單工](#)
- [清涼十願](#)
- [達磨四行](#)
- [長髭功德](#)
- [黃梅佛性](#)
- [善財採藥](#)
- [大慈識病](#)
- [馬祖展足](#)
- [大覺引頸](#)
- [露祐踢瓶](#)
- [寂子撲鏡](#)
- [悟本鑿頭](#)
- [烏臼杓柄](#)
- [良禪破關](#)
- [女子出定](#)
- [曇照叫苦](#)
- [亡僧索命](#)
- [大容林蟬](#)
- [古德爛杏](#)
- [翠岩把梢](#)
- [風穴據令](#)
- [石鞞趨鹿](#)

- [南泉斬猫](#)
- [祇林揮劍](#)
- [藥嶠抽刀](#)
- [實際頂笠](#)
- [惠圓腰包](#)
- [上座鼻孔](#)
- [翠岩眉毛](#)
- [杉山拈尺](#)
- [義存斫槽](#)
- [座主鬼窟](#)
- [夾嶺鳳巢](#)
- [泐潭苦瓜](#)
- [香林甜桃](#)
- [義玄拄鐮](#)
- [惠寂插鍬](#)
- [靈源直告](#)
- [玄泰山謠](#)
- [紹銑設館](#)
- [福國戕橋](#)
- [六祖負金](#)
- [神光償債](#)
- [洛浦投師](#)
- [沙彌求戒](#)
- [蔣山三障](#)
- [華藏四旱](#)
- [鎮州蘿蔔](#)
- [普化生菜](#)
- [永嘉一宿](#)
- [雲盖半載](#)
- [王岳四玄](#)
- [漁仰三昧](#)
- [桐峯虎聲](#)
- [投子牛在](#)
- [鏡清失利](#)
- [趙州下載](#)
- [歸宗插標](#)
- [興化擲拐](#)
- [清豁歸山](#)

- [性空沒海](#)
- [黃龍三關](#)
- [浮山九帶](#)
- [青州正座](#)
- [普明不拜](#)
- [仁儉短偈](#)
- [永嘉長歌](#)
- [老龐及第](#)
- [慶諸登科](#)
- [陳操驗僧](#)
- [直際勘婆](#)
- [道士背坐](#)
- [踈山倒屣](#)
- [義存漆桶](#)
- [師備飯籬](#)
- [安國折筯](#)
- [鹿門破鍋](#)
- [雲岩出糞](#)
- [寂子擔禾](#)
- [雲門花欄](#)
- [陸巨瓶鵝](#)
- [石室蹈碓](#)
- [天目撞羅](#)
- [雪竇按劍](#)
- [韶山亞戈](#)
- [古靈揩背](#)
- [從諗洗脚](#)
- [青林死蛇](#)
- [泐潭活雀](#)
- [玄沙三病](#)
- [天平兩錯](#)
- [淦水蓮池](#)
- [趙州略約](#)
- [大陽錢財](#)
- [清平杓索](#)
- [白犬銜書](#)
- [青猿洗鉢](#)
- [飲光坐禪](#)

- [布袋落魄](#)
- [推倒回頭](#)
- [擡翻不托](#)
- [道者休休](#)
- [塔主莫莫](#)
- [太守病痊](#)
- [君王臂落](#)
- [次公點眼](#)
- [駙馬索藥](#)
- [隱峯倒化](#)
- [領眾坐亡](#)
- [歸宗拽杖](#)
- [普化踢床](#)
- [雪峰過嶺](#)
- [洛浦還鄉](#)
- [法遠繡球](#)
- [文濠香囊](#)
- [鵝湖比較](#)
- [佛日抑揚](#)
- [崇壽登子](#)
- [守芝石幢](#)
- [羅山麩飯](#)
- [白雲薑湯](#)
- [慈明詐病](#)
- [法華佯狂](#)
- [方會雪屋](#)
- [倚榻煙房](#)
- [平終虎嚙](#)
- [僧被蛇傷](#)
- [古紹雲門](#)
- [青續大陽](#)
- [多羅轉經](#)
- [俱胝誦呪](#)
- [神會義解](#)
- [石頭直吼](#)
- [惟儼不為](#)
- [從諗仍舊](#)
- [老讓開胸](#)

- [道符縮手](#)
- [豐干饒舌](#)
- [鶻鶴多口](#)
- [雲岳殘羹](#)
- [泐潭酸酒](#)
- [谷泉巴鼻](#)
- [直歇筋斗](#)
- [惠可斷臂](#)
- [神觀安頭](#)
- [王老水牯](#)
- [中邑獼猴](#)
- [茱萸釘櫬](#)
- [象骨鞦韆](#)
- [龍潭送餅](#)
- [投子沽油](#)
- [巖陽飼虎](#)
- [惠藏牧牛](#)
- [宣鑿出浴](#)
- [師鼎登樓](#)
- [雲庵奪席](#)
- [淨照隨舟](#)
- [國師三喚](#)
- [趙州一掐](#)
- [大隋蓋龜](#)
- [日丈野鴨](#)
- [曹嶠靈衣](#)
- [踈山壽塔](#)
- [百會不會](#)
- [法達不達](#)
- [揚岐八棒](#)
- [臨濟四喝](#)
- [扁頭被罵](#)
- [水潦遭蹈](#)
- [死心下火](#)
- [自禪掛塔](#)
- [天然口啞](#)
- [大耳心痛](#)
- [文益書字](#)

- [曉聰栽松](#)
- [禾山義虎](#)
- [瑞岩臥龍](#)
- [翠岩唾地](#)
- [寶壽釘空](#)
- [一城人瞎](#)
- [三日耳聾](#)
- [東山餽餡](#)
- [揚岐栗蓬](#)
- [惠南主法](#)
- [居訥扶宗](#)
- [洪濟師子](#)
- [遼陽大虫](#)
- [趙州探水](#)
- [百丈夾火](#)
- [金峰行餅](#)
- [布袋拈果](#)
- [中岳鳴哪](#)
- [青山骨剝](#)
- [明招目眇](#)
- [雲門脚跛](#)
- [四處謾人](#)
- [三翻懨懨](#)
- [韶陽九九](#)
- [文殊三三](#)
- [金牛飯桶](#)
- [靈照菜籃](#)
- [丹霞燒佛](#)
- [婆子焚庵](#)
- [雲盖論義](#)
- [德山小參](#)
- [芙蓉妙唱](#)
- [常察玄談](#)
- [二祖安心](#)
- [洞山見影](#)
- [藥嶺榮枯](#)
- [夾山人境](#)
- [香巖上樹](#)

- [仰山出井](#)
- [趙州接客](#)
- [价老看病](#)
- [南泉油齋](#)
- [韶陽胡餅](#)
- [德山托鉢](#)
- [象骨覆盆](#)
- [婆子眷屬](#)
- [王老兒孫](#)
- [雲居送袴](#)
- [道吾得禊](#)
- [九峰頭尾](#)
- [洞山功勳](#)
- [楊岐七事](#)
- [元靜十門](#)
- [老安作用](#)
- [馬祖勞倦](#)
- [鏡清雨聲](#)
- [龐公雪片](#)
- [雪竇靈臺](#)
- [鼓山聖箭](#)
- [鍊面退席](#)
- [克賓出院](#)
- [池陽百問](#)
- [佛陀三勸](#)
- [天然割草](#)
- [提婆投針](#)
- [藥山長嘯](#)
- [般若狂吟](#)
- [師備果子](#)
- [智勤林檎](#)
- [佛果漱口](#)
- [婆子點心](#)
- [蠱毒之鄉](#)
- [荊棘之林](#)
- [本寂滲漏](#)
- [克符料揀](#)
- [佛日體盆](#)

- [國師水枕](#)
- [祖心背觸](#)
- [道一長短](#)
- [石樓無耳](#)
- [貞溪具眼](#)
- [可直點胸](#)
- [昌禪擔板](#)
- [德山招扇](#)
- [迦葉剎竿](#)
- [佛光錦帳](#)
- [祐國金襴](#)
- [潛終海嶼](#)
- [亮隱西山](#)
- [大道松妖](#)
- [黃龍赤斑](#)
- [黃牛拒戒](#)
- [師子遇姦](#)
- [石頭路滑](#)
- [五祖機峻](#)
- [明招虎尾](#)
- [老宿鼠糞](#)
- [法演四戒](#)
- [守初三頓](#)
- [成禪一喝](#)
- [太宗十問](#)
- [耽章寶鏡](#)
- [南筓題辭](#)
- [新開鷄鳴](#)
- [石門鉤錐](#)
- [無餘喝道](#)
- [萬卦題詩](#)
- [蚊鑽鐵牛](#)
- [踞解秤槌](#)
- [龐蘊是非](#)
- [清平豐儉](#)
- [大顛佛光](#)
- [雪峰火焰](#)
- [大惠還僧](#)

- [寂音遭貶](#)
- [首山竹篋](#)
- [玄冥木劍](#)
- [卷目次](#)
 - 1.
 - 2
 - 3.
- [贊助資訊](#)

編輯說明

- 本電子書以「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.Q1」為資料來源。
- 漢字呈現以 Unicode 3.0 為基礎，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。
-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，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。
-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。
- 若有發現任何問題，歡迎來函 service@cbeta.org 回報。
- 版權所有，歡迎自由流通，但禁止營利使用。

禪苑蒙求目錄

卷上(千八百四十二則一百八十六人)

- 釋迦七步
- 達磨九年
- 靈山密付
- 少室單傳
- 青原與斧
- 南岳磨磚
- 大雄創寺
- 百丈開田
- 為仰體用
- 曹洞正徧
- 雲門數句
- 臨濟三玄
- 世尊良久
- 維摩默然
- 帝釋插艸
- 布袋乞錢
- 黃蘗一掌
- 大愚三拳
- 李翱問道
- 陳操論禪
- 靈雲見花
- 香巖擊竹
- 沙彌尋思
- 道者覓宿
- 鳥窠吹毛
- 龍潭滅燭
- 孚公搖頭
- 居士翹足
- 三角禾豆
- 南華稻粟
- 婆子作齋
- 甘贄設粥
- 灌溪劈箭

- 疎山嚙齧
- 天鉢花開
- 九峯麥熟
- 啞子延僧
- 則天賜浴
- 尚書打毬
- 大夫雙陸
- 行者失笑
- 陸亘合哭
- 大寂吹耳
- 尊者撥眉
- 寒山茄串
- 解脫粥籠
- 陳老蒲鞋
- 龐蘊鹿籬
- 悟本紙撚
- 法眼香匙
- 光仁女子
- 玄則童兒
- 九峯拽擺
- 保福扶犁
- 玄泰布衲
- 克符紙衣
- 菴主不顧
- 良遂盡知
- 常侍擲筆
- 太傅過泥
- 于頔失色
- 李渤懷疑
- 石鞏張弓
- 禾山打鼓
- 歸宗拽石
- 木平搬土
- 宣鑑斫牌
- 白雲搖舳
- 道吾起拜
- 迦葉作舞
- 涌泉騎牛

- 牧菴跨虎
- 徑山蟭螟
- 地藏鸚鵡
- 石霜侍師
- 慈覺養母
- 谷泉配役
- 長興遭虜
- 宣老為男
- 信公作女
- 四賢問道
- 三佛下語
- 真際庭栢
- 守初麻斤
- 浮石鬻卜
- 王老賣身
- 香巖原夢
- 普化描真
- 婆子偷筍
- 行者施銀
- 莊宗得寶
- 船子獲鱗
- 趙州狗子
- 臨濟真人
- 華林二虎
- 青原一麟
- 道吾裝鬼
- 拾得呵神
- 大覺潑水
- 興教墮薪
- 三師行說
- 二老疎親
- 文殊白槌
- 百丈捲席
- 太達妄想
- 洛瓶消息
- 藥山曲調
- 青原階級
- 夾山揮劍

- 隱峰飛錫
- 洞山寒暑
- 谷山聲色
- 元祐迴牒
- 鹿門辭勅
- 華亭藏身
- 雲門聞頰
- 北禪烹牛
- 三角喝賊
- 保寧擱口
- 洪英掐膝
- 恭語不灰
- 玄言上石
- 滿號銀山
- 秀名鍊壁
- 龍牙禪版
- 長慶蒲團
- 槃山肉案
- 蜺子臺盤
- 巴陵銀椀
- 雲岩寶冠
- 荊門犢鼻
- 疎山布單
- 芭蕉拄杖
- 資福刹竿
- 祿清紅菟
- 惠稜牡丹
- 南泉翫月
- 保福遊山
- 寶林冷笑
- 韶陽熱謾
- 乾峰一路
- 兜率三關
- 谷泉逐遇
- 圓照戲端
- 誌公難邈
- 六祖難塑
- 章敬撥空

- 雲門抽顧
- 悟本稱奇
- 大禪叫悟
- 義存歸菴
- 老觀閉戶
- 尚座觀魚
- 師伯見兔
- 明教薑杏
- 馬祖鹽醋
- 竹林麻鞋
- 木平草履
- 地藏種田
- 懶瓚煨芋
- 天盖浴室
- 侍者巡鋪
- 老諗四門
- 師備三句
- 彥從不會
- 法達不去
- 道吾舞笏
- 秘魔擎杖
- 雲岩摸枕
- 南泉指花
- 曹山白酒
- 真際清茶
- 懸泉皂角
- 洞山^孛麻
- 祐禪拈柿
- 從展度瓜
- 導師金鎖
- 象骨鍊枷
- 祖心叱狗
- 靈祐餵鴉
- 元珪放戒
- 竈墮翻邪
- 玄沙指虎
- 歸宗斬虵
- 古德火抄

- 靈樹風車

卷中(千九百二十則一百九十二人)

- 能仁雙趺
- 達磨隻履
- 盧能賣薪
- 懶融負米
- 黃蘗吐舌
- 丹霞掩耳
- 龍牙行拳
- 俱胝豎指
- 提婆赤幡
- 玄沙白紙
- 茂源掩鼻
- 石霜咬齒
- 汾陽六人
- 洞山三子
- 招慶煎茶
- 雲岩掃地
- 禪鑑符讖
- 青州應記
- 首山綱要
- 明安宗旨
- 法華赴齋
- 德普預祀
- 長沙猛虎
- 百丈野狐
- 汾陽師子
- 江西馬駒
- 紫胡獐狗
- 三聖瞎驢
- 懶安白牯
- 佛嶼花奴
- 南山鼈鼻
- 東海鯉魚
- 國師塔樣
- 資福鞞模

- 鹽官索扇
- 仰嶠呈珠
- 長慶淘金
- 伏牛下書
- 惠然透網
- 希運捋鬚
- 傳明散眾
- 慈受棄徒
- 三峰玉琯
- 大哥金鋤
- 德山行棒
- 臨濟下喝
- 趙州布衫
- 普化直裰
- 佛日茶籃
- 道者酒榼
- 香林一燈
- 賢女三物
- 石頭碌磚
- 雲門屎橛
- 二僧捲簾
- 三老翫月
- 惠滿二針
- 古德三鞞
- 演師禮字
- 行者睡佛
- 東坡解帶
- 裴休納笏
- 舜老民衣
- 芙蓉束髮
- 思大吞佛
- 大士講經
- 老盧幡動
- 僧伽鈴鳴
- 麻谷振錫
- 普化搖鈴
- 隱山晦迹
- 洞山除名

- 盧陵米價
- 偃溪水聲
- 大士側坐
- 道者橫行
- 智岩懸囊
- 惠忠掛鐺
- 佛日豆爆
- 典座蟲生
- 惠可了了
- 瑞岩惺惺
- 慈道罐破
- 文悅盆傾
- 宮人千眾
- 惠安單丁
- 清涼十願
- 達磨四行
- 長髭功德
- 黃梅佛性
- 善財採藥
- 大慈識病
- 馬祖展足
- 大覺引頸
- 靈祐踢瓶
- 寂子撲鏡
- 悟本鑿頭
- 烏臼杓柄
- 良禪破關
- 女子出定
- 曇照叫苦
- 亡僧索命
- 大容林蟬
- 古德爛杏
- 翠岩把梢
- 風穴據令
- 石鞏趨鹿
- 南泉斬猫
- 祇林揮劍
- 藥嶠抽刀

- 實際頂笠
- 惠圓腰包
- 上座鼻孔
- 翠岩眉毛
- 杉山拈尺
- 義存斫槽
- 座主鬼窟
- 夾嶺鳳巢
- 泐潭苦瓜
- 香林甜桃
- 義玄拄鐻
- 惠寂插鍬
- 靈源真告
- 玄泰山謠
- 紹銑設館
- 福國戕橋
- 六祖負金
- 神光償債
- 洛浦投師
- 沙彌求戒
- 蔣山三障
- 華藏四礙
- 鎮州蘿蔔
- 普化生菜
- 永嘉一宿
- 雲蓋半載
- 王岳四玄
- 為仰三昧
- 桐峯虎聲
- 投子牛在
- 鏡清失利
- 趙州下載
- 歸宗插標
- 興化擲拐
- 清豁歸山
- 性空沒海
- 黃龍三關
- 浮山九帶

- 青州正座
- 普明不拜
- 仁儉短偈
- 永嘉長歌
- 老龐及第
- 慶諸登科
- 陳操驗僧
- 真際勘婆
- 道士背坐
- 疎山倒屣
- 義存漆桶
- 師備飯籬
- 安國折筯
- 鹿門破鍋
- 雲岩出糞
- 寂子擔禾
- 雲門花欄
- 陸亘瓶鵝
- 石室蹈碓
- 天目撞羅
- 雪竇按劍
- 韶山亞戈
- 古靈揩背
- 從諗洗脚
- 青林死蛇
- 泐潭活雀
- 玄沙三病
- 天平兩錯
- 滏水蓮池
- 趙州略約
- 太陽錢財
- 清平杓索
- 白犬銜書
- 青猿洗鉢
- 飲光坐禪
- 布袋落魄
- 推倒回頭
- 趯翻不托

- 道者休休
- 塔主莫莫
- 太守病痊
- 君王臂落
- 次公點眼
- 駙馬索藥

卷下(千八百四十則一百七十六人)

- 隱峰倒化
- 領眾坐亡
- 歸宗拽杖
- 普化踢床
- 雪峯過嶺
- 洛浦還鄉
- 法遠繡毬
- 文邃香囊
- 鵝湖比較
- 佛日抑揚
- 崇壽登子
- 守芝石幢
- 羅山麩飯
- 白雲蒿湯
- 慈明詐病
- 法華佯狂
- 方會雪屋
- 倚遇煙房
- 平終虎嚙
- 僧被蛇傷
- 古紹雲門
- 青續大陽
- 多羅轉經
- 俱胝誦呪
- 神會義解
- 石頭真吼
- 惟儼不為
- 從諗仍舊
- 老讓開胸

- 道符縮手
- 豐干饒舌
- 憩鶴多口
- 雲岳殘羹
- 泐潭酸酒
- 谷泉巴鼻
- 真歇筋徒
- 惠可斷臂
- 神觀安頭
- 王老水牯
- 中邑獼猴
- 茱萸釘櫬
- 象骨鞦韆
- 龍潭送餅
- 投子沽油
- 巖陽飼虎
- 惠藏牧牛
- 宣鑿出浴
- 師翬登樓
- 雲菴奪席
- 浮照隨舟
- 國師三喚
- 趙州一招
- 大隋蓋龜
- 百丈野鴨
- 曹嶠靈衣
- 疎山壽塔
- 百會不會
- 法達不達
- 楊岐八棒
- 臨濟四喝
- 匾頭被罵
- 水潦遭踏
- 死心下火
- 自禪掛塔
- 天然口啞
- 大耳心通
- 文益書字

- 曉聰栽松
- 禾山義虎
- 瑞岩臥龍
- 翠岩唾地
- 寶壽釘空
- 一城人瞎
- 三日耳聾
- 東山餛飩
- 楊岐栗蓬
- 惠南主法
- 居訥扶宗
- 洪濟師子
- 遼陽大虫
- 趙州掬水
- 百丈夾火
- 金峰行餅
- 布袋拈果
- 中邑鳴啞
- 青山骨剝
- 明招目眇
- 雲門脚踏
- 四處謾人
- 三翻癡囉
- 韶陽九九
- 文殊三三
- 金牛飯桶
- 靈照菜籃
- 丹霞爇佛
- 婆子焚庵
- 雲盖論議
- 德山小參
- 芙蓉妙唱
- 常察玄談
- 二祖安心
- 洞山見影
- 藥嶺榮枯
- 夾山人境
- 香巖樹上

- 仰山出井
- 趙州接客
- 价老看病
- 南泉油糝
- 韶陽胡餅
- 德山托鉢
- 象骨覆盆
- 婆子眷屬
- 王老兒孫
- 雲居送袴
- 道吾得棍
- 九峯頭尾
- 洞山功勳
- 楊岐七事
- 元靜十門
- 老安作用
- 馬祖勞倦
- 鏡清雨聲
- 龐公雪片
- 雪豆靈臺
- 鼓山聖箭
- 鍊面退席
- 克賓出院
- 池陽百門
- 佛陀三勸
- 天然割草
- 提婆投針
- 藥山長嘯
- 般若狂吟
- 師備果子
- 智勤林檎
- 佛果[口*敕]口
- 婆子點心
- 蠱毒之鄉
- 荊棘之林
- 本寂滲漏
- 克符料揀
- 佛日毘盆

- 國師水碗
- 祖心背觸
- 道一長短
- 石樓無耳
- 貞溪具眼
- 可真点胸
- 昌禪擔版
- 德山招扇
- 迦葉刹竿
- 佛光錦帳
- 祐國金襴
- 滑終海嶋
- 亮隱西山
- 大道松妖
- 黃龍赤斑
- 黃牛拒戒
- 師子遇姦
- 石頭路滑
- 五祖機峻
- 明招虎尾
- 老宿鼠糞
- 法演四戒
- 守初三頓
- 成禪一喝
- 太宗十問
- 耽章寶鏡
- 南衙題辭
- 新開雞鴨
- 石門鈎錐
- 無餘唱道
- 萬卦題詩
- 蚊鑽鉄牛
- 鋸解秤槌
- 龐蘊是非
- 清平豐儉
- 大顛佛光
- 雪峰火焰
- 大惠還僧

- 寂音遭貶
- 首山竹篋
- 玄冥木劍

禪苑蒙求目錄(終)(總計五千六百二則考合五百六十二祖)

禪苑瑤林注卷上

燕京大萬壽寺 無諍 德諫 注

少林樂真子 志明 撰

No. 1614-A

嵩山少林錯庵志明禪師。字伯昏。雅號樂真子。安州郝氏子。性忽繩墨。外簡朴而內精繁。始為糠禪四祖。作貫花標月集。有潔首座者激礪。乃雉髮。師香林淨公受具。日夕咨參咨扣勝靜普之室。後徹證於東林。嘗懸木槌拭手謂之槌巾。拄一楞去留自適。人莫能親疎之。東林遷超化。眾請補少林。師打籌自誓。長歌而去。歌曰。五乳峯前餅店開。饅頭如斗餅如篩。洛陽城裏多檀信。墮珥遺簪競作齋。窮跛子。淡淵才。老來因甚舞三臺。拄筇徑上嵩陽道。笑指青山歸去來。挽留不可。諸方咸仰其高致。

No. 1614-B 雪堂和尚注禪苑瑤林引

吾萬松老師以無上機。讀盡天下書。嘗謂余曰。記事者必提其要。纂言者必鉤其玄。韓子之云。良有以也。嗣子雪堂諫公和尚以玉溪老取樂真禪苑瑤林欲板行之。公為之注釋焉。幾六萬言。或者恠其繁。以師言告之。公喝云。東風吹落杏花枝。箇裡紅香在何處。

乙卯年二月二日龍山居士鴈門呂伯 [魚*毘]夫 書

No. 1614-C

禪苑蒙求。錯庵所製。錯庵者即比丘中李瀚王令也。此書貫串二千言。發明五百事。其言辨而載。其學淵而博。可以為禪門節事。法海聯題。使後學省十載之勞。成半藏之記。公慈悲足見。以夫錯庵謂誰。乃不搽紅紛拂袖於小林者也。

正大乙酉臘前五日友人幅巾男子樗軒居士題後

No. 1614-D 禪苑蒙求引

樂真禪師為初機後學而設也。師以正法眼作文字禪。駢以對偶。諧以韻語。凡五百餘則。以使學者觀覽。予且讀且笑曰。師把定要津。不通凡聖。何區區乎此書。無迺為蛇畫足耶。師曰。子言誠是。雖然。童稚無識未能參叩。使成誦在口粗知問津。則吾此書不為助。譬猶教[土*(虍-七+子)]雷大使作舞。雖非本色。且要兒孫不墜素業耳。於是咲謝而為引。

時正大三年正月二十六日 閑居士 書

No. 1614
禪苑蒙求卷之上

釋迦七步

(普曜經)世尊降生。一手指天。一手指地。周行七步。目顧西方云。天上天下。唯我獨尊。○和補曰。普曜經云。佛初生剎利王家。放大智光明。照十方界。地湧金蓮華自捧雙足。東西及南北各行於七步。分手指天地。作師子吼聲。上下及四維能尊我者。

達磨九年

(傳燈三)初祖於嵩山少林寺面壁九年。人莫測之。時謂之壁觀婆羅門。○和補曰。傳燈第三云。師自梁涉魏。至洛陽少林面壁而

坐。經九年方得二祖傳法。

靈山密付

(會元一)世尊在靈山會上拈華示眾。是時皆默。然唯迦葉尊者破顏微笑。世尊曰。吾有正法眼藏。涅槃妙心。實相無相。微妙法門。不立文字。教外別傳。付屬摩訶迦葉。世尊至多子塔前。命摩訶迦葉分座令坐。以僧伽梨圍之。遂告曰。吾以正法眼藏密付於汝。汝當護持。傳付將來。

少室單傳

(傳燈三)傳法諸祖初以三藏教乘兼行。後達磨祖師單傳心印。破執顯宗。所謂教外別傳。不立文字。直指人心。見性成佛也。○和補曰。傳燈三云。達磨於少林顧惠可。告之曰。昔如來以正法眼藏方付迦葉。展轉而至我。我今付汝。

青原與斧

(六祖法嗣 會元五)吉州青原行思禪師令石頭馳書往南岳讓和尚處。乃云。回來與汝銚斧子去。石頭到彼便問。不慕諸聖。不重己靈時如何。岳曰。子問太高生。何不向下問。頭曰。寧可永劫沈淪。不求諸聖解脫。便回。原曰返何速乎。頭曰。書亦不達。信亦不通。去時蒙許銚斧子住山。便請。思垂下一足。頭便禮拜。歸南岳住菴。

南岳磨磚

(會元三)懷讓禪師居南岳時。馬祖在彼住菴。日唯坐禪。因往問曰。在此何為。祖曰坐禪。何所圖。曰圖作佛。讓一日將磚一片於菴前磨。祖曰磨此何為。岳曰要作鏡。祖曰磨磚豈得成鏡。曰

坐禪豈得成佛。祖曰如何即是。曰。如人駕車。車若不行。打車即是。打牛即是。祖於是悟旨於言下。遂印心傳法。符西祖之讖。馬駒踏殺天下人之語。南宗闡於江西。

大雄創寺

(馬祖法嗣 傳燈六)洪州百丈懷海禪師一日以禪宗肇自少室。至曹溪已來多居律寺。雖云別院。然於說法住持未合規度。故常爾介懷。乃曰。佛祖之道欲誕布化。元冀來際不泯者。豈當與諸部阿笈摩教為隨行邪。遂制叢林清規。禪門獨行自百丈始。今略敘其大要。徧示後學令不忘本也。其諸軌度山門備焉。大雄者。大雄山以居處。岩巒峻嶒。故號之百丈。

百丈開田

(懷海法嗣 岩元四)百丈山涅槃和尚一日謂眾曰。汝等與我開田。我與汝說大義。眾開田了。歸請說大義。師乃展兩手。眾罔措。

為仰體用

(百丈法嗣 傳燈九)為山與仰山摘茶次。為曰。終日只聞子聲。不見子形。仰遂撼茶樹。為曰。子只得其用。不得其體。仰曰。和尚如何。為良久。仰曰。和尚只得其體。不得其用。為云。放子三十棒。仰曰。和尚棒某甲喫。某甲棒教誰喫。為曰。放子三十棒。玄覺云。且道過在甚麼處。

曹洞正偏

(人天眼目)曹洞家有五位君臣。謂○正中偏。○偏中正。○正中來。○偏中至。○兼中到。

雲門數句

(雪峰法嗣 人天眼目)韶州雲門文偃禪師示眾曰。人人自有光明在。看時不見暗昏昏。作麼生是諸人自己光明。自代云。厨庫三門。又云。好事不如無。又示眾云。聞聲悟道。見色明心。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。放下手元來却是饅頭。○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云日裏看山。○僧問如何是透法身句。師云北斗裏藏身。○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。師云東山水上行。○僧問如何是正法眼藏。師云普。○僧問不起一念還有過也無。師云須彌山。○僧問如何是啐啄之機。師云響。○僧問如何是學人自己。師云遊山玩水。○僧問如何是吹毛劍。師云祖。○僧問。殺父殺母佛前懺悔。殺佛殺祖向什麼處懺悔。師云露。○僧問佛法如水中月是否。師云清波無透路。○僧云和尚從何得。師云再問復何來。僧云便恁麼去時如何。師云重疊關山路。

臨濟三玄

(黃檗法嗣 傳燈十二)鎮州臨濟義玄禪師曰。夫一句語須具三玄。一玄門須具三要。有權有用。汝等諸人作麼生會。三玄者。體中玄。玄中玄。句中玄。

世尊良久

(楞嚴一)外道問佛。不問有言。不問無言。世尊良久。外道讚歎云。世尊大慈大悲。開我迷雲。令我得入。外道去後。阿難問佛。外道有何所證而言得入。佛言。如世良馬。見鞭影而行。

維摩默然

(會元二)維摩會上三十二菩薩各說不二法門。文殊曰。我於一切法無言無說。無示無識。離諸問答。是為菩薩入不二法門。於是文殊問維摩詰。我等各自說已。仁者當說何等是菩薩入不二門。時

維摩詰默然無言。文殊歎曰。善哉善哉。乃至無有文字語言。菩薩真入不二法門。

帝釋插草

(僧寶傳中)佛以手指地曰。此處宜建梵剎。天帝釋將一莖草插其處曰建梵剎竟。佛乃微笑。

布袋乞錢

(傳燈二十七佛祖統紀有傳)明州奉化縣布袋和尚者。未詳氏族。自稱名契此形裁。𦘔(烏罪反)𦘔(奴罪反)蹙額蟠腹。出語無定。寢臥隨處。常以杖荷一布囊。凡供身之具盡貯囊中。入廛肆聚落見物則乞。或醢[醢-右+(乞-乙+口)]魚菹。才接入口分。少許投囊中。時號長汀子布袋師也。有一僧在師前行。師乃拊背一下。僧回頭。師曰乞我一文錢。曰道得即與汝一文。師放下布囊叉手而立。

黃蘗一掌

(傳燈十二)見百丈野狐處(在卷之中)。

大愚三拳

(歸宗常法嗣 傳燈二)臨濟初在黃蘗斷際禪師會中。第一座勉令問話。濟迺上問曰。如何是佛法的大意。黃蘗便打。如是三問。三回被打。將辭往諸方。第一座告黃蘗曰。義玄上座雖是後生。却甚奇特。來辭和尚願更垂提誘。來日濟上辭。黃蘗指往高安見大愚。濟到大愚。愚問曰什麼處來。濟曰黃蘗來。愚曰黃蘗有何言句。濟曰。義玄三度問西來的的意。三度蒙賜棒。不知過在什麼處。愚曰。黃蘗恁麼老婆心為汝得徹。猶覓過在。濟於言下大

悟云。元來黃蘗佛法無多子。愚忸住濟曰。者尿床鬼子。適道過在什麼處。如今却道黃蘗佛法無多子。你見箇什麼道理。速道道。濟於大愚肋下築三拳。大愚托開云。汝師黃蘗。非干我事。濟辭大愚回黃蘗。蘗云汝回太速生。濟云祇為老婆心切。便人事了。侍立次。黃蘗云。大愚有何言句。濟遂舉前話。蘗云這大愚老漢待見痛與一頓。濟云。說什麼待。即今便與。隨後便打黃蘗一掌。黃蘗云。這風顛漢却來這裏捋虎鬚。濟便喝。蘗云。侍者引這風顛漢參堂去。

李翱問道

(傳燈十四)唐李翱。字習之。參藥山問道。山以手指上下曰會麼。翱曰不會。山云雲在青天水在餅。翱乃述偈云。鍊得身形侶鶴形。千株松下兩函經。我來問道無餘說。雲在青霄水在餅。

陳操論禪

(陳尊宿弟子傳燈九)睦州刺史陳操尚書飯雲門偃而問曰。儒書即不問。三乘十二分教自有講師。如何是衲僧行脚事。曰曾問幾人來。曰即今問上座。偃曰。即今且置。作麼生是教意。曰黃卷赤軸。偃曰。此是文字語言。作麼生是教意。曰。口欲談辭喪。心欲緣而慮忘。偃曰。口欲談辭喪。為對有言。心欲緣而慮忘。為對妄想。作麼生是教意。尚書無以酬之。偃曰。聞公常看法華經是否。曰不敢。曰。經曰治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。且道非非想天有幾人退位。又無以酬之。偃呵譏之而去。

靈雲見花

(瀉山法嗣 傳燈十一)福州靈雲志勤禪師初在瀉山。因見桃花啟悟。迺曰。三十季來尋劍客。幾逢落葉又抽枝。自從一見桃花。後直

到如今更不疑。為山一日曰。從緣得入永無退轉。後玄沙聞曰。諦當甚諦當。敢保老兄未徹在。

香巖擊竹

(傳燈十一)鄧州香巖智閑禪師初參為山不契。辭抵南陽忠國師遺跡憩焉。一日因山中芟除草木。以瓦礫擊竹作聲。俄失笑間。廓然自省。乃述偈曰。一擊忘所知。更不假修治。處處無蹤跡。聲色外威儀。諸方達道者。盡言上上機。

沙彌尋思

(傳燈五)石頭希遷禮六祖為師。未受具屬。祖將示滅。遷曰和尚百年後希遷當何所依。祖曰尋思去。及祖順世。遷每於靜處端坐。寂若忘生。第一座問曰。汝師已逝。空坐奚為。遷曰。我稟遺誠。故尋思爾。座曰。汝有師兄行思在青原。汝當依焉。師言甚直。汝自迷爾。遷遂詣靜居。即嗣青原之道。

道者覓宿

(會元一)五祖弘忍大師者。蘄州黃梅人也。先為破頭山中栽松道者。嘗請於四祖曰。法道可得聞乎。祖曰汝已老脫。有聞其能廣化耶。儻若再來。吾尚可遲汝。迺去行水邊。見一女子浣衣。揖曰寄宿得否。女曰我有父兄可往求之。曰。諾我即敢行。女首肯之。遂回策而去。女周氏季子也。歸輒孕。父母大惡逐之。女無所歸。日傭紡里中。夕止於眾館之下。已而生一子以為不詳。因拋濁港中。明日見之泝流而上。氣體鮮明。大驚。遂舉之成童。隨母乞食。里人呼為無姓兒。逢一智者歎曰。此子缺七種相不逮如來。後遇信大師得法嗣。化於破頭山。

鳥窠吹毛

(道欽法嗣 會元二)杭州烏窠道林禪師。因棲樹上時為鳥窠。有侍者會通辭去。師謂曰。汝今何往。曰諸方學佛法去。師曰。若是佛法。吾此間亦有少許。曰如何是和尚佛法。師於身上拈起布毛吹之。會通便悟。

龍潭滅燭

(天皇道吾法嗣 傳燈十五)德山因造龍潭崇信禪師。即時辭去。龍潭留之。一夕於室外默坐。龍問何不歸來。山對曰黑。龍潭乃點燭與山。山擬接。龍便吹滅。山乃禮拜。龍曰見什麼。曰從今向去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。至明日便發。龍潭謂諸徒曰。可中有一箇漢。牙如劍樹。口似血盆。一棒打不迴頭。他時向孤峯頂上立吾道在。

孚公搖頭

(會元七)太原孚上坐徧歷諸方。名聞宇內。嘗遊浙中。登徑山法會。一日於大佛殿前有僧問上座曾到五臺否。師曰曾到。曰還見文殊麼。師曰見。曰什麼處見。師曰徑山佛殿前見。其僧後適閩川。舉似。雪峯曰何不教伊入嶺來。師聞乃趨裝而邁。初上雪峯廨院憩錫。因分甘子與僧。長慶稜和尚問什麼處將來。師曰嶺外將來。曰遠涉不易擔負得來。師曰。甘子甘子。方上參雪峯。禮拜訖立于座右。雪峯才顧視。師便下看主事。異日雪峯見師乃指日示之。師搖手而出。雪峯曰汝不肯我。師曰和尚搖頭某甲擺尾。什麼處不肯和尚。曰到處須諱却。師不出世。諸方目為太原孚上座。

居士翹足

三角禾豆

(馬祖法嗣 會元三)潭州三角山德印禪師。僧問如何是三寶。師曰禾麥豆。曰學人不會。師曰大眾欣然奉持。

南華稻粟

婆子作齋

(會元六)龐行婆入鹿門寺設齋。維那請意旨。婆拈梳子插向髻後曰回向了也。便出去。

甘贄設粥

(南泉弟子傳燈十)池州甘贄行者入寺設粥。仍請南泉念誦。泉乃白槌曰。請大眾為狸奴白牯念摩訶般若波羅蜜多。甘拂袖便出。南泉粥後問典座。行者在甚麼處。座曰當時便去也。泉便打破鍋子。

灌溪劈箭

(臨濟法嗣 傳燈十二)魏府灌溪志閑禪師。因僧問久響灌溪。到來只見漚麻池。師曰。汝只見漚麻池。不見灌溪。僧曰如何是灌溪。師曰劈箭急。

踈山嚙鏃

(傳燈十七)撫州踈山圓照匡仁禪師。身相短陋。精辨冠眾。洞山門下時有嚙鏃之機。激揚玄奧。咸以仁為能詮量者。諸方三昧可以詢乎矮師叔。

天鉢花開

九峰麥熟

(延壽法嗣)九峯道詮禪師。僧問承聞和尚親見延壽來是否。詮曰山前麥熟未也。

亞子延僧

則天賜浴

(事苑一)唐武則天皇后。嵩山老安·北宗神秀入襟中供養。因澡浴次。宮姬給侍。獨安怡然無他。后歎曰。入水始知有長人(云云)。

尚書打毬

(禪林類聚一)和補曰。王常侍睦州蹤禪師。一日師問今日何放入院追。王云。為看馬打毬。所以來追。師云。人打毬馬打毬。王云人打毬。師云。人困麼。云困。師云馬困麼。師云露柱困麼。王恤然無對。歸至私第中。夜間忽然省得。明日見師云。某會得昨日事也。師云露柱困麼。王云困。師遂許之。

大夫雙陸

(傳燈八)唐陸巨大夫與南泉見人雙陸。遂拈起骰子云。恁麼不恁麼。只與麼信彩去時如何。泉曰臭骨頭十八。

行者失咲

(明安玄法嗣 僧寶傳中)雪竇初在大陽玄禪會中典客。與僧夜語雌黃古今。至趙州栢樹子因緣爭辨不已。有行者立其傍失咲而去。客退雪竇呼至。數之曰。對賓客敢笑耶。對曰。知客有古今之辨。無定古今之眼。故敢笑。曰且趙州意你作麼生會。因以偈對曰。一兔橫身當古路。蒼鷹纔見便生擒。後來獵犬無靈性。空向枯椿

舊處尋。雪竇大驚。乃與結友。或云即承天宗禪師也。予謂聞此可以想見當時法席之盛也。

陸亘合哭

(傳燈十)陸亘大夫因南泉示寂。院主問曰大夫何不哭先師。亘曰道得即哭。主無語。長慶代云。合笑不合哭。

大寂吹耳

(馬祖法嗣 會元三)洪州泐潭惟建禪師。一日在馬祖法堂後坐禪。祖見乃吹建耳。兩吹建起定。見是和尚却復入定。祖歸方丈令侍者持一碗茶與建。建不顧便自歸堂也。

尊者撥眉

(傳燈七)賓頭盧尊者赴阿育王宮大會。王問承聞尊者親見佛來是否。尊者以手撥開眉毛曰會麼。王曰不會。尊者曰阿耨達池龍王請佛齋時。貧道亦預其數。賓頭盧指吾身曰如何是。

寒山茄串

(會元二)天台山寒山子因眾僧炙茄次。將茄串向一僧背上打一下。僧回首。山呈起茄串云。是甚麼。僧曰這風顛漢。山向傍僧曰。你道這僧費却我多少鹽醋。

解脫粥籠

(牛頭忠法嗣 會元二)古清涼傳。大隋五臺縣昭果寺解脫禪師自文殊示心印之後。乃謙卑自牧。專精侍眾。厥後文殊躬臨試驗。解脫每清旦為眾營粥。文殊忽見於前。脫殊不顧視。文殊警之曰。吾

是文殊。脫以攪粥籠便打曰。文殊自文殊。解脫自解脫。殊乃說偈曰。苦瓠連根苦。甜瓜徹蒂甜。修行三大劫。却被老僧嫌。

陳老蒲鞋

(黃蘗法嗣)睦州龍興寺道蹤禪師。即陳尊宿也。見黃蘗造悟。住高安米山寺。以母老東歸。鬻草履以給侍。後住龍興寺。

龐蘊鹿籬

(馬祖弟子傳燈)襄州龐蘊居士。一女名靈照。常隨製竹鹿籬令鬻之。以供朝夕。

悟本紙撚

(雲岩晟法嗣 會元十五)和補曰。洞山守初禪師。僧問如何是正法眼。師曰紙撚無油。初嗣雲門。洞山悟本傳中無紙撚之事。

法眼香匙

(桂琛法嗣 傳燈廿四)昇州清涼院文益大法眼禪師與悟空禪師向火拈起香匙。問悟空云。不得喚作香匙。兄喚作什麼。空云香匙。師不肯。悟空却後二十餘日方明此語。

光仁女子

(良价法嗣 傳燈十七)踈山握木蛇。有僧問手中是什麼。師提起曰曹家女。

玄則童兒

(天益法嗣 傳燈廿四)金陵報恩院玄則禪師。初問青峰如何是佛。青峰曰丙丁童子來求火。師得此語藏之於心。及謁淨惠詰其悟旨。

師對曰。丙丁是火而更求火。亦似玄則將佛問佛。淨惠曰。幾放過。元來錯會。師雖蒙開發。頗懷猶豫。復退思既殆。莫曉玄理。乃投誠請益。淨惠曰。汝問我與汝道。師乃問如何是佛。淨惠曰丙丁童子來求火。師豁然知歸。後住報恩院。

九峰拽擺

(智門祚嗣僧寶傳下)九峯長老勤公曰。揚岐牽犁。九峯拽把。

保福扶犁

(雪峰法嗣 傳燈十)潭州保福院從展禪師。因舉盤山道光境俱忘復是何物。洞山道。光境未忘復是何物。師曰。據此二尊宿商量猶未得勦絕。乃問長慶如今作麼生道得勦絕。慶良久。師曰情知和尚向鬼窟裏作活計。慶却問作麼生。師云兩手扶犁水過膝。

玄泰布衲

(石霜諸嗣傳燈十六)南嶽玄泰上坐。不知何許人也。沈靜寡言。未嘗衣帛。眾謂之泰布衲。

克符紙衣

(臨濟法嗣 會元十一)涿州紙衣克符和尚也。

庵主不顧

(臨濟法嗣 傳燈十二)蓮華峰祥庵主。拈拄杖示眾云。古人到這裡為什麼不肯住。眾無語。自代云。為他途路不得力。復云。畢竟如何。又自云。柳[木*栗]橫擔不顧人。直入千峰萬峰去。(柳[木*栗]。拄杖也)。

良窳盡知

(會元四)壽州良窳座主參麻谷。蒙印可。返都城講肆。散席告諸徒曰。諸人知處良窳總知。良窳知處諸人不知。

常侍擲筆

(瀋山弟子會元九)襄州王敬初常侍視事次。米和尚至。常侍廼舉筆。米曰還判得虛空否。常侍擲筆入廳更不出。米致疑。至明日憑鼓山供養主人探其意。米隨之潛立屏蔽間偵伺。供養主纔坐便問。昨日米和尚有甚麼言句便不得見。常侍曰。師子咬人。韓獹逐塊。米師聞得即省前謬。遽出即笑曰。我會也我會也。侍曰。會即不無。你試道。米曰。請常侍舉。侍乃豎起一隻筋。米曰這野狐精。公曰這漢徹也。

太傅過泥

(會元九)和補曰。瀋山因泥壁次。李軍容來具公裳直至。至師背後端笏而立。師回首見便側泥盤作接泥勢。李便轉笏作進泥勢。師便拋下泥盤。同歸方丈。

于頔失色

(會元三)于頔相公問紫玉山道通禪師。如何是黑風吹其船舫漂墮羅剎鬼國。師云。于頔客作漢。問恁麼事恁麼。于公失色。師乃指云遮箇是漂墮羅剎鬼國。于又問如何是佛。師喚于頔。頔應諾。師云更莫別求。

李勃懷疑

(傳燈七)江州刺史李勃問歸宗。嘗聞須彌納芥子則不疑。芥子納須彌莫是妄談否。宗云。人傳史君李萬卷是否。刺曰不敢。宗以手

摩頂至踵乃曰。都如椰子大。萬卷詩書向甚處著。刺俛首而已。

石鞏張弓

(傳燈十四)撫州石鞏惠藏禪師常以弓箭接人。三平到。師作挽弓勢云看箭。三平作避勢。師云平生架一張弓一隻箭。只射得半箇聖人。

禾山打鼓

(九峰虔法嗣 碧岩九)禾山澄源無殷和尚垂語云。習學謂之聞。絕學謂之隣。過此二者是為真過。僧出問如何是真過。師云解打鼓。又問如何是真諦。師云解打鼓。又問。即心即佛不問。如何是非心非佛。師云解打鼓。又問上人來時如何接。師云解打鼓。

歸宗拽石

(馬祖法嗣 傳燈 事苑二)雲門所謂雪峯鞦韆。歸宗拽石。

木平般土

(蟠龍可文法嗣 傳燈)表州善道木平和尚。凡有新到未容參禮。先令般土三擔。示與頌曰。東山路側西山低。新到莫辭三擔泥。嗟汝在途經日久。明明向道却成迷。

宣鑿斫牌

(會元七)德山卓牌於鬧市。牌上書字曰。佛來也打。祖來也打。傳燈。巖頭卓牌。岩頭廢教後。在鄂州湖邊作渡子。兩岸立板牌一所。書云。如有渡者請擊此牌一下。凡有擊者師乃舞橈而渡之。然德山卓牌未見所出。○和補曰。祖庭事苑會元云。雪峰一日見

玄沙來三箇木毬一齊輓。玄沙便作斫牌勢。雪峰深肯之。故宣鑑作玄沙。

白雲搖臚

道吾起拜

(關南道嘗法嗣 傳燈十一)襄州關南道吾和尚。僧問如何是和尚深深處。師下禪床作女人拜云。謝子遠來。無可祇對。

迦葉作舞

(會元一)世尊因乾闥婆王獻樂。其時山河大地盡作琴聲。迦葉起作舞。王問迦葉豈不是阿羅漢諸漏已盡。何更有餘習。佛曰實無餘習。莫謗法也。王又撫琴三徧。迦葉亦三度作舞。王曰迦葉作舞豈不是。佛曰實不曾作舞。王曰世尊何得妄語。佛曰。不妄語。汝撫琴。山河大地木石盡作琴聲。豈不是。王曰是。佛曰。迦葉亦復如是。所以實不曾作舞。王乃信受。

涌泉騎牛

(石霜諸嗣傳燈十六)台州涌泉景欣禪師。有疆德二禪客到。於路次見師騎牛。不識師。曰。蹄角甚分明。爭奈騎者不識。師驟牛而去。二禪客憩於樹下煎茶。師迴下牛。近前不審與坐喫茶。師問二禪客近離什麼處。曰離那邊。師曰那邊事作麼生。彼提起茶盞。師曰此猶是遮邊。那邊事作麼生。二人無對。師曰莫道騎者不識好。

牧庵跨虎

(佛眼法嗣 普燈十六)隆興府黃龍牧庵法忠禪師。居南嶽。每跨虎出游。儒釋望塵而拜。

徑山蟪螟

(瀉山法嗣 傳燈十一)杭州徑山洪謹禪師(徑山第三祖)。僧問如何是長。師云千聖不能量。問如何是短。師云蟪螟眼裏著不滿。其僧不肯。便去。舉似石霜。霜云只為太近實頭。僧云如何是長。霜云不屈曲。云如何是短。霜云双六盤中不喝采。

地藏鸚鵡

(玄沙法嗣 會元八)障州羅漢院桂琛禪師。障牧王公請於閩城西之石山建精舍曰地藏。請師駐錫焉。僅逾一紀。後遷止障州羅漢院。大闡玄要。學徒臻湊。師問僧什麼處來。曰秦州來。師曰將得什麼物來。曰不將得物來。師曰汝為什麼對眾漫語。其僧無語。師却問秦州豈不是鸚鵡。僧曰鸚鵡出在隴西。師曰也不較多。

石霜侍師

(道吾法嗣 傳燈十五)潭州石霜慶諸禪師。道吾將捨眾順世。以師為嫡嗣。躬至石霜而就之。師日勤侍。全于師禮。暨道吾歸寂。學侶雲集。盈五百眾。

慈覺養母

谷泉配役

(僧寶傳)衡嶽谷泉禪師。嘉祐中男子冷清夭言誅。師坐清曾經由庵中決杖。配郴州牢城。盛暑負土經通衢。放擔說偈曰。今朝六月六。谷泉被氣[祝/土]。不是上天堂是入地獄。言訖微笑。泊然如蟬蛻。

長興遭虜

(泉仁法嗣 會元十三)和補曰。重雲智暉禪師。歸終南圭峯舊居建寺。後唐明宗賜額曰長興。上坐。僧問如何是隨照失宗。師云家遭劫賊。

宣老為男

(瑯琊覺法嗣 會元十二)歸宗宣禪師。漢州人。瑯琊廣照之嗣。與郭功甫厚善。忽一日南康守以事臨之。宣令人馳書與功甫。且祝送書者云。莫令縣君見。功甫時任南昌尉。書云。某更有六年世緣未盡。今日不奈抑逼何。欲託生君家。望君相照。乃化去。功甫得書驚喜盈懷。中夜某妻夢寐髣髴見宣入臥內。不覺失聲云。此不是和尚來處。功甫問其故。妻答所見。功甫呼燈以宣書示之。果有娠。及生即名宣光。纔周歲記問如昔。逮三歲白雲端和尚過其家。功甫喚出相見。望見便呼師姪。端云與和尚相別幾年耶。宣屈指云四年也。端云在甚處相別。宣云白蓮莊。端云以何為驗。宣云爹爹媽媽明日請和尚齋。忽門外推車過。端云門外什麼聲。宣作推車勢。端云過如何。宣云平地一條溝。甫及六歲無疾而化。

信公作女

(天皇法嗣 傳燈十四)海印信和尚。嗣瑯琊。桂府人也。住蘇州定惠寺。年八十餘。平日受朱防禦家供養。屢到其宅。一日朱問曰。和尚後世能來弟子家中託生否。師微笑諾之。及歸寺得病。數日而化。其遷化日。朱家生一女子。圓照本禪師時住瑞光。聞其事往訪之。方出月。抱出一見便笑。圓照云。海印儼銷了也。女子哭數聲。化去。

四賢問道

(會元十九)于迪相公見紫玉。裴休相國問黃蘗高僧。楊億內翰參透廣惠。李遵勗太尉見石門大悟。

三佛下語

(會元十九)三佛在五祖時嘗於一亭上夜話。歸方丈燈已滅。五祖乃於暗中曰各人下轉語。佛鑑對云彩鳳舞丹霄。佛眼曰鍤虵橫古路。佛果云看脚下。五祖曰。滅吾宗者乃克勤(圓悟也)爾。

真際庭栢

(會元四)趙州觀音院(亦曰東院)從諗禪師。曹州郝鄉人也。姓郝氏。諡真際大。師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云庭前栢樹子。僧云和尚莫將境示人。師云我不將境示人。僧云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云庭前栢樹子。

守初麻斤

(雲門法嗣 傳燈廿三)洞山守初禪師。僧問如何是佛。師云麻三斤。

浮石鬻卜

(子湖蹤法嗣 傳燈十一)障州浮石和尚。因上堂云。山僧開箇卜鋪。能斷人貧富。定人生死。時有僧出云。離却生死貧富。不落五行。請師直道。師云金木水火土。

王老賣身

(王南泉俗姓傳燈八)池州南泉普願禪師示眾云。王老師賣身去也。還有人買得麼。有僧出云某甲買。泉云。不作貴不作賤。作麼生買。酌價僧無對。

香巖原夢

(傳燈九) 瀉山臥次。仰山問訊。瀉山轉面覷後。仰云。某甲是和尚弟子。何用形跡。瀉山作起勢。仰山便出。瀉山喚回云。我適來得一夢。汝試原看。仰山將一盆水并手巾度與瀉山。瀉山遂洗面。香巖至。瀉云。我適來與寂子作一上禪通。不同小小。巖云某甲下面一一知得。瀉云試道看。巖点一碗茶與瀉山。瀉云二子神通過於鷲子(舍利弗也)。

普化描真

(會元三) 普化和尚。幽州盤山寶積和尚法嗣。山臨遷化謂眾云。還有人描得吾真麼。眾皆寫真呈山。山皆叱之。普化出云某甲描得。山云何不呈似老僧。普化便打筋斗而出。山云這漢向後如風狂接人去在。山乃奄化。

婆子偷笋

(會元四) 趙州路逢一婆子。問曰甚處去。婆云偷趙州笋去。忽遇老僧又作麼生。婆便與一掌。州休去。

行者施銀

(傳燈十四) 藥山令供養主化。甘贄行者問什麼處來。僧曰藥山來。甘曰來作麼。僧曰教化。甘曰還將藥來麼。僧曰行者有什麼病。甘便捨銀兩挺曰若有人即送來。無人即休。山恠其僧回急。僧曰佛法相當得兩挺銀。山令舉其語。舉了。山令僧速送銀還行者家。行者見僧迴。云。猶來。遂添銀施之。

莊宗得寶

(傳燈十二)後唐莊宗車駕幸河北。回至魏府行宮。詔興化存獎禪師問云。朕收中原獲得一寶。未曾有人酬價。獎曰請陛下寶看。帝以兩手舒幞頭脚。獎曰君王之寶誰敢酬價。(玄覺徵曰。且道興化肯莊宗。若肯莊宗。興化眼在甚麼處。若不肯莊宗。過在甚麼處)龍顏大悅。賜紫衣師號。獎皆不受。乃賜馬與師乘騎。馬忽驚。師墜傷足。帝復賜藥救療。師喚院主與我做箇木棒拐子。主做了將來。師接得遶院行。問僧曰汝等還識老僧麼。曰爭得不識和尚。師云。[跳-兆+戾]脚法師說得行不得。

船子得鱗

(藥山儼法嗣 會元五)透州華亭船子德誠禪師。節操高邈。度量不群。自印心於藥山。與道吾雲岩為同道交。泊離藥山乃謂二同志曰。公等應各據一方建立藥山宗旨。予率性踈野。唯好山水。樂情自遣。無所能也。他後知我所止之處。若遇靈利座主指一人來。或堪雕琢。將生平所得以報先師之恩。遂分携至透州華亭。泛一小舟隨緣度日。以接四方往來之者。時人莫知其高蹈。因號船子和尚。一日泊船岸邊閑坐。有官人問如何是和尚日用事。師豎起橈子曰會麼。官人曰不會。師云棹撥清波金鱗罕遇。師有偈曰。三十年來坐釣臺。鉤頭往往得黃能。金鱗不遇空勞力。收取絲綸歸去來。道吾後到京口。遇夾山上堂。僧問如何是法身。山曰法身無相。曰如何是法眼。山云法眼無瑕。道吾不覺失笑。山便下座請問道吾。某甲適來祇對這僧話必有不是。致令上座失笑。望上座不吝慈悲。吾曰。和尚一等是出世。未有師在。山曰某甲甚處不是望為說破。吾云。某甲終不說。請和尚却往華亭船子處去。山云此人如何。吾曰此人上無片瓦下無卓錫。和尚若去須易服而往。山乃散眾束裝直造華亭。船子纔見便問大德住甚麼寺。山云寺即不住住即不似。師云。不似似箇甚麼。山曰不是目前法。師曰甚處學得來。山云非耳目之所到。師云。一句合頭

語。萬劫繫驢橛。師又問。垂絲千尺意在深潭。離鈎三寸子何不道。山擬開口。被師一橈打落水中。山纔上船。師又曰道道。擬開口。師又打。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。師云竿頭絲線從君弄。不犯清波意自殊。山遂問拋綸擲釣師意如何。師云絲懸淥水浮定有無之意。山云。語帶玄而無路。舌頭談而不談。師云。釣盡江波。金鱗始遇。山乃掩耳。師云如是如是。遂屬云。汝向去直。須藏身處沒蹤迹。沒蹤迹處莫藏身。吾二十年在藥山祇明斯事。汝今既得。他後莫住城隍聚落。但向深山裏鑊頭邊。覓取一箇半箇。無令接續斷絕。山乃辭行。頻頻回顧。師遂喚闍梨。山乃回首。師豎起橈子曰。汝將謂別有。乃覆船入水而逝也。○和補曰。三十年來海上遊。水清魚現不吞鈎。釣竿斫盡重栽竹。不計功程得便休。(船子誠之頌)

趙州狗子

(南泉法嗣 大惠書)趙州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。州云無。又問。一切眾生皆有佛性。因甚狗子却無。州云有業識在。

臨濟真人

(傳燈十二)臨濟上堂云。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。常從汝等諸人面門出入。未證據者看看。時有僧問如何是無位真人。師下禪床把住云道道。其僧擬議。師托開云。無位真人是什麼乾屎橛。便歸方丈。

華林二虎

(馬祖法嗣 傳燈八)潭州華林善覺禪師。常持錫夜出林麓間。七步一振錫。一稱觀音名號。一日觀察使裴休訪之問云。師還有侍者否。師云有一兩箇。裴曰在甚麼處。師乃喚大空小空。時二虎自庵後而出。裴休視之驚悸。師語之云有客且去。二虎哮吼而去。

裴問云。師作何行業感得如此。師良久曰會麼。曰不會。師云山僧常念觀音。

青原一麟

(會元五)石頭遷問青原思禪師。曹溪大師還識和尚不。思曰汝今識吾否。曰識亦爭識得。思曰。眾角雖多。一麟足矣。

道吾裝鬼

三聖到道吾。吾預知以緋抹額持神杖於門下立。聖曰小心祇候。吾應喏。聖參堂了再上人事。吾具威儀方丈內坐。聖纔近前。吾曰有事相借問得麼。聖曰。也是適來野狐精。出去。

拾得呵神

(傳燈廿七)天台拾得者。不言名氏。因豐干禪師山中經行。至赤城道側聞兒啼聲遂尋之。見一子可數歲。初謂牧羊子。及問之云孤棄于此。豐干乃名為拾得。携至國清寺付典座僧曰。或人來認必可還之。有護伽藍神窟。每日僧厨下食。為鳥所有。拾得以杖扶之曰。汝食不能護。安能護伽藍乎。此夕神附夢于合寺僧曰。拾得打我。詰旦諸僧說夢符同。一寺紛然。牒申州縣。群符至云。賢士隱遁菩薩應身。宜用旌之。號拾得為賢士。隱石而逝。

大覺潑水

(泐潭法嗣 會元十五)明州育王山懷璉大覺禪師。障州龍溪陳氏子。誕生之夕夢僧伽降室。因小字泗州。既有異兆。僉知祥應。齟齬出家。卅角圓頂。篤志道學。寢食無廢。一日洗面潑水于地。微有省發。即慕參尋。遠造泐潭法席。投機印可。

興教墮薪

(韶國師法嗣 會元十)杭州興教洪壽禪師。同國師普請次。聞墮薪有省。作偈曰。撲落非佗物。縱橫不是塵。山河及大地。全露法王身。

三師行說

杭州大慈寰中禪師(嗣百丈海)示眾曰。說得一丈不如行取一尺。說得一尺不如行取一寸。洞山曰。我不恁麼道。僧曰作麼生。洞山曰說取行不得底。行取說不得底。○雲居曰。行時無說路。說時無行路。不說不行時。合行什麼路。

二老踈親

(傳燈七)夾山與定山同行言話次。夾山云生死中有佛即不迷生死。定山云生死中無佛即無生死。二人往返不決。上山參禮。夾山便舉前話問大梅。未審那箇親。梅云一親一踈。夾山云那箇親。梅且去明日來。夾山明日再上問。梅云。親者不問。問者不親。

文殊白槌

(會元一)世尊陞座。文殊白槌曰。諦觀法王法。法王法如是。世尊便下座。

百丈捲席

(會元三)百丈海一日與馬祖遊山見野鴨子。祖問曰是甚麼。丈曰野鴨子。曰甚處去。丈云飛過去。祖遂引手扭百丈鼻頭。丈作痛聲。祖曰何曾飛過。丈於是大悟。至明日祖陞座。丈出卷却面前禮拜席。祖便下座。

大達妄想

(馬祖法嗣 傳燈八)汾州無業禪師。諡大達國師。凡有學者致問。答曰莫妄想。

洛甌消息

(會元五)洛甌到天仙。仙問甚處來。甌云南溪來。仙云還將得南溪消息來麼。甌云消即消息則未息。仙云最苦是未息。甌云且道未息箇什麼。仙云一回見面千載不忘名。甌拂袖便出。仙云弄死蛇手有甚限。

藥山曲調

(石頭法嗣 傳燈十四)高沙彌住庵後。雨裏來相看。藥云你來也。師云是。藥云是藥云可殺濕。師云不打遮箇鼓笛。雲岩云皮也無打什麼鼓。道吾云鼓也無打什麼皮。藥云今日大好曲調。

青原階級

(傳燈五)青原往曹溪作禮問曰。當何所務即不落階級。祖云汝曾作什麼來。原曰。聖諦亦不為。何階級之有。祖深器之。謂有二祖見少林氣象。

夾山揮劍

(華亭法嗣 會元五)夾山僧問撥塵見佛時如何。師云。直須揮劍。若不揮劍漁父棲巢。僧後問石霜。撥塵見佛時如何。霜云渠無國土甚處渠逢。僧回舉似師。師上堂舉了乃曰。門庭施設不如老僧。入理深談猶較石霜百步。

隱峰飛錫

(馬祖法嗣 傳燈八)五臺山隱峯禪師。姓鄧氏(時稱鄧隱峯)。唐元和中荐登五臺。路出淮西屬。吳元濟阻兵違拒王命。官軍與賊交鋒未決勝負。師云吾當去解其患。乃擲錫空中飛身而過。兩軍將士仰觀。事符預夢鬪心頓息。

洞山寒暑

(傳燈八)僧問洞山寒暑到來如何回避。山云何不向無寒暑處回避。僧云如何是無寒暑處。山云。寒時寒殺闍梨。熱時熱殺闍梨。

谷山聲色

(傳燈八)谷山問透溪和尚。聲色純真如何是道。溪云亂道作麼。谷山却從東邊過西邊立。溪云若不恁麼即禍事也。谷山却過東邊。溪乃下禪床。方行兩步被谷山捉住云。聲色純真事作麼生。溪便掌谷山。谷山云十年後要箇人下茶也無在。溪云要谷山老漢什麼。谷山呵呵大笑三聲。

元祐迴牒

(黃龍南法嗣 僧寶傳下)雲居元祐禪師住玉澗寺時。徐王聞其名奏賜紫方袍。師作偈辭之曰。為僧六十鬢先素。無補空門媿出家。願乞封迴禮部牒。免辜盧老衲袈裟。

鹿門辭勅

華亭藏身

(藥山法嗣 會元五)見前船子得鱗處。

雲門聞頰

(雪峰法嗣)。

北禪烹牛

(福嚴良雅嗣會元十五)潭州北禪賢和尚除夜小參云。年窮歲暮無可與諸人分歲。且烹一頭露地白牛。炊黍米飯。煮野菜羹。向楫柁火唱村田。何故。免見倚它門戶傍它墻。剛被時人喚作郎。下座歸方丈。少頃倚遇上坐(即法昌也)入方丈云。和尚門外有公人長。賢曰作什麼。遇曰和尚納皮角。賢拈頭帽擲在地上。遇便去拾。賢下禪床捉住云。捉賊捉賊。遇將頭帽裹向賢頭上云天寒且還和尚。賢呵呵大笑。遇便出去。

三角喝賊

(為山祐法嗣 傳燈十八)蘄州三角山法遇庵主。因荒亂魁師入山。執刃而問和尚有甚財寶。師曰僧家之寶非君所宜。魁曰是何寶。師振聲一喝。魁不悟。以刀加之。

保寧擗口

(楊岐法嗣 普燈四)和補曰。保寧仁勇禪師再受保寧請。上堂拍掌三下。擗口搖手三下。便下座。

洪英掐膝

(黃龍南法嗣 林間錄上)翠巖真點胸好問僧。文殊是七佛之師。因甚麼出女子定不得。罔明從下方來。因甚出得女子定。莫有對者。獨英邵武方其問時以手掐其膝而去。真笑曰賣匙箸客未在。

恭語不灰

(黃龍南法嗣 見宗門武庫拾遺)黃龍恭首座出世住禪林。訪法昌遇和尚。遇問曰見說你為黃龍燒香是否。曰不敢。遇云。龍生龍子。須是解興雲吐霧始得。恭曰隨家豐儉。遇曰你未拈香早鈍置黃龍了也。恭曰且莫多口。遇曰你且道黃龍實頭處作麼生。恭提起坐具。遇喚行者討坐具來。行者提在手中。遇便打曰你三十年後也道見老僧來。恭後住衡之華光。乃有坦率之風。罹有司。民其衣。華光既遭回祿。而恭語錄於灰燼中字畫無損。餘紙悉盡。信般若之明驗矣。

玄言上石

(梁山緣觀嗣僧寶傳中)野州大陽山警玄禪師。遊方初到梁山。問如何是無相道場。山指觀音曰這箇是。吳處士畫師擬進語。山急索曰。這箇是有相底。那箇是無相底。師遂有省便禮拜。山曰何不道取一句。師云道即不辭恐上紙筆。山笑曰此語上碑去在。

滿號銀山

秀名鐵壁

(天衣懷法嗣 僧寶下)法雲圓通法秀禪師。叢林號為秀鐵面。

龍牙禪板

(悟本法嗣 傳燈十七)湖南龍牙山居道禪師。在翠微時問云如何是祖師意。微云與我過禪板來。師便過禪板與微。微接得便打。師云。打即任打。要且無祖師意。又問臨濟如何是祖師意。濟曰與我過蒲團來。師乃過蒲團與濟。濟接得便打。師云。打即任打。要且無祖師意。後有僧問。和尚行脚時問二尊宿祖師意。未審二尊宿道眼明也未。師云。明即明也。要且無祖師意。東禪齊云。

眾中道。佛法即有只是無祖師意。若恁麼會有何交涉。別作麼生會無祖師意底道理。

長慶蒲團

(雪峰法嗣 會元七)福州長慶惠稜禪師。歷參禪苑。後參靈雲。問如何是佛法大意。雲云驢事未去馬事到來。師如是往來雪峯玄沙十二年間。坐破七箇蒲團不明此事。一日捲簾忽然大悟。乃有頌曰。也大差矣。也大差矣。捲起簾來見天下。有人問我解何宗。拈起拂子劈口打。峯舉謂玄沙曰此子徹去也。沙曰。未可。此是意識著述。更須勘過始得。至晚眾僧上來問訊。峯謂師云。備頭陀未肯汝在。汝實有正悟。對眾舉來。師又有頌云。萬象之中獨露身。唯人自肯乃方親。昔時謬向途中覓。今日看來火裡冰。峯乃顧汝曰不可更是意識著述。師問峯云。從上諸聖傳受一路。請師垂示。峯良久。設禮而退。峯乃微笑。師入方丈參。峯曰是甚麼。師云今日天晴好普請。自此驕問未嘗爽於玄旨。

盤山肉案

(馬祖法嗣 會元三)盤山一日於街市見人在肉肆買肉云精底割一斤來。屠兒放下刀叉手云。長史那箇不是精底。山聞之忽然大悟。告馬祖。祖又印可之。

蜺子臺盤

(良价法嗣 傳燈十七)京兆府蜺子和尚。不知何許人也。事迹頗異。居無定所。自印心於洞山。混俗闖川。不畜道具不循律儀。冬夏唯披一衲。逐日江岸採掇蝦蜺以充其腹。暮即宿東山白馬廬紙錢中。居民目為蜺子和尚。華嚴靜禪師聞之。欲決真假。先潛入紙錢中。深夜師歸。嚴把住曰。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遽答云神前酒臺盤。嚴放手曰不虛與我同根生。嚴後赴莊宗詔入長安。師亦

先至。每日歌唱自拍。或乃佯狂。深雪去來俱無蹤跡。厥後不知所終。

巴陵銀椀

(雲門偃法嗣 傳燈廿二)新開巴陵禪師。僧問如何是提婆宗。師云銀椀裡盛雪。

雲巖寶冠

(馬祖法嗣 會元三)和補曰。池州魯祖寶雲禪師。僧問如何是諸佛。師云頭上有冠者不是。曰如何即是。師曰頭上無寶冠。

荊門犢鼻

(北塔忠廣法嗣 會元十五)荊門軍玉泉承皓禪師。游方參北塔發明心要。得大自在三昧。製犢鼻裋書歷代祖師名字。乃曰唯有文殊普賢較些子。且書於帶上。故叢林目為皓布裋。元豐間首眾於襄陽谷隱。有卿僧亦效之。師見而詬曰。汝具何道理敢以為戲事耶。嘔血無及耳。尋於鹿門如所言而逝。

踈山布單

(良价法嗣 會元十三)踈山聞福州大漚安和尚示眾曰。有句無句如藤倚樹。師特入嶺。到彼值漚泥壁便問。承聞和尚道有句無句如藤倚樹是否。漚曰是。師曰。忽遇樹倒藤枯。句歸何處。漚放下泥盤呵呵大笑歸方丈。師云。某甲三千里賣却布單。特為此事而來。和尚何得相弄。漚喚侍者取三百錢與這上座去。遂囑曰。向後有獨眼龍為子点破在。漚山次日上堂。師出問。法身之理。理絕玄微。不奪是非之境猶是法身邊事。如何是向上事。漚舉起拂子。師云此猶是法身邊事。漚曰如何是法身向上事。師奪拂子摺

折擲向地上。便歸眾。滄曰龍蛇易辨衲子難瞞。後聞務州明招謙和尚出世。徑往禮拜。招問甚處來。師云閩中來。招曰曾到大滄否。師曰到。招曰有何言句。師舉前話。招曰滄山可謂頭正尾正。祇是不遇知音。師亦不省。復問忽遇樹倒藤枯句歸何處。招曰却使滄山笑轉新。師於言下大悟乃曰。滄山元來笑裡有刀。遙望禮拜悔過。

芭蕉拄杖

(南塔光涌法嗣) 郢州芭蕉山惠清禪師。上堂拈拄杖示眾曰。你有拄杖子。我與你拄杖子。你無拄杖子。奪却你拄杖子。靠拄杖下座。

資福剎竿

(如寶法嗣) 吉州資福真邃禪師(第二世住) 謂眾云。隔江見資福。剎竿便迴去。脚跟也好與三十棒。況過江來。時有僧才出。師曰不堪共語。問如何是古佛心。師曰山河大地。

祿清紅菟

(圓智法嗣 傳燈十五) 祿清和尚。僧問不落道吾機請師道。師云。庭前紅菟樹。生葉不生花。良久云會麼。僧云不會。師云。正是道吾機。因什麼不會。僧禮拜。師便打云。須是老僧打你始得。

惠稜牡丹

(雪峯法嗣 會元八) 地藏與長慶保福入州見牡丹。障子保福云好一朵牡丹花。長慶云莫眼花。地藏曰可惜許一朵花。

南泉翫月

(會元三)南泉翫月次。趙州問幾時得似這箇時節。泉云王老師二十年前亦曾恁麼來。

保福遊山

(雪峯法嗣 會元七)長慶稜和尚與保福遊山。保福問。古人道妙峯山頂。莫即遮箇便是也無。慶曰是即是。可惜許。

寶林冷笑

韶陽熱謾

(僧寶傳上)雲門以拄杖擊繩床曰。適來許多葛藤。貶向什麼處去也。靈利底見。不靈利底著我熱謾。

乾峯一路

(良价法嗣 會元十三)乾峯僧問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。未審路頭在甚麼處。峯拈拄杖劃一劃云在這裡。僧請益雲門。門拈起扇子云。扇子[跳-兆+孛]跳上三十三天[祝/土]著帝釋鼻孔。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。

兜率三關

(真淨文法嗣 會元十七)兜率從悅禪師設三關以問學者。一日撥草參玄只圖見性。即今上人性在什麼處。二曰識得自性方脫生死。眼光落地時作麼生脫。三曰脫得生死知去處。四大分離向什麼處去。

谷泉逐遇

(汾陽昭法嗣 會元十二)南岳芭蕉庵大道谷泉禪師。因倚遇上坐來參。遇(後住法昌寺名也)問庵主在麼。師曰誰。曰行脚僧。師曰作甚麼。曰禮拜庵主。師曰恰值庵主不在。曰你灑。師曰。向道不在。說甚麼你我。拽捧趨出。遇次日再來。師又趨出。遇一日又來問庵主在麼。師曰誰。曰行脚僧。揭簾便入。師欄胸桶住曰。我這裡狼虎縱橫。屎尿鬼子三回兩度來討甚麼。曰人言庵主親見汾陽來。師解衣抖擻曰。你道我見汾陽。有多少奇特。曰如何是庵中主。師曰入門須辨取。曰莫祇這便是麼。師曰賺却幾多人。曰前言何在。師曰。聽事不真。喚鐘作甕。曰。萬法泯時全體現。君臣合處正中邪去也。師曰。驢漢不會便休。乱統什麼。曰未審客來將何祇待。師曰雲門餬餅趙州茶。曰恁麼則謝師供養去也。師叱曰。我這裡大種也未有。早言謝供養。

圓照戲端

(天衣懷法嗣 僧寶傳)圓照禪師元祐。初自京師惠林寺退歸姑蘇。見端師子於甘露曰汝非端師子乎。曰是。師戲之曰。村裡師子耳。端應聲曰。村裏師子村裏弄。眉尾與眼一齊動。開却口。肚裏直。籠統不愛人取奉。直饒弄到帝王宮。也是一場乾打閩。師粹美不悟其譏也。

誌公難邈

(會元二)寶誌禪師。初金陵東陽民朱氏之婦。上巳日聞兒啼鷹巢中。梯樹得之。舉以為子。七歲依鍾山大沙門僧檢出家。專修禪觀。宋太始二年髮而徒跣。著錦袍。往來皖山劔水之下。以剪尺拂子拄杖頭負文而行。天鑑二年梁武帝詔問。弟子煩惱未除何以治之。答曰十二。帝問其旨如何。答曰。在書字時節。刻漏中益不曉。帝嘗詔畫工張僧繇寫師像。僧繇下筆輒不自定。師遂以指

楞面門。分披出十一面觀音。妙相殊麗或慈或威。僧繇竟不能寫。

六祖難塑

(傳燈五)六祖因蜀僧名方辨來謁祖云善捏塑。祖正色曰試塑看。方辨不領旨。乃塑祖真可高七寸。曲盡其妙。祖觀之曰。汝善塑性。不善佛性。酬以衣物。僧禮謝而去。

章敬撥空

(馬祖法嗣 傳燈七)京兆府章敬寺懷惲禪師。或問禪師。所傳心地法門。為是真如心妄想心非真非妄心。為是三乘教外別傳底心。師云汝見目前虛空麼。曰信知常在目前人自不見。師曰汝莫認影像。曰和尚作麼生。師以手撥空三下。曰作麼生即是。師曰汝向後會去在。

雲門抽顧

(人天眼目)雲門每顧見僧即曰鑿咦。而錄之者曰顧鑿咦。德山密禪師刪去顧字但曰鑿咦。叢林目以為抽顧頌。北塔祚禪師作偈曰。雲門顧鑿笑嘻嘻。擬議遭渠顧鑿咦。任是張良多智巧。到頭於是也難施。

悟本稱奇

(雲岩晟法嗣 會元十三)瑞州洞山良价悟本禪師。參為山問云。頃聞南陽忠國師有無情說法話。某甲未究其微。為曰闍黎莫記得麼。師云記得。為曰汝試舉一編看。師遂舉僧問如何是古佛心。國師曰墻壁瓦礫。曰豈不是無情。國師曰是。僧云還解說法否。國師云常說熾然說無間歇。僧云某甲為甚麼不聞。國師云。汝自不

聞。不可妨他聞者也。僧曰未審甚麼人得聞。國師曰諸聖得聞。僧云和尚還聞否。國師云我不聞。僧云和尚既不聞。爭知無情解說法。國師曰。賴我不聞。我若聞即齊於諸聖。汝即不聞我說法也。僧曰恁麼則眾生無分去也。國師云。我為眾生說。不為諸聖說。僧云眾生聞後如何。國師云即非眾生。僧云無情說法據何典教。國師云。灼然言不該典。非君子之所談。汝豈不見華嚴經云剎說眾生說三世一切說。師舉了為曰。我這裏亦有。祇是罕遇其人。師云某甲未明乞師指示。為豎起拂子曰會麼。師云不會。請和尚說。為曰父母所生口終不為子說。師曰還有與師同時慕道者否。為曰。此去澧陵攸縣。石室相連。有雲岩道人。若能撥草瞻風。必為子之所重。師云未審此人如何。為云。他曾問老僧。學欲奉師去時如何。老僧對佗道。直須絕滲漏始得。他道。還得不違師旨也無。老僧道。第一不得道老僧在這裏。師遂辭歸為山。徑造雲岩。舉前因緣了便問無情說法甚麼人得聞。岩云無情得聞。師云和尚聞否。岩曰我若聞汝即不聞吾說法也。師云某甲為甚麼不聞。岩豎起拂子云還聞麼。師云不聞。岩云。我說法汝尚不聞。豈況無情說法乎。師云無情說法該何典教。岩曰。豈不見彌陀經云水鳥樹林悉皆念佛念法。於此有省。乃述偈曰。也太奇兮也太奇。無情說法不思議。若將耳聽終難會。眼處聞時方得知。

大禪叫悟

(歸宗常法嗣 會元四)五臺山大禪佛智通禪師。在歸宗常和尚會下。(禪宗有二大禪佛。一名景通。嗣仰山。一曰智通。嗣歸宗常)忽一夜叫云我大悟也。眾駭之。次日歸宗上堂集眾云。昨夜大悟出來。禪佛出曰某甲。宗云汝見箇什麼道理言大悟。禪佛曰師初元來女人作。宗默而異之。

義存歸庵

(會元七)雪峯義存禪師住庵時。有兩僧禮拜。峯見來。以手托庵門放身出云是什麼。僧亦云是什麼。峯低頭歸庵。

老觀閉戶

(黃檗法嗣 傳燈十二)福州烏岩山靈觀禪師(時稱老觀)。尋常扃戶。人罕見之。唯一信士每至食時送供方開。一日雪峯伺便扣門。師開門。峯驀胸搗住曰是凡是聖。師唾曰這野狐精。便推出閉却門。峯曰也祇要識老兄。

尚座觀魚

(禪林類聚)深明二上坐同行見捕魚。見一魚透出網。深云俊哉大似箇衲僧相似。明曰爭似當時不入他網。深云你猶欠悟在。明行三十里方省。

師伯見兔

(雲岩晟法嗣)潭州禪山師伯僧密禪師與洞山行次。忽見白兔走過。師曰俊哉。洞曰作麼生。師云大似白衣拜相。洞曰老老大大作這箇說話。師曰你作麼生。洞曰。積代簪纓暫時落魄。

明教薑杏

(洞山聰法嗣 禪林類聚九)明教嵩禪師。初自洞山遊康山。托迹開先法席。主者以其住少年銳文字。命掌書記。笑曰我豈為汝一盃薑杏湯耶。因去之。(林間錄)

馬祖鹽醋

馬祖闡化於江西。南嶽讓問眾曰道一為眾說法否。眾曰已為眾說法。讓曰總未見人持箇消息來。眾無對。因遣一僧去。囑曰。待

伊上堂時但問作麼生。伊道底言語記將來。僧去一如讓旨。回謂讓曰。馬祖云。自從胡乱後。三十年不曾少鹽醬。讓然之。

竹林麻鞋

木平草履

地藏種田

(玄沙法嗣 會元八)福州地藏桂琛禪師。因插鋤次見僧便問什麼處來。僧云南方來。師云南方佛法如何。僧曰商量浩浩地。師云。爭似我這裏種田博飯喫。僧云爭奈三界何。師云汝喚什麼作三界。僧無語。

懶瓚煨芋

(四祖法嗣)唐南岳山明瓚禪師者。未知氏族生緣。初遊方詣嵩山普寂盛行禪法師往從焉。然則默證寂之心。契人牢推量。尋於衡岳閑居。眾僧營作我則晏如。縱被詆訶殊無愧耻。時目之懶瓚也。唐德宗聞其名。遣使詔之。使者至其室宣言。天子有詔尊者當起謝恩。師方撥牛糞火尋煨芋而食。寒涕垂頤未嘗答。使者笑曰且勸尊者拭涕。師曰我豈有工夫為俗人拭涕耶。竟不起。使回奏。德宗甚欽嘆之。

天盖浴室

侍者巡鋪

(會元四)趙州因與文遠侍者行。乃指一片地曰這裏好造箇巡鋪。文遠便去路傍立曰把將公驗來。師遂與一擲。遠曰公驗分明過。

老諗四門

(碧岩一)趙州上堂。正人說邪法。邪法悉皆正。邪人說正法。正法悉皆邪。諸方難見易識。我這裡易見難識。問如何是趙州。師曰東門西門南門北門。

師備三句

(僧寶傳四)福州玄沙宗一大師。法名師備。本州閩縣人也。姓謝氏。疾大法難舉罕遇上根。學者依語生解隨照失宗。乃示綱宗三句曰。第一句且自承當。現成具足。盡十方世界更無他故。祇是仁者更教誰見誰聞。都來是汝心王所為。全成不動智。只欠自承當。喚作開方便門。使汝信有一分真常流注亘古亘今。未有不非者。然此句只成平等法。何以故。但是以言遣言以理逐理。平常性相接物利生耳。且於宗旨猶是明前不明後。號為一味平實。分證法身之量。未有出格之句。死在句下未有自由分。若知出格量。不被心魔所使入到平中。便轉換落落地。言通大道。不墮平懷之見。是謂第一句綱宗也。第二句迴因就果。不著平常一如之理。方便喚作轉位投機。生殺自在縱奪隨宜。出生入死廣利一切。迴脫色欲愛見之境。方便喚作頓超三界之佛性。此名二理雙明二義齊照。不被二邊之所動。妙用現前。是謂第二句綱宗也。第三句知有大智。性相之本通其過量之見。明陰洞陽廓周沙界。一真體性。大用現前。應化無方。全用全不用。全生全不生。方便喚作慈定之門。是謂第三句綱宗也。

彥從不會

(元安法嗣 會元六)澧州洛浦元安禪師。一日謂門弟子曰。吾旦夕行矣。有問問諸人。若對得分付鉢袋子。曰若道這箇是。即是頭上安頭。若道不是。即斬頭覓活。堂中第一座對曰。青山不舉足。日下不挑燈。安曰。去。汝扶吾宗不起。有彥從上坐曰。去此二途請和尚不問。安曰。未在更道。彥從曰。彥從道不盡。安曰我

不管汝道不盡。曰彥從無侍者。祇對和尚。安乃歸方丈中。夜喚彥從至曰。汝今日祇老僧甚有道理。據汝合體得先師意旨。先師道。目前無法。意在目前。不是目前法。非耳目所到。且道那句是賓那句是主。彥從茫然不知答。安曰苦苦。三更時眾請安代答。安曰。慈舟不泛滄波上。劔峽徒勞放木鵝。泊然而化。

法遠不去

(滄山法遠也)葉縣省和尚嚴冷枯淡。衲子敬畏之。浮山遠與天衣懷在眾時特往參扣。正值雪寒。省訶罵驅逐。以至將水潑。旦過衣服皆濕。其他僧皆怒而去。唯遠懷併疊敷具整衣復坐於旦過中。省到訶曰。你更不去。我打你。遠近前云。某二人數千里特來參和尚禪。豈以一掬水潑之便去。若打殺也不去。省笑曰。你兩箇要參禪。却去掛塔。

道吾舞笏

(會元四)和補曰。袞州關南道吾和尚。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以簡(笏也)揖曰喏。○雲頂山德敷禪師頌古今大意曰。道吾舞笏同人會。石鞏彎弓作者諳。(傳燈廿九)

秘魔擎杈

(靈湍法嗣 傳燈十)宋傳曰。名常遇。姓陰。范陽人。出家於燕北安國寺。來居五臺山之秘魔岩。即文殊降龍之所。因以為名焉。常持一木叉。每見僧來禮拜即叉却僧頸云。那箇魔魅教你去出家。那箇魔魅教你行脚。道得也叉下死。道不得也叉下死。速道。學者少有酬對。唯晉州霍山景通(即大禪佛也)。才到便趺入懷中坐。師於霍山背撫三下。山便走出云。三千里外賺我來。

雲岩摸枕

(藥山儼法嗣)道吾問雲岩。大悲千手眼。那箇是正眼。岩曰如人夜間背手摸枕头。吾曰我會也。岩曰作麼生會。吾曰遍身是手眼。岩曰道也太煞道。祇道得八成。吾曰師兄作麼生。岩曰通身是手眼。

南泉指花

(傳燈八)陸亘大夫與南泉語話次。夫曰。肇法師道天地與我同根。萬物與我一體也。甚奇怪。南泉指庭前牡丹花召大夫云。時人見此一株花。如夢相似。

曹山白酒

(良价法嗣 傳燈十七)曹山清銳問。某甲孤貧乞師拯濟。師曰銳闍梨近前來。銳近前。師云。泉州白家酒三盞。曰。猶道未霑唇。玄覺曰。什麼處是。與他酒喫。

真際清茶

(傳燈十)趙州問僧曾到此間否。僧云曾到。州云喫茶去。又問僧曾到此間否。僧云不曾到。州云喫茶去。院主問。曾到且從。不曾到如何喫茶去。州乃喚院主。主應諾。州云喫茶去。

懸泉皂角

(岩頭法嗣 會元八)黃龍山誨機超惠禪師。初參岩頭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頭曰你還救糍麼。惠曰解。頭曰且救糍去。後到玄泉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泉拈起一莖皂角曰會麼。惠曰不會。泉放下皂角作洗衣勢。惠便禮拜曰信知佛法無別。泉曰你見甚麼道理。惠曰某甲曾問岩頭。頭曰你还解救糍麼。救糍也祇是解粘。和尚提起皂角亦是解粘。所以道無別。泉呵呵大笑。惠遂有省。

洞山苧麻

祐禪拈柿

(傳燈十一)仰山隨漚山遊。山到盤陀石上坐。仰侍立次。忽鴉銜一紅柿落在面前。漚拾與仰。仰接得洗了度與漚。漚曰子甚處得來。仰曰此是和尚道德所感。漚云汝也不得無分。即分半與仰。玄沙云。大小漚山被仰山一坐。至今起不得。

從展度瓜

(雪峯法嗣 會元七)保福簽瓜次。大原孚至。師云道得與汝瓜喫。孚曰獨將來。師度與一片。孚接得便出。

導師金鎖

(會元三)導師云。法本不相碍。三際亦復然。無為無事人。猶是金鎖難。

象骨鍊枷

(會元十五)雲門謁雪峯。峯方堆椀坐為眾說法。門犯眾出熟視曰。項上三百斤鍊枷何不脫却。峯曰因甚到與麼。門以手自拭其目趨出。峯心異之。明日陞座曰。南山有鼈鼻蛇。諸人出入好看。門以拄杖攬出。又自驚懷。自是輩流改觀。象骨即雪峯之別山。以形似而稱。

祖心叱狗

(黃龍南法嗣 僧寶傳下)隆興府黃龍寶覺初心禪師。與轉運判官夏倚公立。至論肇論會萬物為自己者及情與無情共一體時。有狗臥香卓下。師以壓尺擊狗。又擊香卓曰。狗有情即去。香卓無情自

住。情與無情如何得成一體。公立不能對。師云。纔入思惟便成剩法。何曾會萬物為己哉。

靈祐餵鴉

(會元九) 瀉山餵鴉生飯。回頭見仰山曰。今日為伊上堂一上。仰曰某甲隨倒得聞。瀉曰聞底事作麼生。仰曰鴉作鴉鳴鵲作鵲噪。瀉曰爭柰聲色何。仰曰和尚適來道甚麼。瀉曰我祇道為伊上堂一上。仰曰為甚麼喚作聲色。瀉曰雖然如此驗過也無妨。仰云大事因緣又作麼生驗。瀉豎起拳。仰曰終是指東畫西。瀉曰子適來問甚麼。仰曰問和尚大事因緣。瀉曰為甚麼喚作指東畫西。仰曰。為著聲色故。某甲所以問過。瀉曰並未曉了此事。瀉曰寂子聲色老僧東西。

元珪放戒

(惠安國師法嗣 會元二) 嵩嶽元珪禪師謁安國師頓悟玄旨。遂卜居岳之龐塢。一日有異人峩冠袴褶而至。從者極多。輕步徐舒。你謁大師。大師覩其容貳奇偉非常。迺諭之曰。善來仁者。胡為而至。彼曰師寧識我耶。師云。吾觀佛與眾生等。吾一目之豈分別耶。曰。我此岳神也。能生死於人。師安得一目我哉。師曰。吾不生。汝焉能死吾。吾視身與空等。視吾與汝等。汝能壞空與汝乎。苟能壞空及壞汝。吾則不生不滅。汝尚不能如是。又焉能生死吾耶。神稽首曰。我亦聰明正直於餘神。詎知師有廣大智辨乎。願授以正戒令我度世。師曰。汝既乞戒。即既戒也。所以者何。戒外無戒。又何戒哉。神曰。此理也我聞茫昧。止求師戒我身為門弟子。師即為張座秉爐正几。與授五戒酒肉婬殺盜等語。師曰。如上佛戒而無心拘執。以有心為物而無心想身。如是則先天地生不為精。後天地死不為老。迺至無我無汝孰為戒之語。神曰。我神通亞佛。師云汝神通十句。五能五不能。佛則十句。七

能三不能。神竦然避席跪啟曰。可得聞乎。師云汝能戾上帝東天行而西七曜乎。曰不能。師云汝能奪地祇融五岳而結四海乎。曰不能。師曰是謂五不能也。佛能空一切相成萬法智而不能即滅定業。佛能知群有性窮億劫事而不能化導無緣。能度無量有情而不能盡眾生界。是謂三不能也。定業亦不罕久。無緣亦謂一明。眾生界本無增減。亘古無一人能主有法。有法無主是謂無法。無法無主是謂無心。如我解佛亦無神通也。但能以無心通達一切法爾。神曰我誠淺昧未聞空義。師所授戒我當奉行。今願報德展我小神通。而使已發心初發心未發心不信心必信心五等人因我神蹤知有佛有神。有能有不能。有自然非自然者。師云無為是無為是。神曰。佛亦使神護法。師寧隳叛佛耶。願如意垂誨。師不得已而言曰。東岩寺之障莽然無樹。北岫有之而背。非屏擁。汝能移北樹於東嶺乎。神曰已聞命矣。然昏夜間必有喧動。願師無駭。作禮而退。師門送。嵐靄烟霞紛紜間錯。幢幡環珮凌空出沒焉。其夕果有暴風迅雷犇雲振電。棟宇搖蕩宿鳥聲喧。師謂眾曰無怪。神與我約矣。詰旦和霽。則北岩松栝盡移東嶺森然行植。

竈墮翻邪

(會元二)嵩嶽破竈墮和尚。不稱名氏。言行叵測。隱居嵩嶽。山塢有廟甚靈。廟中唯安一竈。遠近祭不輟。牟殺物命甚多。師一日領侍僧入廟。以杖敲三下咄云。汝本泥瓦合成。聖從何來。靈從何起。又打三下。竈廼傾破。須臾有青衣峩冠設拜師前。師曰汝是何人。云我本此廟神。久受業報。今日蒙師說無生法。得脫此處。特來致謝。師云是汝本有之理。非吾強言。神再拜而沒。侍僧云。某甲久在和尚左右未蒙指示。竈神有何所得遂得昇濟。師云。我別無道理為他。只向他道。汝本泥瓦合成。聖從何來。靈從何起。侍僧默然。師云會麼。云不會。本有之性為甚不會。侍僧禮拜。師曰破也墮也。(安國師號為破竈墮)。

玄沙指虎

玄沙一日普請往海坑斫柴。見一虎。僧云和尚虎。師曰是汝虎。歸院後僧問。適來見虎云是汝未審。尊意如何。師曰。娑婆世界有四重障。若人透得。許汝出陰界。○東禪齊云。上座古人見了道。我身心如大地虛空。如今还透得麼。

歸宗斬蛇

(馬祖法嗣 傳燈七)廬山歸宗寺智常禪師。有座主來參。值師鋤草次。忽見一條蛇。師以鋤便鑿。主云。久嚮歸宗。到來只見箇羸行沙門。師云你羸我羸。主云如何是細。師作斬勢。主云恁麼則依而行之。師云依而行之則且置。你什麼處見我斬蛇。主無語。

古德火抄

(會元九)巴州魯祖山寶雲禪師。尋常見僧來便面壁。南泉聞云。我尋常向僧道。向佛未出世時會取。尚不得一箇半箇。他恁麼地驢年去。○玄覺云。為復唱和。語不肯語。保福問長慶。只如魯祖節文在什麼處。被南泉恁麼道。長慶云。退己讓於人。萬中無一箇。羅山云。陳老師當時若見。背上與五火抄。何故如此。為伊解放不解放。○玄沙云。我當時若見也與五火抄。○雲居錫云。羅山玄沙總恁麼道。為復一般別有道理。若擇得出。許上坐佛法有去處。○玄覺云。且道玄沙五火抄。打伊著不著。

靈樹風車

(傳燈十一)韶州靈樹如敏禪師。僧問如何是西來意。師云童子莫徭兒。僧云乞指示。師云汝從虔州來。問是什麼得恁麼難會。師云火官頭上風車子。

能仁雙趺

(傳燈一)梵云釋迦。此言能仁。涅槃經爾時迦葉與諸弟子在耆闍崛山入于正定。於正受中忽然心驚舉身戰懷。從定中出。見諸山地皆大振動。即知如來已入涅槃。於是將諸弟子尋路疾行。悲哀速往正滿七日。至拘尸那城右邊寶棺七匝。盈目流淚說偈讚嘆。其偈云。世尊我今大苦痛。情亂昏悶迷濁心。我今為禮世尊頂。為復哀禮如來肩。為復敬禮大聖手。為復悲禮如來腰。為復敬禮如來臍。為復深心禮佛足。何因不見佛涅槃。唯願示我敬禮處。世尊大悲即現千輻輪相出於棺外回示迦葉。從千輻輪放千光明。徧照十方一切世界。然後還自入棺。封閉如故。

達磨隻履

(傳燈三)初祖自付法傳衣之後凡九載。示有涅槃。葬於熊耳山吳坂。後三年有魏使宋雲奉使西域。還見祖於葱嶺。手携隻履語宋雲曰。汝主已厭代。我歸西國去。雲初不解。既歸帝果崩。遂聞奏後魏孝莊帝。帝乃令發塔。但見一履遂。奉勅取於少林寺供。自開元十二年被竊去臺華嚴寺中。後亦失所在。

盧能賣薪

(傳燈五)惠能大師俗姓盧氏。三歲喪父。其母守志鞠養。及長家尤貧[大/??/女]。師樵采以給。一日鬻薪於市中。聞客讀金剛經至應無所住而生其心。悚然有省。直抵黃梅。東山五祖見而器之。

懶融負米

(四祖法嗣 會元二)牛頭山法融禪師者。潤州延陵人也。姓韋氏。年十九學通經史。尋閱大部般若。曉達真空。忽一日歎曰。儒道世

典非究竟法。般若正觀出世舟航。遂隱茅山。投師落髮後入牛頭山幽棲寺北岩之石室。有百鳥嚙花之異。唐貞觀中四祖遙觀氣象。知彼山有奇異之人。乃躬自尋訪。問寺僧此間有道人否。曰出家兒那箇不是道人。祖曰阿那箇是道人。僧無對。別僧曰。此去山中十里許有一懶融。見人不起亦不合掌。莫是道人麼。祖遂入山。見師端坐自若曾無所顧。祖問在此作甚麼。師曰觀心。祖曰觀是何人心是何物。師無對。便起作禮曰大德高樓何所。祖曰貧道不決所止或東或西。師曰還識道信禪師否。祖曰何以問他。師曰嚮德滋久冀一禮謁。祖曰道信禪師貧道是也。師曰因何降此。祖曰特來相訪莫更有宴息之處否。師指後面曰別有小菴。遂引祖至庵前。遶菴唯見虎狼之類。祖乃舉兩手作怖勢。師曰猶有這箇在。祖曰這箇是甚麼。師無語。少選祖却於宴坐石上書一佛字。師視之竦然。祖曰猶有這箇在。未曉乃稽首請說真要。祖曰。夫百千法門同歸方寸。河沙妙德總在心源。一切戒門定門慧門神通變化悉自具足不離汝心。一切煩惱業障本來空寂。一切因果皆如夢幻。無三界可出無菩提可求。人與非人性相平等。大道虛曠絕思絕慮。如是之法汝今已得更無闕少。與佛何殊。更無別法。汝但任心自在。莫作觀行亦莫澄心。莫起貪嗔莫懷愁慮。蕩蕩無礙任意縱橫。不作諸善不作諸惡。行住坐臥觸目遇緣。總是佛之妙用。快樂無憂。故名為佛。師曰。心既具足。何者是佛何者是心。祖曰非心不問佛。問佛非不心。師既不許作觀行。於境起時心如何對治。祖曰。境緣無好醜。好醜起於心。心若不強名。妄情從何起。妄情既不起。真心任徧知。汝但隨心自在無復對治。即名常住法身無有變異。吾受璨大師頓教法門。今付於汝。汝今諦受吾言。只住此山。向後當有五人達者紹汝玄化。祖付法訖遂返雙峯終。老師自爾法席大盛。唐永徽中徒眾乏糧。師往丹陽緣化去。去山八十里。躬負米一石八斗朝往暮還。供僧三百。二時不闕三年。(會元二。璨大師者。三祖也)

黃蘗吐舌

(會元三)百丈大智再參馬祖。祖見來豎起拂子。丈云只觸此用離此用。祖以拂子掛舊處。良久云汝以後開兩片皮將何為人。丈亦豎起拂子。祖云只觸此用離此用。丈亦掛舊處。祖便振威一喝。丈大悟。直得三日耳聾。後黃蘗來參。舉此遂聞吐舌。

丹霞掩耳

(傳燈十四)鄧州丹霞天然禪師。初參石頭因緣相契。躬執爨役凡三年。忽一日石頭告眾曰。來日割佛殿前草。至來日大眾與童行各備鍬鑿割草。唯師以盆盛水洗頭於和尚前胡跪。石頭見而笑之便與剃髮。方與說戒法師乃揜耳而去。後謁馬祖。入僧堂騎聖僧項。眾皆驚呼。祖見之曰。我子天然。下來。師下作禮曰謝賜名。

龍牙行拳

(悟本法嗣 傳燈廿七)龍牙僧問十二時中如何著力。師曰如無手人欲行拳始得。

俱胝豎指

(天龍法嗣 傳燈十一)務州金華山俱胝和尚。始以庵居。以尼實際激厲其志。方有慕大之心。俄然天龍至菴。因是具陳實際到菴之緣。扣之天龍豎一指示之。師即領悟。將示寂之秋謂眾曰。吾得天龍一指頭禪。一生用不盡。言訖奄化。

提婆赤幡

(碧巖二)第十五祖迦那提婆大士。初得法已。至巴連弗城。聞諸外道欲障佛法。許之既久。大士乃執長幡入彼眾中。其幡八尺竿長

丈二。於彼而立更不移步。外道曰汝何不前。曰汝何不後。外道曰汝似賤者。曰汝似良人。外道曰汝解何法。曰汝百不解。外道曰我欲得佛。曰我灼然得。外道曰汝不合得。曰。元道我得。汝實不得。外道曰汝既不得云何言得。曰。汝有我故所以不得。我無我故自當得佛。彼既辭屈乃問曰汝名何等。曰我名提婆。外道素聞其名乃悔過致謝。梵曰提婆此云天。

玄沙白紙

(會元七)玄沙令僧馳書。僧上雪峯。峯上堂開緘見三幅白紙乃呈示大眾云會麼。良久云不見道君子千里同風。僧歸舉似玄沙。沙曰山頭老漢蹉過也不知。

茂源掩鼻

(性空法嗣 傳燈十五)天台平田普岸禪師嘗訪歙州茂源和尚。源才起迎。岸近前把住云。開口即失閉口即喪。去此二途請師別道。源以手掩鼻。岸放開云一步較易兩步較難。源云著甚死急。岸云若不是師不免諸方撿點。

石霜咬齒

(傳燈五)石霜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師乃齧齒示之。僧不會。後問九峯曰先師咬齒意旨如何。峯曰我寧可截舌不犯國諱。又問雲蓋。蓋曰我與先師有甚麼冤讎。

汾陽六人

(會元十一)汾州太子院善照禪師。天下道俗慕仰不敢名同曰汾州。并汾池苦寒。師罷夜參。有異比丘振錫而至謂師曰。會中有大士

六人。奈何不說法。言訖陞堂而去。師密記以偈曰。胡僧金錫光。請法到汾陽。六人成大器。勸請為敷揚。

洞山三子

(雲岩曇晟嗣碧岩九)洞山曰。貪嗔癡。太無知。賴我今朝識得伊。行時便打。坐時便撻。分付心王子細推。無量劫來不解脫。問汝三人知不知。神鼎謹曰。古人與麼道。神鼎則不然。貪嗔癡。實無知。十二時中任從伊。行時即往。坐時即隨。分付心王擬何為。無量劫來元解脫。何須更問知不知。

招慶煎茶

(道閑法嗣 傳燈廿二)王太傅入。招慶煎茶。時朗上坐與明招把茶銚。朗翻却茶銚。太傅見問上坐茶爐下是什麼。朗云捧爐神。太傅云。既是捧爐神。為什麼翻却茶銚。朗云仕官千日失在一朝。太傅拂袖便去。明招云。朗上坐。招慶飯了却去江外打野樵。朗云和尚作麼生。招云非其人得其便。

雲岩拂地

(藥山儼法嗣 傳燈十四)雲岩掃地次。道吾曰太區區生。師云須知有不區區者。吾曰恁麼則有第二月也。師豎起掃帚曰是第幾月。吾便行。玄沙聞云。正是第二月。

禪鑑符讖

青州應記

(大陽玄法嗣)(下卷在青續太陽處)和補曰。僧寶傳第十七云。投子義青禪師。本社人。李氏子也。移住投子云云。初開山慈濟。有記

曰。吾塔若紅是吾再來。邦人偶修飾其塔作瑪瑙色。未幾青領院事。

首山綱要

(風穴法嗣 僧寶傳三)汝州首山省念禪師。綱宗偈曰。咄哉拙郎君(汾陽注曰。素潔條然)。巧妙無人識(運機非面目)。打破鳳林關(蕩盡玲瓏性)。著靴水上立(塵泥自異)。咄哉巧女兒(汾陽曰。妙智理分融)。攬梭不解織(無間巧不立)。看他鬪鷄人(旁觀審騰距。爭功不自傷)。水牛也不識(全力能負。不露頭角)。

明安宗旨

(梁山靈觀嗣僧寶傳十三)明安曰。體妙失宗者滯在語路。句失宗旨。機昧終始者謂當機暗昧。只在語中。宗旨不圓。句句須是有語中無語。無語中有語。始得妙旨密圓也。

法華赴齋

(僧寶二十)法華志言大士者。莫知其所從來。初見之於景德寺七俱胝院。梵相奇古直視不瞬。口啄袞袞不可識相。傳言誦法華經。故以為名。至和三年仁宗始不豫國。嗣未立。天下寒心。上夜焚香默禱曰。翌日化成殿具齋虔請法華大士俯臨無却。清旦上道衣凝立以待。俄馳奏言法華自右掖門徑趨至寢殿。侍衛呵止不可。上笑曰朕請而來也。有頃至輒升御榻跏趺而坐。受供訖將去。上曰。朕以儲嗣未立。大臣咸以為言。侵尋晚暮嗣息有無。法華其一決之。師索筆引帋連書曰。十三十三凡數十行。擲筆無他語。皆莫測其意。其後英宗登極。乃躡安懿王第十三子。方驗前言也。

德普預祀

(夾山善會嗣僧寶傳廿九)禾山德普禪師。元祐五年十二月廿五日謂左右曰。諸方尊宿死。叢林必祭。吾以為徒虛設。吾若死。汝曹當先祭。乃令從今辦祭。眾以其老又好戲語。復云和尚幾時遷化。曰汝輩祭絕即行。於是幃寢堂坐。師其中置祭讀文跪揖上食。師飫飧自如。自門弟子下及莊力日次為之。至明年元旦祭絕曰。明日雪晴乃行。至時晴忽雪。雪止。師安坐焚香而化。

長沙猛虎

(南泉法嗣 傳燈十)湖南長沙景岑禪師與仰山翫月次。山曰。人人盡有者箇。只是用不得。師云恰是請汝用。山云汝作麼生用。師攔胸一蹋倒。山起來云你直下似箇大虫。自此諸方号为岑大虫。

百丈野狐

(會元三)百丈禪師每上堂。有一老人隨眾聽法。一日眾退唯老人不去。師問汝是何人。老人曰。某非人也。於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。因學人問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。某對曰不落因果。遂五百生墮野狐身。今請和尚代一轉語貴脫野狐身。師云汝問。老人曰大修行底人還落因果也無。師云不昧因果。老人於言下大悟。作禮曰。某已脫野狐身。住在山後。敢乞依亡僧法送。師令維那白椎告眾。食後送亡僧。大眾聚議。一眾皆安。涅槃堂又無病人。何故如是。食後師領眾至山後岩下。以杖挑出一死野狐。乃依法火葬。師至晚上堂舉前因緣。黃蘗便問。古人錯祇對一轉語。墮五百生野狐身。轉轉不錯合作箇甚麼。師曰近前來向汝道。蘗近前打師一掌。師拍手笑云。將謂胡鬚赤。更有赤鬚胡。為山舉問仰山。仰云黃蘗常用此機。為云。汝道天生得。從人得。仰曰。亦是稟受師承。亦是自性宗通。為曰如是如是。時為山在會下作典座。司馬頭陀舉野狐話問典座作麼生。座撼門扇三下。司馬曰大羸生。座曰佛法不是這箇道理。

汾陽師子

(會元十一)汾州上堂謂眾曰。汾陽門下有西河師子當門踞坐。但有來者即便咬殺。有何方便入得汾陽門見得汾陽人。若見汾陽人者堪與祖佛為師。不見汾陽人盡是立地死漢。

江西馬駒

(會元三)馬大師。諱道一。生漢州什仿。姓馬氏。六祖謂南岳曰。向後佛法從汝邊去。生一馬駒子踏殺天下人。師道行江西。時人稱之為馬祖。

紫胡獐狗

(南泉法嗣 會元四)衢州子湖岩利蹤禪師。一日上堂云。子湖有一隻狗。上取人頭。中取人心。下取人足。擬議即喪身失命也。僧問如何是子湖一隻狗。師曰嗥嗥。

三聖瞎驢

(臨濟法嗣 會元十一)臨濟臨遷化時據坐云。吾滅後不得滅却吾正法眼藏。三聖出云爭敢滅却和尚正法眼藏。濟云已後有人問你向他道什麼。三聖便喝。濟云誰知吾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。言訖端然示寂。

懶安白牯

(百丈海法嗣 傳燈九)福州長慶大安禪師。號懶安。郡之陳氏子。受業於黃蘗山習律乘。嘗自念言我雖勤苦而未聞玄極之理。乃孤錫遊方。將往洪井路出上元。逢一老父謂師曰師往南昌當有所得。師即造百丈禮而問曰。學人欲來識佛。何者即是。曰大似騎牛覓牛。師曰識得後如何。丈曰如人騎牛至家。師曰未審始終如何保

任。丈曰如牧牛人執杖視之不令犯人苗稼。師自茲領旨更不馳求。同參祐禪師創居瀉山。師躬耕助道。及祐歸寂眾請接踵住持。上堂。汝諸人總來就安求覓甚麼。若欲作佛。汝自是佛。擔佛傍家走。如渴鹿趨陽燄相似。何時得相應去。汝欲作佛。但無許多顛倒攀緣妄想惡覺。垢淨眾生之心便是初心正覺佛。更向何處別討。所以安在瀉山。卅年來喫瀉山飯。屙瀉山屎。不學瀉山禪。祇看一頭水牯牛。若落路入草便把鼻孔拽轉來。纔犯人苗稼即鞭撻調伏。既久可憐生受人言詮。今變作箇露地白牛。常在面前。終日露迥迥地趨不去。

佛嶼花奴

(馬祖法嗣 傳燈八)溫州佛嶼和尚。僧問如何是異類。師敲碗云花奴花奴喫飯來。

南山鼈鼻

(傳燈十六)見前象骨鑊枷之處。

東海鯉魚

(雲門錄)見前乾峯一路之下。

國師塔樣

(六祖法嗣 會元二)西京光宅寺惠忠國師。以化緣將畢涅槃時至。乃辭代宗。代宗曰師滅後弟子將何所託。師曰告檀越造取一所無縫塔。曰就師請取塔樣。良久曰會麼。曰不會。師云貧道去後有侍者應真却知此事。師滅後代宗詔應真入內舉問前話。真良久曰聖上會麼。曰不會。述偈曰。湘之南。潭之北。中有黃金充一國。無影樹下合同船。瑠璃殿上無知識。

資福鞮模

(如寶法嗣 禪林類聚十五)和補曰。鵠湖禪師初開堂日。資福令人送鞮模與師。師書火字封還。資福開封見。皺眉久不語。鹿苑和尚畫一圓相。福云拘尸那國親行此令。

鹽官索扇

(馬祖法嗣 會元三)杭州鹽官鎮國海昌禪院齊安禪師。一日喚侍者與我將犀牛扇子來。者云扇子已破。師曰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。者無對。

仰嶠呈珠

(傳燈九)東邑因仰山來參問云汝何處人。山云廣南人。邑云廣南有鎮海明珠是否。山云是。明邑云此珠作何形。山曰白月則現黑月則隱。邑曰汝將得來否。山云將得來。邑云何不呈似老僧。山云。昨到瀉山亦就惠寂索此珠。直得無言可對。無理可伸。邑云真師子兒作大師子吼。

長慶淘金

(雪峯法嗣 會元七)長慶僧問。眾生淘金。誰是得者。師曰有伎倆者。曰學人還得也無。師曰大遠在。

伏牛下書

伊闕伏牛山自在禪師與大寂送書與忠國師。國師問曰馬大師以何法示徒。對曰即心即佛。國師曰是甚麼語話。良久又問。此外更有甚麼言教。師曰非心非佛或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。國師云。馬大師即恁麼。不審和尚此間如何。國師曰。三点如流水。曲似刈禾鎌。師後隱于伏牛山。此二句心字也。

惠然透網

(傳燈十二)鎮州三聖院惠然禪師問雪峯云。透網金鱗以何為食。峯云待你透出網來即向你道。師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。

希運捋鬚

(會元十一)見前黃蘗一掌之下。

傳明散眾

(船子法嗣 傳燈十五)夾山會禪師諡傳明大師。散眾之事見船子得鱗處。

慈受棄徒

(會元十六)東京惠林懷深慈受禪師。祝髮後四年訪道方外。依淨照於嘉禾資聖。照舉良遂見麻谷因緣問曰。如何是良遂知處。師即洞明。出住資福履滿戶外。蔣山佛鑑懃禪師行化至退。師引巡察至千人街坊。鑑問既是千人街坊為甚麼祇有一人。師云多虛不如少實。鑑云恁麼那。師赧然。偶朝廷以資福為神霄宮(道士宮也)。因棄往蔣山留西庵。陳請益鑑曰資福知是般事便休。師云某實未穩望和尚不外。鑑舉倩女離魂話反覆窮之。大豁疑礙。呈偈曰。祇是舊寺行履處。等閑舉著便誚訛。夜半一陣狂風起。吹落桃花知幾多。鑑拊几曰。這底豈不是活祖師意。未幾被旨住焦山。

三峰玉琯

(會元十一)臨濟行脚時到三峯平和尚處。平問甚處來。濟曰黃蘗來。平曰黃蘗有何言句。濟曰。金牛昨夜遭塗炭。直至如今不見蹤。平曰。金風吹玉管。那箇是知音。濟曰。直透萬重關。不住

青霄內。平曰子這一問太高生。濟曰。龍生金鳳子。衝破碧瑠璃。平曰且坐喫茶。

大哥金鋤

(青林虔嗣會元十三)襄州石門獻蘊禪師。京兆人也。初問青林如何用心得齊於諸聖。林仰面良久曰會麼。師曰不會。林曰去無子用心處。師禮拜乃契悟。更不佗遊。遂作園頭。一日歸侍立次。林曰子今日作甚麼來。師云種菜來。林曰徧界是佛身子向甚處來種。師云金鉏不動土靈苗在處生。林欣然。來日入園喚蘊闍梨。師應諾。林曰。剩栽無影樹。留與後人看。師曰若是無影樹豈受栽耶。林曰。不受栽且止。你曾見他枝葉麼。師云不曾見。林曰既不曾見爭知不受栽。師云祇為不曾見所以不受栽。林曰如是如是。初住南岳蘭若。未幾遷夾山。道由潭州時楚王馬氏出城延接。便問如何是祖師西來大意。師云。好大哥。御駕六龍千古秀。玉街桃仗出金門。王大喜延入天冊府供養數日。方至夾山僧問如何是西來意。師曰。玉璽不離天子手。金箱豈許外人知。問不落機關請師便道。師曰。湛月還機無可比。君今曾問幾人來。曰即今問和尚。師云。好大哥。雲綻不須落九尾。怒君殘壽速歸絲。師以蠻夷作亂遂離夾山。至襄州創石門寺再振玄風。僧問月生雲際時如何。師曰三箇孫兒抱華鼓。好大哥。莫來攔我毬門路。師應機多云好大哥。時稱大哥和尚。

德山行棒

(傳燈十五)朗州德山宣鑒禪師。凡見僧入門便棒。○和補曰。傳燈第十五云。師云。尋常遇僧到參多以拄杖打。臨濟聞之遣侍者來參。德山若打汝。但接取拄杖當胸一拄。侍者到方禮拜乃打。侍者接得拄杖與一拄。師歸方丈。侍者迴舉似。臨濟云從來疑遮箇漢。

臨濟下喝

(人天眼目)臨濟凡見僧入門便喝○和補曰。人天眼目云。師謂僧曰。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。有時一喝如踞地師子。有時一喝如探竿影草。有時一喝不作一喝用。汝作麼生會。僧擬議。師便喝。

趙州布衫

(傳燈十)趙州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。師云我在青州作一領布衫重七斤。

普化直裰

(傳燈十)普化一日於街市中就人乞直裰。人皆與之。師俱不要。臨濟令院主買棺一具。師歸來。濟云與汝做得箇直裰了也。師便自擔去繞街市叫云。臨濟與我做直裰了也。我往東門遷化去。市人競隨看之。師云我今日未來日往南門遷化去。如是三日人皆不信。至第四日無人隨看。獨出城外自入棺內倩路行人釘之。即時傳布。市人競往。開棺乃見全身脫去。祇聞空中鈴響隱隱而去。

佛日茶籃

(會元十三)杭州佛日本空禪師。行脚時到夾山。夾山一日普請次。維那命師送茶。師云某為佛法來不為送茶來。那云和尚令請上座。師云和尚即得。師乃將茶去作務處。見夾山遂撼茶椀作聲。山不顧。師云。灑茶三五椀。意在鑊頭邊。山云。餅有傾茶勢。籃中幾箇漚。師云餅有傾茶勢籃中無一漚。便傾茶。大眾俱以目視之。師云大眾鶴望乞師一言。山云。路逢死蛇莫打殺。無底籃子盛將來。師云。手執夜明符。幾箇知天曉。山召大眾。已有人也。歸去來。乃住普請。

道者酒榼

(林間錄下)宗道者不知何許人。往來舒蘄間多留於投子。性嗜酒無日不醉。村民愛敬之每飽以醇醪。居一日方入浴。聞有尋宗者。度其必送榼至。課而出得酒徑去。人皆大笑而宗傲然不作。嘗散衣下山。有逆而問者如何是道者家風。對云袈裟裹草鞋。意旨如何。曰赤脚下相城。陳退夫初赴省偉過宗。戲問曰。瓘此行欲作狀元得否。宗熟視曰無時即得。莫測其言也。而退夫果以第三名上第時彥作魁。方悟無時之語。宗見雪竇而超放自如。言法華之流也。

香林一燈

(雲門法嗣 傳燈廿二)益州青城香林院澄遠禪師。僧問如何是室內一盞燈。師云三人證龜成鼈。

賢女三物

(會元一)七賢聖女姊妹同遊屍陀林。一姊指屍曰。屍在這裏人在甚處。諸姊諦觀悉皆悟道。感帝釋雨花贊歎曰。諸姊有何所須我能給施。女曰。我家四事七珍具足唯要三般物。一無根樹一株。二無陰陽地一片。三叫不應谷一所。帝釋曰。一切所須我悉有之。若此三物我實無之。遂同往白佛。佛言。我諸弟子不解此義。唯諸菩薩乃解此義。

石頭碌磚

(青原法嗣 傳燈十四)南岳石頭希遷禪師於唐天寶荐之衡山南寺。寺之東有石狀如臺乃結菴其上。時號石頭和尚。僧問如何是禪師。云碌磚。問如何是道。師云木頭。

雲門屎橛

(雲門錄)僧問雲門如何是佛。師云乾屎橛。

二僧卷簾

(傳燈廿四)法眼因僧齋前上參。師以手指簾。時有二僧同去卷簾。師云一得一失。

三老翫月

(會元三)馬祖與百丈西堂南泉翫月次。祖曰正當與麼時如何。堂曰正好修行。丈曰正好供養。泉拂袖便行。祖曰。經入藏。禪歸海。唯有南泉獨超物外。

惠滿二針

(傳燈三)相州隆化寺惠滿禪師。志存儉約唯畜二針。冬則乞補夏則捨之。自云。一生心無怯怖。身無蟲虱。睡而不夢。常行乞食。住無再宿。所至伽藍破紫製履。

古德三韞

(會元三)和補曰。藥山惟儼禪師。一日馬祖問子近日見處作麼生。師曰。皮膚脫落盡。唯一真實存。祖曰。子之所得可謂協於心體布於四肢。既然如是。將三條篋束取肚皮隨處住去。

演師禮字

五祖法演禪師在受業寺逐字禮蓮經。一夕遇屎字。欲唱禮遽疑。乃白諸老宿曰。如何屎字亦稱為法寶。某禮至此疑不自解。老宿曰。據汝所問可以南詢。汝正是宗門中根器也。祖遂南遊。

行者唾佛

(會元六)有一行者隨法師入佛殿。行者向佛而唾。法師曰。行者少去就何以唾佛。行者曰將無佛處來與某甲。無對。

東坡解帶

(東林弟子會元十六)南康軍雲居山了元佛印禪師。一日與學徒入室。適東坡居士到面前。師云。此間無坐榻。居士來此作甚麼。士曰暫借佛印四大為坐榻。師云。山僧有一問。居士若道得即請坐。道不得即輸腰下玉帶子。士欣然曰便請。師云居士適來道暫借山僧四大為坐榻。祇如山僧四大本空五陰非有。居士向甚麼處坐。士不能答。遂留玉帶。師却贈以雲山衲衣。士乃作偈曰。百千燈作一燈光。盡是恒沙妙法王。是故東坡不敢惜。借君四大作禪床。病骨難堪玉帶圍。鈍根仍落箭鋒機。會當乞食歌姬院。奪得雲山舊衲衣。此帶閱人如傳舍。流傳到我亦悠哉。錦袍錯落猶相稱。乞與佯狂老萬回。

裴休納笏

(黃蘗弟子禪林類聚十七)石霜諸禪師。裴相國來。師拈起裴笏問。在天子手中為珪。在老僧手中且道喚作甚麼。裴無對。師乃留下笏。

舜老民衣

(洞山聰法嗣 僧寶傳中)雲居舜老夫住棲賢。郡將貪墨。師不忍以常住物結情固位。尋有讚於郡將。民其衣。乃寓太平庵。仁廟聞其道行。復以僧服寵銀鉢盂。再領棲賢。入院有偈曰。無端被讚枉遭迍。半載有餘作俗人。今日再歸三峽寺。幾多道好幾多嗔。

芙蓉束髮

(投子青法嗣 僧寶傳中)和補曰。芙蓉道楷禪師。大觀元年開封尹李孝壽奏楷道行卓冠叢林。宜有以褒顯。即賜紫伽梨。號定照禪師(云云)。後遭罪著縫掖束髮。○楷焚香謝恩罷。上表辭之曰。伏蒙聖慈。特差彰善閣祇候譚[袖-由+真]賜臣定照禪師號及紫衣牒一道。臣感戴睿恩。已即時焚香升座仰祝聖壽。訖伏念臣行業迂疎道力綿薄。常發誓願不受利名。堅持此意積有歲年。庶幾如此傳道後來。使人專意佛法。今雖蒙吳恩。若遂忝冒則臣自違素願。何以教人。豈能仰稱陛下所以命臣住持之意。所有前件恩牒不敢祇受。伏聖慈察臣微愆。非敢飾詞特賜俞允。臣沒齒行道。上報天恩。下下聞之以付李孝壽躬往諭朝旌善之意。而楷確然不回。開封尹具以聞。上怒以付有司。有司知楷忠誠而適犯天威。問曰長老枯悴有疾乎。楷曰平日有疾今實無。又曰言有疾即於免罪譴。楷曰豈敢僥倖而求脫罪譴乎。吏太息於受罰著縫掖編管溜州都成。道俗見者流。

思大吞佛

(北齊惠文弟子會元二)寶誌令人傳語與思大曰。何不下山教化眾生。目視雲漢作甚麼。師曰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。有何眾生可度。

大士講經

(傳燈廿七)梁武帝請傅大士講金剛經。大士纔陞座以尺揮案一下便下座。武帝愕然。志公問陛下還會麼。帝云不會。志公云大士講經竟。

老盧幡動

(會元七)六祖自傳衣之後。至儀鳳初。屆南海遇印宗法師於法性寺講涅槃經。祖寓止廊廡間。因風揚刹竿旛動。聞二僧對論。一云幡動。一云風動。往復數回曾未契證。祖云可容俗士預高論不。僧曰試為說看。祖云。不是風動。不是幡動。仁者心動。僧於言下大悟。印宗竊聆此語。竦然異之。

僧伽鈴鳴

(會元十一)伽耶舍多初見十七祖僧伽難提時。持一寶鑑趨迎於前。難提問云汝持圓鑑意欲何為。舍多童子乃以偈答曰。諸佛大圓鑑。內外無瑕翳。兩人同得見。心眼皆相似。父母以其與難提應對有異。遂使之出家。難提受之携還精舍。他日風撼其殿之銅鈴鐺然發聲。復問曰。鈴鳴乎。風鳴耶。答曰非風非鈴我心鳴爾。

麻谷振錫

(馬祖法嗣 傳燈五)麻谷持錫到章敬。遶禪床三匝。振錫一下卓然而立。敬云是是。麻谷又到南泉。遶禪床三匝。振錫一下卓然而立。泉云不是不是。麻谷云。當時章敬道是。和尚為什麼道不是。泉云。章敬即是。是你不是。此是風力所轉。終成敗壞。

普化搖鈴

(傳燈十)鎮州普化和尚者不知何許人也。師事盤山。密受真訣而佯狂。出言無度。暨盤山順世乃於此地行化。或城中或塚間。振一鐸曰。明頭來明頭打。暗頭來暗頭打。四方八面來旋風打。虛空來連架打。一日臨濟令僧捉住曰。總不恁麼來時如何。師拓開云。來日大悲院裡有齋。僧回舉似濟。濟曰我從來疑著這漢。凡見人無高下皆振鐸一聲。時號普化和尚。或將鐸就人耳邊振之。或拊其背。有回顧者即展手曰。乞我一錢。師嘗於闌闌間搖鐸唱

云。覓箇去處不可得。時道吾遇之。把住問曰。汝擬去甚處。師曰汝從甚麼處。吾無語。師製手便去。

隱山晦迹

(馬祖法嗣 傳燈八)潭州龍山禪師。亦名隱山。洞山价禪師初遊方。與密伯師者偕行。經長沙龍山之下。見溪流菜葉。价回瞻峯巒深透謂密曰箇中必有隱者。乃並溪而進十許里。有老僧癯甚以手加額呼曰。此間無路。汝輩何自而至。价曰無路且置庵主自何而入。曰我不曾雲水。价曰庵主住山幾計時。曰春秋不涉。价曰庵主先住耶。曰不知。价曰為什麼不知。曰我不曾人天來。价曰得何道理便爾住山。曰。我見泥牛鬪入海。直至而今無消息。价即班密之下而拜之問如何是主中賓。曰青山覆白雲。又問如何是主中主。曰長年不出戶。又問主賓相去幾何。曰長江水上波。又問賓主相見有何言說。曰清風拂白月。价再拜求依止。老僧笑云。三間茆屋從來住。一道神光萬境閑。莫作是非來辨我。浮生穿鑿不相關。於是自焚其庵深入層峯。

洞山除名

(曇晟法嗣 傳燈十五)洞山將圓寂謂眾云。吾閑名世誰為吾除得。眾皆無對。時沙彌出曰。請和尚法號。師曰吾閑名已謝。

廬陵米價

(會元五)青原僧問如何是佛法大意。師云廬陵米作什麼價。

偃溪水聲

(會元七)玄沙因鏡清來參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箇入處。沙云還聞偃溪水聲麼。清云聞。沙云從者裏入。清忽大悟。

大士側坐

双林傳云。善惠大士受武帝請於重雲殿講三惠般若。王公貴人或見大士坐不正。問曰何不正坐。答曰正人無正性。側人無側心。

道者橫行

(德山遠法嗣 會元十五)廬山開先善暹禪師。臨江軍人也。操行清苦。徧游師席。以明悟為志。參德山。見山上堂顧視大眾曰。師子嘯呻。象王回顧。師忽有省。入室陳所解。山曰。子作麼生會。師回顧曰。後園驢喫草。山然之。後至雪豆。豆與語。喜其超邁。目曰海上橫行暹道者。遂命分座。四方英衲敬異之。

智岩懸囊

(牛頭融法嗣 會元二)牛頭山智岩禪師者。曲河人也。姓華氏。弱冠智勇過人。身長七尺六寸。隋大業中為郎將。常以弓挂漚瀘水囊隨行。所至汲用。累從大將往討。頻立戰功。唐武德中年四十。遂乞出家。

惠忠掛鎗

(牛頭智威嗣會元二)惠忠禪師。平生一衲一鎗。常有供僧穀兩廩。三虎為之守。靈異甚夥。度人亦甚眾。

佛日豆爆

(雲居膺法嗣 傳燈二十)佛日禪師參夾山。山問什麼處來。師曰雲居來。山曰即今在什麼處。師云在夾山頂上。山曰老僧行年在坎五鬼臨身。師上階禮拜。山問闍梨與什麼人同行。師云木上坐。山曰何不來相看。師云和尚看他有分。山曰在什麼處。師云在堂中。山相共下堂。師乃取拄杖擲山前曰。莫從天台得來否。師云

非五岳之所生。山曰莫從須彌山得來否。師云月宮亦不逢。山曰恁麼即從人得也。師曰自己尚是冤家從人得堪作什麼。山曰冷灰裏有一粒豆爆。喚維那來。明窓下安排著。

典座蟲生

(傳燈十五)石霜諸禪師初造大瀉。願藉名役作勤勞杵臼間甚久。祐見之簸處曰。檀信物不可拋撒。曰不敢。祐俯拾得一粒曰此非拋撒者耶。師擬對之。祐曰勿輕此一粒。百千粒從此粒生。曰即如是此粒從何生乎。祐為大笑。明日陞座曰。大眾。米裡有蟲。

惠可了了

(傳燈三)初祖初居少林寺九年。為惠可說法祇教曰。外息諸緣。內心無喘。心如墻壁。可以入道。師種種說心性理道未契。祖祇遮其非。不為說無念心體。師云我已息諸緣。祖曰莫不成斷滅去否。師云不成斷滅。祖云何以驗之去不斷滅。師曰了了常知故言之不可及。祖云此是諸佛所傳心體更勿疑也。

瑞岩惺惺

台州瑞岩彥禪師。一生常坐。喚主人公。復自應諾。乃云惺惺著。向後莫被人欺瞞。後有僧到玄沙舉似。沙云。一等是精靈也甚奇怪。沙復云何不且在彼中。僧云已遷化了。沙云而今喚應否。僧無對。沙云蒼天蒼天。

慈道罐破

文悅盆傾

(大愚守芝嗣僧寶傳下)雲峯文悅禪師坐後架架下。東破桶盆自架而墮。忽開悟。頓見芝從前用處。走搭伽梨上寢堂。芝迎笑云。維

那且喜大事了畢。師再拜汗下。不及吐一詞而去。服勤八年。

官人千眾

惠安單丁

清涼十願

(華嚴第四之祖)和補曰。清涼國師澄觀。字大休。會稽人。姓夏侯氏。即以十事自勵曰。休不損沙門之表。心不違如來之制。坐不背法界之經。性不染情礙之境。足不履尼寺之塵。脇不觸居士之榻。目不視非義之綵。舌不味過午之餚。手不釋圓明之珠。宿不離衣鉢之側(云云)。見六學僧傳。

達磨四行

(傳燈三十)達磨大師略辨大乘入道四行。夫入道多途。要而言之不出二種。一是理入。二是行入。理入者謂藉教悟宗。深信含生同一真性。但為客塵妄想所覆。不能顯了。若也捨妄歸真。凝住壁觀。無自無他。凡聖等一。堅住不移。更不隨於文教。此即與理冥符。無有分別。寂然無為。名之理入。行入者謂四行。其餘諸行悉入此中。何等四耶。一報冤行。二隨緣行。三無所求行。四稱法之行。云何報冤行。謂修道行人若受苦時。當自念言。我從往昔無數劫中。棄本從末流浪諸有。多起冤憎違害無限。今雖無犯。是我宿殃惡業果熟。非天非人所能見知。甘心忍受都無冤訴。經云。逢苦不受。何以故。識達故。此心生時與理相應。体冤進道。故說言報冤行。二隨緣行者。眾生無我並緣業所傳。苦樂齊受皆從緣生。若得勝報榮譽等事。是我過去宿因所感。今方得之緣盡還無。何喜之有。得失從緣。心無增減。真風不動冥順於道。是故說言隨緣行也。三無所求行者。世人長迷。處處貪著。名之為求。智者悟真理將俗反。安心無為形隨運轉。萬有斯

空無所願樂。功德黑暗常相隨逐。三界久居猶如火宅。有身皆苦誰得而安。了達此處。故舍諸有息想無求。經云有求皆苦無求乃樂。判知無求真為道行。故言無所求行也。四稱法行者。性淨之理目之為法。此理眾相斯空。無染無著無此無彼。經云法無眾生離眾生垢故。法無有我離我垢故。智者若能信解此理。應當稱法而行。法體無慳。於身命財行檀捨施。心無恡惜。達解三空不倚不著。但為去垢。稱化眾生而不取相。此為自行復能利他。亦能莊嚴菩提之道。檀施既爾餘五亦然。為除妄想修行六度而無所行。是為稱法行。

長髭功德

(傳燈十四)長髭曠禪師初參石頭。頭問甚麼處來。曰大庾嶺頭來。曰嶺頭一鋪功德成就也未。曰成就了只欠點眼。曰莫點眼否。曰便請。石頭垂下一足。師便禮拜。曰見什麼道理禮拜。曰如紅爐一点雪。

黃梅佛性

(傳燈十三)五祖大滿禪師因有一居士姓盧名惠能。自蘄州來參。師云汝自何來。曰嶺南。師曰欲須何事。曰唯求作佛。師云。嶺南人無佛性。若為得佛。曰。人有南北。佛性豈然。師知是異人。迺呵曰著槽廠去。能禮足而退。便入於杵臼之間服勞。

善財採藥

(會元二)文殊令善財採藥云。是藥採將來。善財拈起一枝草度與文殊。文殊接得示眾云。此藥亦能殺人亦能活人。

大慈識病

(百丈法嗣 會元四)杭州大慈寰中禪師。示眾云。山僧不解答話。只是識病。時有僧出。師便歸方丈。

馬祖展足

(傳燈八)鄧隱峯一日推車次。馬祖展脚在路上坐。峯云請師收足。祖云已展不縮。峯云已進不退。迺推車碾損祖脚。祖歸法堂執斧子云。適來碾損老僧脚底出來。峯便出於祖前引頸。祖迺置斧。

大覺引頸

(禪林類聚十七)和補曰。魏府大覺禪師。僧問學人仗鎊鉞劍擬取師頭時如何。師便引頸。僧云斬。便打。

露祐踢瓶

(會元九)百丈海禪師因司馬頭陀自湖南來謂丈曰。頃在湖南尋得一山。名大瀉。是一千五百人善知識所居之處。丈曰老僧住得否。陀曰非和尚所居。丈曰何也。陀曰。和尚是骨人。彼是肉山。居徒不盈千。丈曰吾眾中莫有人住得否。陀曰待歷觀之。時華林覺為第一座。丈令侍者請至。問曰此人如何。陀請警欬一聲行數步。陀曰不可。丈又令喚靈祐禪師。師時為典座。陀一見乃曰。此正是瀉山主人也。丈是夜召師入室囑曰。吾化緣在此。瀉山勝境汝當居之。嗣續吾宗廣度後學。而華林聞之曰。某甲恭居上首。典座何得住持。丈曰。若能對眾下得一語出格。當與住持。即指淨瓶問曰。不得喚作淨瓶。汝喚作什麼。林曰不可喚作木揆也。丈乃問師。師踢倒淨瓶便出去。丈笑曰。第一座輸却山子也。師遂往焉。是山峭絕無人煙。猿獠為伍橡栗充食。經于五七載。絕無來者。師自念言。我本住持為利益於人。既絕往還自善何濟。即捨庵而欲他往。行至山口見蛇虎狼豹交橫在路。師云。汝等諸獸不用攔吾行路。吾若於此山有緣。汝等各自散去。

吾若無緣。汝等不用動。吾從路過一任喫。言訖蟲虎四散去。師乃回庵。未及一載。安上座(即懶安也)同數僧從百丈來輔佐於師。安曰。某與和尚作典座。待僧及五百人。不論時節即不造粥。便放某甲下。自後山下居民稍稍知之。率眾共營梵宇。連師李景讓奏号同慶寺。相國裴公休嘗咨玄奧。繇是天下禪學輻輳焉。

寂子撲鏡

(仰山名惠寂。傳燈十一)仰山因為山送一面鏡來。接得上堂云。且道是為山鏡仰山鏡。若道是為山。又在仰山手裡。若道是仰山底。又是為山送來。道得即不打破。道不得即打破。三問。眾無對。遂撲破。

悟本鑊頭

(曇晟之法嗣 會元十三)洞山與密師佰鉏茶園。師擲下鑊頭曰我今日一点氣力也無。密曰若無氣力爭解恁麼道。師曰汝將謂有氣力底是。

烏白杓柄

(馬祖法嗣 會元三)烏白和尚問僧近離甚處。曰定州。師云定州悟道何似這裡。曰不別。師云若不別更轉彼中去。便打。僧曰。棒頭有眼。不得草草打人。師云今日打著一箇也。打三下。僧便出去。師云。屈棒元來有人喫在。曰爭奈杓柄在和尚手裏。師云。汝若要。山僧回與汝。僧近前。奪棒打師三下。師曰屈棒屈棒。曰有人喫在。師曰草草打著箇漢。僧禮拜。師云却與麼去也。僧大笑而出。師曰消得恁麼。

良禪破關

(傳燈十七)良禪客問欽山一鏃破三關時如何。山曰放出關中主看。良云恁麼則知過必改。山云更待何時。良云好箭放著所在。便出。山云且來闍梨。良回首。山把住云。一鏃破三關即且止。試與欽山發箭看。良擬議。山打七棒云。且聽這漢疑三十年。

女子出定

(會元一)諸佛要集經。文殊尸利欲見佛集。不能得到。諸佛各還本處。文殊尸利到諸佛集處。有一女人近彼佛坐。入三昧。文殊尸利入禮佛足已。白佛言。云何此女人得近佛坐而我不得。佛告文殊尸梨。汝覺此女人令從三昧起。汝自問之。文殊尸梨即彈指覺之而不可覺。以大聲喚亦不可覺。投手牽亦不可覺。又以禪足動三千大千世界猶亦不覺。文殊尸利白佛言。我不令覺。是時佛放大光明照下方世界。是中有一菩薩名棄諸盖。即時從下方來到佛所。頭面禮足一面而立。佛告棄諸盖菩薩。汝覺此女人。即時彈指。此女從三昧起。文殊尸利白佛。以何因緣我動三千大千世界不能令此女起。棄諸盖菩薩一彈指便從三昧起。佛告文殊尸利。汝因此女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。是女人因棄諸盖菩薩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。以是故汝不能令覺。頌家謂綱明菩薩。乃傳燈錄所載。未詳按何經論。檢藏乘不見所出。(祖庭事苑文名也)

曇照叫苦

(南泉法嗣 會元四)荊南白馬曇照禪師常云快活快活。及臨終叫苦苦閻羅老子來取我也。院主問曰。和尚當時被節度使拋向水中神色不動。如今何得恁麼地。師舉枕头云。汝道當時是如今是。院主無對。

亡僧索命

(聯燈五)鹽官會下有一主事僧將死。鬼使來取。僧告曰。某甲身為主事未暇修行。乞容七日得否。使曰待為白王。若許即七日後來。不然須臾便至。言訖去。至七日後方來。覓其僧不見。後有人舉問一僧若來時如何擬抵他。洞山代云。被他覓得也。

大容林蟬

古德爛杏

(禪林類聚十七)僧問白兆和尚如何是萬行。兆云。今年桃核也無。說什麼爛杏。

翠岩把梢

(慈明法嗣 林間錄下)和補曰。福州海善侍者。慈明高弟。當時龍象數。道吾真楊岐會然皆推服之。嘗至金鑾真點胸(云云)。開法於翠岩。嘗曰。天下佛法如一隻船。大寧道寬師兄坐頭。南徧頭在其中。可真把梢。去東也由我。去西也由我。善公尋還七閩(云云)。

風穴據令

石鞏趨鹿

(會元三)石鞏昔為戈者。因逐群鹿從馬祖庵前過。問祖曰和尚見鹿過不。祖匿曰汝是何人。曰獵者。祖曰汝解射。曰解射。祖曰汝一箭射幾箇。曰一箭射一箇。祖曰汝不解射。曰和尚莫解射不。祖曰解射。曰一箭射幾箇。曰一箭射一群。曰彼此是命何用射他一群。祖曰。汝既知如是。何不自射。曰。若教某甲自射。直是無下手處。祖曰者漢曠却無明煩惱今日頓息。師即毀弓箭。截髮投祖出家。

南泉斬貓

(傳燈八)南泉一日東西兩堂爭貓兒。師見提起云。道得即不斬。眾無對。師斬貓兒為兩段。

祇林揮劍

(永泰湍法嗣)湖南祇林和尚每叱文殊普賢皆為精魅。手持木劍自謂降魔才有僧參禮便云魔來也魔來也以劍亂揮歸方丈。如是十二年後置劍無言。僧問十二年前為甚麼降魔。師云賊不打貧兒家。十二年後為甚麼不降魔。師曰賊不打貧兒家。

藥嶠抽刀

(石頭法嗣 會元五)藥山與雲岩遊山腰間。刀響。岩問甚麼物作聲。師抽刀驀口作斫勢。

實際頂笠

(馬祖法嗣)務州金華俱胝禪師。初住菴有尼名實際到菴。戴笠子執錫遶師三匝云。道得即拈下笠子。三問師皆無對。尼便去。師云。日勢稍晚。且留一宿。尼曰道得即宿。師又無對。尼去。

惠圓腰包

惠圓上坐。開封酸棗于氏子。世業農。少依邑之建福寺德光為師。性椎魯。然勤渠祖道堅坐不臥。居數歲得度。出游廬山至東林寺。每以己事請問。朋輩見其負陋舉止乖踈。皆戲侮之。一日行殿庭中。忽足顛而仆。了然開悟。作偈俾行者書於壁曰。這一交。這一交。萬兩黃金也合消。頭上笠。腰下包。清風明月杖頭挑。即日離東林。眾傳至照覺。覺大喜曰。衲子參究若此。善不可加。令人迹其所往。竟無知者。(照覺。東林寺長老)

上座鼻孔

鼓山問孚上座。父母未生前鼻孔在甚麼處。孚云師兄先道。山云只今生也鼻孔在甚麼處。孚不肯。山云你作麼生。孚云將手中扇來。山以扇度與之。再問。孚點置之。山遂打一拳。

翠岩眉毛

(雪峯存法嗣 會元八)翠岩夏末示眾云。一夏已來為兄弟說話。看翠岩眉毛在麼。

杉山拈尺

(禪林類聚十七)杉山禪師一日與龐居士坐次。師拈起尺子云居士還見麼。士云見。師云見箇什麼。士杉山。師云不得道著。云爭得不道。師拋下尺子。居士云有頭無尾得憎。師云不是者老子。今日還道不及什麼處。師云有頭無尾處。士云強中覓弱即得。弱中覓強即無。師把住云。這老漢就中無活處無活處。

義存斫槽

(會元七)洞山一日問雪峯作甚麼來。峯曰斫槽來。山曰幾斧斫成。峯曰一斧斫成。山曰。猶是這邊事。那邊事作麼生。峯休去。汾陽代云。某甲且困也。

座主鬼窟

(傳燈十六)鹽官因有講僧來參。師問云坐主蘊何事業。對云講華嚴經。師云有幾種法界。對云廣說則重重無盡。略說則有四種法界。師豎起拂子云遮箇是第幾種法界。坐主沈吟徐思其對。師云。思而知慮而解。是鬼家活計日下孤燈。果然失照。果然失照。

夾嶺鳳巢

(龍潭信法嗣 傳燈十六)澧州樂普山元安禪師至夾山庵于冢巔夾山訝之以書抵安。誠使者曰。此僧得書不發明日當來。發之不來也。安得書果置之不答。使者具以告夾山。夾山曰旦暮必至矣。俄報安至。夾山望見呵曰。鷄棲鳳巢非其同類。出去。安乃問曰。自遠趨風請師一接。夾山曰。目前無闍梨此間無老僧。安曰錯。夾山曰住住。且莫草草忿忿。雲月是同。溪山各異。截斷天下舌頭則不無。闍梨爭救無舌人解語乎。安茫然不知答。夾山以杖擊之。安因茲服膺數歲。

泐潭苦瓜

(龍潭信法嗣 傳燈十五)洪州泐潭寶峯和尚。有僧新到。師謂曰。其中事即易。不落其中事始終難道。僧曰。某甲在途時便知有此一問。師曰更與二十年行脚也不較多。曰。莫不契和尚意麼。師云苦瓜那堪待客。

香林甜桃

義玄拄鐻

(傳燈十一)臨濟普請鋤地次。見黃蘗來拄鐻而立。蘗云這漢困那。師云鐻也未舉困箇什麼。蘗便打。師接住棒一送送倒。蘗喚。維那維那扶起我。維那近前扶云。和尚爭容得這風顛漢無禮。蘗纔起打維那。師鐻地云。諸方火葬。我這裡一時活埋。

惠寂插鋤

(傳燈十一)瀉山忽問仰山甚麼處來。仰曰田中來。瀉曰田中多少人。仰插鋤而立。瀉曰今日南山大有人刈茆。仰舉鋤而去。

靈源真告

(黃龍祖心法嗣 普燈六)黃龍佛壽禪師。名惟清。字覺天。號靈源叟。臨終前十日自作無生常住真歸告銘曰。賢劫第四尊釋迦文佛直下第四十八世孫惟清。雖從本覺應緣出生。而了緣即空。初無自性。氏旌親里莫得而詳。但以正因一念為所宗承是廁釋迦之遠孫。其号靈源叟。據自了因所了妙性無名字中示稱謂耳。爾臨濟無位真人。傅大士之心王類矣。亦正法眼藏涅槃妙心。唯證乃知餘莫能測者歟。所以六祖問讓和尚什麼處來。曰嵩山來。祖曰什麼物恁麼來。曰說似一物即不中。祖曰還假修證否。曰修證即不無污染即不得。祖曰。即此不污染是諸佛之所護念。汝既如是吾亦如是。茲盖獨標清淨法身以遵教外別傳之宗。而揀云報化非真佛。亦非說法者。然非無報化大功大用。謂若解通報化而不頓見法身。則滯污染緣乖護念旨。理必警省耳。夫少室道行光騰後裔。則有雲門偃奮雄音絕唱於國中。臨濟玄振大用大機於天下。皆得正傳。世咸宗奉。惟清望臨濟九世孫也。今宗教衰喪。其未盡絕滅者唯二家微派斑斑有焉。然名多媿實。顧適當危奇。而朝露身緣勢迫晞墜因力病。釋俗從真。敘如上事以授二三子。吾委真後當用依稟觀究。即不違先聖法門。而自見深益。慎勿隨末法所尚。乞空文於有位。求為銘誌。張飾說以浼吾。至囑至囑。因自所敘曰。無生常住真歸告。且繫之以銘。銘曰。無涯湛海瞥起一漚。亘乎百年曷浮曷休。廣莫清漢歛生片雲。有無起滅隱顯何分。了茲二者即見實相。十世古今始終現量。吾銘此旨昭告汝曹。泥多佛大。水長船高。

玄泰山謠

(石霜諸法嗣 傳燈十六)泰南衲所居蘭若在衡山之東。號七寶臺。誓不立門徒。四方後進依附皆用交友之禮。嘗以衡山多被山民斬木燒[入/米/田]。為害滋甚。乃作畚山謠。遠邇傳播達于九重。有

詔禁止。故嶽中蘭若無復延燎。師之力也。畚山謠。畚山兒。無所知。年年斫斷青山岫。就中最好衡嶽色。杉松利斧摧貞枝。靈禽野鶴無因依。白雲迴避青煙飛。猿猱路絕岩崖出。芝朮失根茆草肥。年年斫罷仍栽鋤。千秋終是難復初。又道今年種不多。來年更斫當陽坡。國家壽嶽當如此。不知此理如之何。

紹銑設館

(北禪賢法嗣 僧寶中)潭州奧化紹銑禪師。時南禪師道價方增。荊湖衲子犇趨入江南者。出長沙百里無託宿所。多為盜劫掠。路因不通。師半五十為館。請僧主之以接納。使得宿食而去。諸方高其為人。

福國戕橋

六祖負金

(傳燈五)江西志徹禪師者。江西人也。姓張氏。名行昌。少任俠。自南北分化。二宗主雖亡彼我。而徒侶競起愛憎。時北宗門人自立秀師為第六祖。而忌能大師傳衣為天下所聞。然祖是菩薩。預知其事。即置金十兩於方丈。時行昌受北宗門人之囑。懷刃入祖室將欲加害。祖舒頸而就。行昌揮刃者三都無所損。祖曰。正劍不邪邪劍不正。只負汝金不負汝命。行昌驚仆久而方蘇。求哀悔過即願出家。祖遂與金云。汝且去。恐徒眾翻害於汝。汝可他日易形而來。吾當攝受。行昌稟旨宵遁終捉僧出家具戒精進。一日憶祖之言。遠來禮勤。問答機緣相契。祖曰汝今徹也。宜名志徹。師禮謝而去。

神光償債

(會元一)二祖者。武牢人也。姓姬氏。父寂。未有子時嘗自念言。我家崇善豈令無子。禱之既久。一夕感異光照室。其母因而懷妊。及長遂以照室之瑞名之曰光。自幼志氣不群。博涉詩書。尤精玄理。而不事家產好遊山水。後覽佛書超然自得。即抵洛陽龍門香山。依室靜禪師出家。受具於永穆寺。浮游講肆徧學大小乘義。年三十二却返香山。終日宴坐又經八載。於寂默中倏見一神人謂曰。將欲受果何滯此耶。大道匪遙汝南矣。祖知神助因改名神光。翌日覺頭痛如刺其師欲治之。空中有聲曰。此乃換骨非常痛也。祖遂以見神事白于師。師視其頂骨即如五峯秀出矣。乃曰汝相吉祥當有所證。神令汝南者。斯則少林達磨大士。必汝之師也。祖受教造于少室。達磨遂因與易名曰惠可。傳授之。後於筓城縣匡救寺之三門談無上道。聽者林會。時辨和法師於其寺講涅槃經。其徒聞師闡法稍稍引去。和不勝其憤。乃興謗于邑。寄翟仲侃。侃惑其說。加師以非法債。師以怡然委順。識真者謂之償債。○皓月供奉問長沙岑云。了即業障本來空。未了應須償宿債。師子尊者二祖大師為甚麼却償債。岑云。大德不識本來空。如何是本來空。云業障是。如何是業障是。云本來空是。供奉無語。長沙乃示偈云。假有元非有。假滅亦非無。涅槃償債義。一性更無殊。

洛浦投師

(傳燈十六)見前夾嶺鳳巢之處○和補曰。會元第六云。師游歷罷。直往夾山卓庵。經年不訪夾山。山乃修書令僧馳往。師接得便坐却。再展手索。僧無對。師便打曰。歸去舉似和上。僧回舉似。山曰這僧若開書三日內必來。若不開書斯人救不救也。師果三日後到。見夾山不禮拜。乃當面叉手而立。山曰。鷄栖鳳巢非其同類。出去。自遠趨風請師一接。山曰。目前無闍梨。此間無老

僧。師便喝。山曰。住住。且莫草草忿忿。雲月是同。溪山各異。

沙彌求戒

(傳燈十四)高沙彌初參藥山。山問甚麼處來。曰南嶽來。山云何處去。曰江陵受戒去。山云受戒圖箇甚麼。曰圖免生死。曰。有一人不受戒亦免生死。汝還知否。曰恁麼則佛戒何用。山曰猶掛唇齒在。便召維那云。者跛脚沙彌不任僧務。安排向後庵著。山謂道吾雲岩曰。適來一箇沙彌却有來由。道吾曰也須勘過始得。山乃再問諦云。見說長安甚鬧。曰我國晏然。山曰汝徒看經得請益得。曰總不與麼。山曰大有人不與麼不得。曰。不道他無。只是不肯承當。

蔣山三障

(慈明圓法嗣 傳燈廿三)舒王初丁大母夫人憂。讀經山中。與蔣山贊元禪師游。如昆弟。問祖師意旨。師不答。王益扣之。師曰。公般若有障三。有近道之質一。更一兩生來恐純熟。王曰願聞其說。師云。公受氣剛大。世緣深。以剛大氣遭深世緣。必以身任天下之重。懷經濟之志。用舍不能必。則心未平。以未平之心持經世之志。何時能一念萬年哉一。又多怒二。而學問尚理於道為所知愚三。此其三也。特視名利如脫髮。有擔薄如頭陀。此為近道。且當以教乘滋茂之可也。王再拜受教。

華藏四尋

鎮州蘿蔔

(會元四)僧問趙州。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。州曰鎮州出大蘿蔔頭。

普化生菜

(傳燈十)普化一日在僧堂前喫生菜。臨濟見云大似一頭驢。普化便作驢鳴。濟云這賊。普化云賊賊。便出去。

永嘉一宿

(會元二)溫州玄覺禪師詣曹溪。初到振錫携瓶遶祖三匝卓然而立。祖曰。夫沙門者具三千威儀八萬細行。大德自何方而來。生大我慢。師云。生死事大。無常迅速。祖曰。何不體取無生。了無速乎。云。體即無生。了本無速。祖曰如是如是。于時大眾愕然。師方具威儀參禮。須臾告辭。祖曰返太速乎。師云本自非動豈有速耶。祖曰汝甚得無生之意。師曰無生豈有意耶。祖曰無意誰當分別。師云分別亦非意。祖歎曰。善哉善哉。少留一宿。時謂之一宿覺。翌日回永嘉。

雲盖半載

(石霜諸法嗣 會元六)潭州雲盖山志元圓淨禪師。遊方時問雲居曰。志元不奈何時如何。居曰祇為闍梨功力不到。師不禮拜。直造石霜亦如前問。霜云。非但闍梨。老僧亦不奈何。師云和尚為甚麼不奈何。霜曰。老僧若奈何。拈過汝不奈何。師便禮拜。僧問石霜。萬戶俱閉即不問。萬戶俱開時如何。霜云堂中事作麼生。僧無對。經半年方始下一點語曰。無人接得渠師去。乃禮拜乞為舉。霜不肯。師乃抱霜上方丈曰。和尚若不道。打和尚去在。霜曰得在。師頻禮拜。霜曰無人識得渠。師於言下頓省。

王岳四玄

為仰三昧

(人天眼目)朗州古堤和尚。仰山到參。堤曰。去。汝無佛性。山叉手近前三步應諾。堤笑曰。子甚麼處得此三昧來。山曰。我從耽源處得名。為山處得地。堤曰莫是為山的子麼。山曰。世諦即不無。佛法即不敢。山却問和尚從甚處得此三昧。堤曰我從章敬處得此三昧。山歎曰不可思議。來者難為湊伯。○義海 仰山坐次。有僧來作禮。山不顧。其僧乃問師識字否。山曰隨分。僧右旋一匝曰是甚麼字。山於地上書十字酬之。僧又左旋一匝曰是甚麼字。山改十字作○字。僧乃劃此[○@卍]相以兩手拓如修羅掌日月勢。曰是甚麼字。山乃劃此卍相對之。僧乃作婁至德勢。山曰。如是如是。此是諸佛之所護念。汝亦如是。吾亦如是。善自護持。其僧禮謝騰空而去。時有一道者見。經五日後遂問山。山曰汝還見否。道者曰某甲見出門騰空而去。山曰。此是西天羅漢。故來探吾道。道者曰某雖覩此三昧不辨其理。山曰吾以義為汝解釋。此是八種三昧。是覺海變為義海。躰則同然。此義合有因有果即時異時總別不離隱身三昧也。

桐峯虎聲

(臨濟法嗣 傳燈)僧到桐峯主處便問。這裡忽逢大虫時又作麼生。庵主作虎聲。僧作怕勢。庵主呵呵大笑。僧云這老賊。庵主云爭奈老僧何。僧便休去。

投子牛在

舒州投子山大同禪師。因一婆上山云家中失却牛請師一卜。師召婆。婆應諾。師云牛在。婆乃歡喜而去。

鏡清失利

(雪峰法嗣 會元七)越州鏡清寺道忞順德禪師。新到參。師拈起拂子。僧曰。久響鏡清。猶有這箇在。師曰鏡清今日失利。師問荷

玉甚處來。曰天台來。師曰阿誰問汝天台。曰和尚何得龍頭虵尾。師云鏡清今日失利。師看經次。僧問和尚看甚麼經。師云我與古人鬪百草。師却問汝會麼。曰少年也曾恁麼來。師云如今作麼生。僧舉拳。師云我輸汝也。問辨不得提不起時如何。師曰爭得到這裏。曰恁麼則禮拜去也。師云鏡清今日失利。師見僧學書。廼問學甚麼書。曰請和尚鑑。師云一点未分三分著地。曰今日又似遇人又似不遇人。師云鏡清今日失利。問新年頭還有佛法也無。師曰有。曰如何是新年頭佛法。師云元正啟祚萬物咸新。曰謝師答話。師曰鏡清今日失利。上堂。眾集定。師拋下拄杖曰。大眾動著也二十棒。不動著也二十棒。時有僧出。拈得頭上戴出去。師曰鏡清今日失利。

趙州下載

(會元四)趙州上堂。兄弟若從南方來者即與下載。若從北方來者即與上載。所以道。近上人問道即失。近下人問道即得道。

歸宗插標

(禪林類聚十八)和補曰。歸宗常禪師因普請入園取菜。乃畫一圓相。囿却一株菜以標插之。語首座大眾云。輒不得動著每人下一轉語來。是時一眾各呈見解。未嘗有契。師以棒趨云。這一隊漢無一箇有智惠。喫欲我多少菜。不能與圓頭出氣。乃蹈倒標子拽著菜而歸。

興化擲柺

(會元四)興化到法堂令維那聲鐘集眾。師云還識老僧麼。眾無對。師擲下柺子端然而逝。

清豁歸山

(泉州睡龍溥禪師嗣傳燈二十三)漳州保福院清豁禪師。將順世捨眾。欲入山待滅。過芋谿石橋乃遺偈曰。世人休說路行難。鳥道羊腸咫尺間。珍重芋溪溪畔水。汝歸滄海我歸山。即往貴湖卓庵。未幾謂門人曰。吾滅後將遺軀施諸蟲蟻。勿置墳塔。言訖潛入湖頭山。坐盤石儼然長往。弟子戒因入山尋見。稟遺命延留七日。竟無蟲蟻之所侵食。遂就闍維。散於林野。今泉州開元寺淨土院影堂存焉。

性空沒海

(黃龍怨梧禪師嗣普燈十)蜀僧普首座。自號性空菴主。因欲泛海辭別緇素。而說偈言。坐脫立亡不若水葬。一省柴燒一免開擴。撒手便行不妨懌暢。誰是智音船子和尚。高風難繼。百千年一曲。漁歌少人唱。由是登漆盆張布帆舉手以謝四眾。乃吹鐺笛至洪波中而自沒矣。三日後潮退於沙洲上跏趺而坐。神色不動。道友幾萬人迎歸青龍供養五日。茶毗舍利五色如珠無數。雙鶴盤旋竟日。火盡而去。

黃龍三關

(會元十七)黃龍室中常問僧曰。人人盡有生緣。上座生緣在何處。正當問答交鋒。却復伸手曰。我手何似佛手。又問諸方參請宗師所得。却復垂脚曰我脚何似驢脚。三十餘年示此三問。學者莫有契其旨。脫有酌者。師未嘗可否。斂目危坐。人莫測其意。延之又問其故。師云。已過關者掉臂徑往。安知有關吏。問可否此未透關者也。叢林目之為黃龍三關。師自頌曰。生緣有語人皆識。水母何曾離得鰕。但見日頭東畔上。誰能更喫趙州茶。我手佛手兼舉。禪人直下薦取。不動干戈道出。當處超佛越祖。我脚驢脚並行。步步踏著無生。會得雲收月卷。方知此道縱橫。總頌曰。

生緣斷處伸驢脚。驢脚伸時佛手開。為報五湖參學者。三關一一透將來。

浮山九帶

(人天眼目)浮山遠既老。退休於會聖崑。因閱斑固九流(儒流·道流·陰陽流·法流·名流·墨流·縱橫流·離流·農流)遂擬之作九帶。敘佛祖教義。博採先德機語。參同印證。其一曰佛正法眼帶。其二曰佛法藏帶。其三曰理實帶。其四曰事實帶。其五曰理事縱橫帶。其六曰屈曲帶。其七曰妙挾兼帶。其八曰金針雙鑠帶。其九曰平懷常實帶。學者既已傳誦。

青州正座

舒州投子義青禪師。青社李氏。參浮山。嗣洞下宗。山遂書偈送曰。須彌立虛空。日月輔而轉。群峯漸倚化。白雲方改變。少林風起叢。曹溪洞簾卷。金鳳宿龍巢。宸苔豈車輾。令依圓通透禪師。師至彼。無所參問。唯嗜睡而已。執事白通曰。堂中有僧日睡。當行規法。通曰是誰。曰青上座。通曰。未可。待與按過。通即曳杖入室。見師正睡乃擊床呵曰。我這裏無閑飯與上坐喫了打眠。師云和尚教某何為。通曰何不參禪去。師云美食不中飽人喫。通曰爭奈大有人不肯上座。師云待肯堪作甚麼。通曰上座曾見甚麼人來。師云浮山。通曰恠得恁麼頑賴。遂握手相笑歸方丈。由是道聲籍甚。初住白雲。次遷投子(寺名也)。

普明不拜

仁儉短偈

(傳燈四)洛京福先寺仁儉禪師。自嵩山罷問放曠郊廬。時謂之騰騰和尚。唐天冊間天后詔入內。至殿前仰視天后良久曰會麼。后曰

不會。師云老僧持不語戒。言訖而出。翌日晉短歌十九首。天后覽而嘉之。

永嘉長歌

(會元二)永嘉大師作證道歌。咏潘天下。西竺謂之震旦聖者經。即曹溪末後之旨。

老龐及第

(碧巖五)龐居士曰。十方同聚會。箇箇學無為。此是選佛場。心空及第歸。

慶諸登科

(道吾智法嗣 禪林類聚十七)許州金明上坐曾問石霜。一毫穿眾穴時如何。師云直須萬年後。問萬年後如何。師云。登科任汝登科。拔萃任汝拔萃。後問經山謹云。一毫穿眾穴時如何。謹曰。先靴任汝先靴。結裹任汝結裹。

陳操驗僧

(傳燈十二)陳操尚書與僧齋次。忽拈起胡餅問僧曰。江西湖南還有這箇麼。僧曰尚書適來喫什麼。尚書曰敲鐘謝響。又一日齋僧次。躬行餅。僧展手欲接。尚書迺縮手。僧無語。尚書曰果然果然。異日問僧曰。有箇事與上座商量得麼。僧曰合取狗口。尚書自擲口曰操罪過。僧曰知過必改。尚書曰恁麼即乞上座口喫飯。又齋僧自行食次曰上坐施食。上坐曰三德六味。尚書曰錯。上座無對。

真際勘婆

(傳燈十)五臺山有一婆子接待。凡有僧問臺山路甚處去。婆子云驀直去。僧才行。婆云好箇師僧又與麼去。如是既久。游僧傳到趙州。州聞得乃云。待老僧為汝去勘破。州往彼便問。臺山路向甚處去。婆云驀直去。州才行。婆云好箇師僧又與麼去。州回陞座舉示大眾云。已為諸人勘破婆子了也。

道士背坐

(傳燈廿七)昔有道流在佛殿前背佛而坐。僧曰道士莫背佛。道流曰。大德。本教中道。佛身充滿於法界。向甚麼處坐得。僧無對。法眼代云。識得汝。

踈山倒屣

(傳燈十七)香巖禪師因僧問不慕諸聖不重己靈時如何。巖曰萬機休罷千聖不携。踈山在眾作嘔聲曰是何言歟。巖問阿誰。眾曰師叔。巖曰不諾老僧那。師出云是。巖曰汝莫道得。曰道得。巖曰汝試道看。曰。若教某甲道。須還師資禮始得。巖乃下座禮拜。躡前問。師云。何不道肯重不得全。巖曰饒汝恁麼。也須三十年倒屣。設住山無柴燒。近水無水喫。分明記取。後住踈山果如巖記。至二十七年病愈。自云香巖師兄記我三十年倒屣。今少三年。每食畢以手抉而吐之。以應前記。

義存漆桶

(會元七)投子指庵前一片石謂雪峯曰。三世諸佛總在裏許。峯曰須知有不在裡許者。子曰不快漆桶。投子與雪峯遊龍眠。有兩路。問那箇是龍眠路。子以杖指之。峯云東去西去。子曰不快漆桶。問一槌便就時如何。子曰不是性燥漢。曰不假一槌時如何。子曰不快漆桶。問此間還有人參也無。子將鑊頭拋向峯面前。峯曰恁麼則當處掘去也。子曰不快漆桶。雪峯上堂。盡大地撮來如粟米

粒大。拋向面前。漆桶不會。打鼓普請看。長慶問雲門曰。雪峯與麼道還有出頭不得處麼。門曰有。曰作麼生。門曰不可總作野狐精見解。又曰狼籍不少。

師備飯籬

和補曰。禪林類聚云。玄沙備禪師因雪峯垂語云。飯籬邊坐餓死漢。臨河渴死漢。師云。飯籬裡坐餓死漢。水裡沒頭浸渴死漢。

安國折筯

(玄沙法嗣 傳燈廿一)福州安國院惠球寂照禪師(亦曰中塔)上堂。我此間粥飯因緣。各兄弟舉唱終是不常。欲得省要。却是山河大地與汝發明。其道現常亦能究竟。若從文殊門入者。一切無為。土木瓦礫助汝發機。若從觀音門入者。一切音響。蝦蟇蚯蚓助汝發機。若從普賢門入者。不動步而到。以此三門方便示汝。如將一隻折著攪大海水。令彼魚龍知水為命。會麼。若無智眼而審諦之。任汝百般巧妙不為究竟。

鹿門破鍋

雲岩出糞

(會元五)藥山問雲岩作什麼。岩云擔屎。山曰那箇響。岩曰在。師曰汝來去為誰。曰替他東西。岩曰何不教並行。曰和尚莫謗他。岩曰不合恁麼道。曰如何是道。岩曰還曾擔麼。

寂子擔禾

(傳燈十一)為山問仰山何處來。仰云田中來。為曰禾好刈也未。仰云好刈也。為曰。作青見。作黃見。作不青不黃見。仰云和尚背

後是什麼。為曰子還見麼。仰拈起禾穗云和尚何曾問這箇。為曰此是鵝王擇乳。

雲門花欄

(雲門錄)僧問雲門如何是清淨法身。門云花藥欄。

陸亘瓶鵝

(傳燈十)陸亘大夫問南泉曰。古人瓶中養一鵝。鵝漸漸長大。出瓶不得。如今不得毀瓶。不得損鵝。和尚作麼生出得。泉召曰大夫。陸應諾。泉曰出也。從此開解即禮謝。

石室蹈碓

(碧岩三)六祖初謁五祖於黃梅。法乳相投。遂負石於腰以供簸舂之務。後僧問臨濟云。石室行者蹈碓為什麼忘移却脚。濟曰沒溺深坑。(石室曰善道)

天目撞羅

(雲門偃法嗣 會元十五)和補曰。奉先深禪師。因同明和尚到淮河。見人牽網。有魚從網透出。師曰。明兄俊哉。一似箇衲僧相似。明曰。雖然如是。爭如當時不撞入網羅好。師曰。明兄你欠悟在。明至中夜方省。

雪竇按劍

(會元十五)明州雪豆重顯明覺大師。上堂。僧問如何吹毛劍。師云苦。曰還許學人用也無。師噓一噓乃曰。大眾前共相酬唱。也須是箇漢始得。若也未有奔流度刃底眼。不勞拈出。所以道。如大火聚近著即燎却面門。亦如按大阿寶劍。衝前即喪身失命。師

云。大阿橫按祖堂寒。千里應須息萬端。莫待冷光輕閃爍。復曰看看。便下座。

韶山亞戈

(夾山法嗣 會元六)洛京韶山寰普禪師。遵布衲訪師。在山下相見。遵問韶山路向甚麼處去。師以手指曰嗚那青青黯黯處去。遵近前把住曰。久響韶山莫便是否。師云。是即是。闍梨有甚麼事。遵曰擬伸一問師還答否。韶山曰。看君不是金牙作。爭解彎弓射尉遲。遵曰。鳳凰直入煙霄去。誰怕林間野雀兒。師云。當軒畫鼓從君擊。試展家風似老僧。遵曰。一句迥超千聖外。松蘿不與月輪齊。師云。饒君直出威音外。猶較韶山半月程。遵曰過在甚處。師曰倜儻之辭時人知有。遵曰恁麼則真玉泥中異不撥萬機塵。師云魯般門下徒施巧妙。遵曰。學人即恁麼。未審師意如何。師曰玉女夜拋梭織於西舍。遵曰莫便是和尚家風也無。師曰耕夫製玉漏不是行家作。遵曰。此猶是文言。如何是和尚家風。師云橫身當宇宙誰是出頭人。遵無語。師遂同皈山。纔人事了。師召近前曰。闍梨有衝天之氣。老僧有入地之謀。闍梨橫吞巨海。老僧背負須彌。闍梨按劍上來。老僧揜鎗相待。向上一路速道速道。遵曰明鏡當臺請師一鑑。師云不鑑。遵曰為甚不鑑。師云水淺無魚徒勞下釣。遵無對。師便打。

古靈揩背

(百丈法嗣 會元四)福州古靈神讚禪師。因受業。師問汝離吾在外得何事業。讚曰並無事業。遂遣執役。一日因澡浴命讚去垢。讚迺拊背。好箇佛堂。只是佛不聖。其師回首視之。讚曰雖然不聖却解放光。

從諗洗脚

(會元十一)趙州行脚時參臨濟。遇濟洗脚次。州便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濟曰恰值老僧洗脚。州近前作聽勢。濟云更要第二杓惡水潑在。州便下去。

青林死蛇

(洞山价法嗣 會元十三)青林虔禪師問。千差路別如何頓曉。師曰。足下背驪珠。空怨長天月。問學人徑往時如何。師曰。死蛇當大路。勸子莫當頭。曰當頭者如何。師云喪子命根。曰不當頭者如何。師云亦無回避處。曰正當恁麼時如何。師云失却也。曰向甚麼處去。師曰草深無覓處。曰和尚也須隄防始得。師拊掌曰一等是箇毒氣。

泐潭活雀

(九峯虔法嗣 傳燈十七)洪州泐潭明禪師。僧問確搏磨磨不得忘却此意如何。師云猛虎口裡活雀兒。

玄沙三病

(會元七)玄沙有時垂語曰。諸方老宿盡道接物利生。且問汝。只如盲聾瘂三種病人。汝作麼生接。若拈槌豎拂。他眼且不見。共他說話。耳又不聞。曰復瘂若接不得。佛法盡無靈驗。時有僧出曰。三種病人和尚還許商量否。師云許汝作麼生商量。其僧珍重出。師曰不是不是。

天平兩錯

(清溪山主洪進法嗣 傳燈)天平和尚行脚時參西院。常云。莫道會佛法。覓箇舉話人也無。一日西院遙見召云從漪。平舉頭。西院曰

錯。平行三兩步。西院曰錯。平近前西。院云。適來這兩錯。是西院錯。是上坐錯。平云從漪。西院曰錯。平休去。

滏水蓮池

趙州略約

(傳燈十)僧問趙州。久響趙州石橋。到來只見略約。州曰汝只見略約不見石橋。僧云如何是石橋。州曰渡驢渡馬。

大陽錢財

(會元十三)郢州大陽惠堅禪師。僧問如何是玄旨。師曰壁上挂錢財。

清平杓索

(會元五)清平和尚。僧問如何是大乘。師云井索。曰如何是小乘。師云錢貫。問如何是有漏。師曰箴篋。曰如何是無漏。師曰木杓。

白犬銜書

(會元三)和補曰。見下之註。

青猿洗鉢

(會元二)千歲寶掌和尚。中印度人也。周威烈十二年丁卯降神受質。左手握拳。七歲祝髮乃展。因名寶掌。魏晉間東遊此土。入蜀禮普賢。留大慈。常不食。日誦般若等經千餘卷。有詠之者曰。勞勞玉齒寒似迸岩泉急。有時中夜坐堦前。神鬼泣。一日謂眾曰。吾有願住世千歲。今年六百二十有六。故以千歲稱之。次

遊五臺。徙居祝融峯之華巖。黃梅之雙峯。廬山之東林。尋抵建鄴。會達磨入梁。師就扣其旨開悟。武帝高其臘。延入內庭。未幾如吳。有偈曰。梁城遇道師。參禪了心地。飄零二浙遊。更盡佳山水。順流東下。由千頃至天竺。往鄮峯登太白。穿鴈蕩盤礴於翠峯七十二庵。回赤城憩雲門法華諸暨漁浦赤符大岩等處。返飛來。接之石竇。有行盡支那四百州。此中徧稱道人遊之句。貞觀十五年也。後居浦江之寶巖與。朗禪師友善。每通問遣白犬馳往。朗亦以青猿為使令。故題朗壁曰。白犬銜書至。青猿洗鉢回。師所經處後皆成寶坊。顯慶二年正旦手塑一像。至九日像成。問其徒惠雲曰此尚誰。雲曰與和尚無異。即澡浴易衣趺坐謂雲曰。吾住世已一千七百二十二年。今將謝世。聽吾偈曰。本來無生死。今亦示生死。我得去住心。他生復來此。頃時囑曰。吾滅後六十年。有僧來取吾骨。勿拒。言訖而逝入。滅五十四年有刺浮長老自雲門至塔所禮曰。冀塔洞開。少選塔戶果啟。其骨連環若黃金。浮即持往秦望山建窰堵波奉藏。以周威烈丁卯至唐高宗顯慶丁巳。考之實一千七百二十二年。抵此土歲歷四百餘。僧史皆失載。開元中惠雲門人宗一者嘗勒石識之。

飲光坐禪

梵曰迦葉波。此言飲光。姓也。或云身光殊特。能飲諸天及日月等光皆悉不見。故曰飲光。黃龍南譏泉大道怛率。戲酌以偈曰。飲光論劫坐禪。布袋經年落魄。疥狗不願生天。却笑雲中白鶴。○和補曰。涅槃經云。爾時世尊欲涅槃時。迦葉不在眾會。佛告諸大弟子。迦葉來時可令宣揚正法眼藏。爾時迦葉在耆闍崛山畢鉢羅窟。覩勝光明即入三昧。以淨天眼觀見世尊於熙連河側入般涅槃。乃告其徒曰。如來涅槃也。何其駛哉。即至雙樹間悲戀號泣。

布袋落魄

(會元二)和補曰。飲光論劫坐禪。布袋經年落魄。疥狗不願生天。却笑雲中白鶴。○明州奉化縣布袋和尚。自稱契此。形裁臃脰蹙額蟠腹。出語無定。寢臥隨處。常以杖荷一布囊并破席。凡供身之具盡貯囊中。入廛肆聚落見物則乞。○佛祖統紀云。布袋背上有目。水戲之時人知之。

推倒回頭

(僧寶傳中)和補曰。下註兼之。

趯翻不托

端師子者。吳興人也。始見弄師子者。發明心要。則以綵帛像其皮。時時著之。因以為號。住西余山。有狂僧號回頭和尚。以左道鼓動流俗。士大夫亦安其妄。方對丹陽守呂公肉食。端徑至指曰。正當與麼時如何是佛。回頭不能遽對。端捶其頭。推倒乃行。○又有天人號不托。掘秀州城外地有佛像。建塔其上。傾城信敬。端見搵住曰。如何是佛。不托擬議。端趯之而去。章丞相子厚請舛座使俞秀老撰疏敘其事曰。推倒回頭。趯翻不托。

道者休休

鏡清在帳中坐。有僧問訊。師撥帳開曰當斷不斷反招其亂。僧曰既是當斷為什麼不斷。師云我若盡法直恐無民。曰不怕無民請師盡法。師云維那拽出此僧著。又曰。休休。我在南方識伊和尚來。○錢王欲廣府中禪會。命居天龍寺。始見師乃曰真道人也。致禮勤厚。由是吳越盛於玄學。其後又創龍冊寺。延請居焉。○高安白水本仁禪師謂鏡清曰。時寒道者清。曰不敢。仁曰還有臥單也無。曰設有亦無展底工夫。仁曰直饒道者滴水水生亦不干他事。曰滴水水生事不相涉。仁曰是。曰此人意作麼生。仁曰此人不落意。曰不落意此人響。仁曰高山頂上無可與道者啣啄也。

塔主莫莫

(雲門法嗣 會元十五)薦福承古禪師。因遊廬山登歐峯。愛宏覺塔院閑寂求居之。清規凜然。過者肅恭。時叢林號古塔主。僧問如何是佛。主云莫莫。又問如何是祖師西來意。主曰莫莫。

大守病痊

(傳燈廿七)閻丘。台州守也。因丘臥病不起。或人勸云可見高僧。因見豐干於鴈蕩。干呪水與丘。飲之病了愈。

君王臂落

(傳燈二)罽賓國王問師子尊者曰。師得蘊空不。者曰已得。曰離生死不。者曰已離。曰既離生死可施我頭。者曰非我有何愆於頭。王揮劍斷者頭。白乳湧高數尺。王臂自墮。

次公點眼

駙馬索藥

(石門聰弟子會元十二)駙馬都尉李遵勗居士。臨終時膈胃躁熱。有尼道堅謂曰。眾生見劫盡大火所燒時。都尉切宜照管主人公。公曰大師與我煎一服藥來。堅無語。公曰這師姑藥也不會煎得。

禪苑蒙求卷之中

禪苑蒙求卷之下

隱峯倒化

(馬祖法嗣 傳燈錄八)鄧隱峯將示滅。先問眾云。諸方遷化。坐去臥去吾賞見之。還有立化也無。眾云有。師問還有倒立而化者無。眾云未有。師乃倒立而化。亭亭然其衣順體。時眾議舁就茶毗。屹然不動。遠近瞻視驚歎無已。師有妹為尼。時亦在彼。乃俯近而咄曰。老兄疇昔不循法律。死更熒惑於人。於是以手推之。儼然而踣。遂就闍維。

領眾坐亡

石霜諸歿時。九峰道虔禪師作侍者。眾請堂中第一座嗣諸住持。方議次。虔犯眾曰。未可。須明先師意旨乃可耳。眾曰先師何意。虔曰只如道古廡香爐一條白練如何會。第一座曰。是明一色邊事。虔曰果不會先師意。於是第一座者起炷香誓曰。我若會先師意。香煙滅則我脫去。不然煙滅不能脫。言卒而脫去。虔拊其背曰。坐脫立亡不無。首座會先師意即未也。

歸宗拽杖

(馬祖法嗣)皈宗入園取菜次。師畫圓相圍却一株。語眾曰。輒不得動著遮箇。眾不敢動。少頃師復來。見菜猶在。便以棒趨眾。

普化踢床

(盤山寶積法嗣 會元十一)臨濟同普化赴施主家齋次。濟問。毛吞巨海。芥納須彌。為是神通妙用。本體如然。化蹈倒飯床。濟云太麤生。化云。這裏是什麼所在。說麤說細。濟來日又同化赴齋。問今日供養何似昨日。化依前蹈倒飯床。濟云。得即得。太麤生。化云。瞎驢。佛法說什麼麤細。濟乃吐舌。

雪峰過嶺

(會元七)雪峯辭洞山。山曰子甚處去。師曰皈嶺中去。山曰當時從甚麼路去。師云從飛猿嶺出。山曰今回向甚麼路去。師曰從飛猿嶺去。山曰。有一人不從飛猿嶺去。子還識麼。曰不識。山曰為甚麼不識。師云他無面目。山曰子既不識爭知無面目。師無對。師嘗有頌曰。人生倏忽暫須臾。浮世那能得久居。出嶺始年三十二。入閩早是四旬餘。他非不用頻頻舉。已過應須旋旋除。為報滿朝朱紫道。閻王不怕佩金魚。

洛浦還鄉

(夾山法嗣 會元六)僧問洛浦。學人擬歸鄉時如何。師云家破人亡子歸何處。曰恁麼則不歸去也。師云。庭前殘雪日輪消。室內游塵遣誰掃。乃有偈云。決志歸鄉去。乘船渡五湖。舉篙星月隱。停棹日輪孤。解纜離邪岸。張帆出正途。到來家蕩盡。免作屋中愚。

法遠繡毬

(葉縣歸省法嗣 會元十二)僧問浮山。師唱誰家曲。宗風嗣阿誰。師曰八十翁翁輓繡毬。僧云。與麼則一句迥然開祖胄。三玄戈甲振叢林。師曰李陵元是漢朝臣。

文邃香囊

(洞山价法嗣 傳燈七)僧問徑山如何是和尚家風。師云錦帳銀香囊風吹滿路香。

鵝湖比較

信州鵝湖大義禪師李翱嘗問大悲。用千手眼作麼。師曰今上用公作麼。唐憲宗嘗詔入內於麟德殿論議。有一法師問如何是四諦。師曰聖上一帝三帝何在。

佛日抑揚

崇壽登子

(桂琛法嗣 普燈廿一)法眼初住臨川崇壽院。師指登子曰識得登子周匝有餘。雲門云識得登子天地懸殊。

守芝石幢

(汾陽昭法嗣 會元十二)瑞州大愚山守芝禪師。陞座。僧問如何是城裡佛。師曰十字街頭石幢子。

羅山麩飯

(石頭法嗣 會元七)明招到招慶。有度上座問。羅山尋常道。諸方盡是麩飯。惟有羅山是白飯。上座從羅山來却展手示白飯請些子。招打兩掌。度云。將謂是白飯。元來只是麩飯。招云癡人棒下打不死。度至夜間舉似諸禪客次。招近前云不審。度云今日便是這箇上座下兩掌。有瑫上座云。不用下掌就裏許作麼生。招云就裏許也道道。瑫無對。招云。是你諸人一時縛作一束。倒卓向尿闌下。來日相見。珍重。

白雲蒿湯

慈明詐病

(會元十二)慈明禪師有詔賜官舟南歸。中途謂侍者曰。我忽得風痺疾。視之口吻已喎斜。侍者以足頓地曰。當奈何平生呵佛罵祖。

今乃爾。師云無憂為汝正之。以手整之如故曰。而今而後不鈍置汝。

法華佯狂

(會元二)言法華。獨語笑。多行市里。蹇裳而趨。或舉手畫空。佇立良久。從屠沽游。啖無所擇。道俗共目為狂僧。

方會雪屋

(會元十九)揚岐方會禪師。初住楊岐。老屋敗椽。僅蔽風雨。適臨冬暮雪霰滿床。居不遑處。衲子投誠願充修造。師却之曰。我佛有言。時當滅却。高峯深谷遷變不常。安得圓滿如意。自求稱足。汝等出家學道。做手脚未穩已是四五十歲。詎有閑工夫事豐屋耶。竟不從。翌日上堂曰。楊岐乍住屋壁踈。滿床盡撒雪珍珠。縮却項。暗嗟噓。翻憶古人樹下居。

倚遇煙房

(北禪智賢法嗣 僧寶傳中)法昌倚遇禪師。方韜藏西山。雲蓋守智禪師聞其飽參。詣之。至雙嶺寺。寺屋多僧少。草棘滿庭山雪未消。智見一室邃僻。試揚簾。聞叱詬曰。誰故出我煙蓋。師方附濕薪火藉煙為暖耳。智反走。師呼曰來汝何所來。對曰大寧。又問三門夜來倒知否。智愕曰不知。師云吳中石佛大有人不曾得見。智不敢犯其詞。知其為遇也。乃敷坐具願親炙之。師使往謁真点胸。

平終虎嚙

大陽平侍者。預明安之室有年。雖得其旨。惟以生滅為己任。擠陷同列忌出其右者。瑯琊廣照公安圓鑒居眾時。汾陽禪師令其探

明安宗旨在。大陽因平密授明安嘗云。興洞上一宗非遠即覺也。二師云有平侍者在。明安以手指胸云。平此處不佳。又捏拇指叉中示之云。平向去當死於此耳。暨明安遷寂。遺囑云。瘞全身。十年無難。當為大陽山打供。入塔時門人恐平將不利於師。遂作李和文都尉所施黃白器物書於塔銘。而實無也。平後住大陽。忽云先師靈塔風水不利。取而焚之。山中老宿切諫平。平曰於我有妨。遂發塔。顏貌如生。薪盡儼然。悉皆驚異。平乃鑿破其腦。益油薪。俄成灰爐。眾以其事聞于官。坐平課謀塔中物。不孝。還俗。平自稱黃秀才。謁瑯琊。瑯琊云。昔日平侍者。今朝黃秀才。我在大陽時見爾做處遂不納。又謁公安。公安亦不顧。平流浪無所。依後於丫叉路口。遭大虫食之。竟不免大陽丫叉之記。悲哉。

僧被蛇傷

雲居悟和尚在龍門時。有僧被蛇傷。佛眼問曰。既是龍門為什麼被蛇咬。悟即應曰果然現大人相。後傳此語到昭覺。圓悟云龍門有此僧耶。東山法道未寂寥爾。(一本作被犬傷)○和補曰。禪林類聚十五云。昔有僧持鉢到一長者家。偶為犬傷。長者因問。龍被一縷金翅。不吞被法服。為甚却被犬齧。

古紹雲門

(雲門法嗣 會元十五)古塔主初說法於芝山。嗣雲門。○和補曰。薦福承古禪師。操行高潔。稟性虛明。參大光警玄禪師。乃曰祇是箇草裡漢。遂參福嚴稚和尚。又曰祇是箇脫洒衲僧。由是終日嘿然。深究先德洪規。一日覽雲門語忽然發語。自此韜藏不求名聞。棲止雲居弘覺禪師塔所。四方勞者奔湊。因稱古塔主也。

青續大陽

(大陽警玄法嗣 會元十四)投子青。七齡穎異。往妙相寺出家。試經得度。習百法論。未幾歎曰。三祇塗遠自困何益。乃入洛聽華嚴。義若貫珠。嘗讀諸林菩薩偈。至即心自性。猛省曰。法離文字寧可講乎。即棄游宗席。先是浮山圓鑒禪師。因至大陽。機語與明安延公相契。延嘆曰吾老矣。洞上一宗遂竟無人耶。以平生所著直裰皮履示之。遠曰當為持此衣履求人付之如何。延許之曰。他日果得人。出吾偈為證。偈曰。楊廣山前草。憑君待價焯。異苗翻茂處。深密固靈根。其尾云。得法者潛眾十年方可闡揚。遠拜受辭去。後住浮山。既老退休於會聖岩。一夕夢畜青色鷹為吉徵。屆旦師來。遠禮延之。令看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因緣。經三載。一日問曰。汝記得話頭麼試舉看。師擬對。遠掩其口。師了然開悟。遂禮拜。遠曰。汝妙悟玄機耶。師曰設有也須吐却。時資侍者在旁曰。青華嚴。今日如病得汗。師回顧曰。合取狗口。若更忉忉。我便即打。服勤又三年。遠出洞下宗旨示之。悉皆妙契。付以大陽頂相皮履直裰曰。代吾續洞上之風。吾住世非久。善自護持。無留此間。師遂辭出山。

多羅轉經

(禪林類聚一)第二十六祖不如蜜多受度得法。至東印土。為王演說法要。俾趣真乘。又謂王曰。此國當有聖人而繼於我。是時有婆羅門子。年二十許。幼失父母。不知名氏。或自言瓔珞。故人謂之瓔珞童子。遊行閭里丐求度日。若常不輕之類。人問汝何行急。即答云汝何行慢。我問何姓。乃云與汝同姓。莫知其故。後王與尊者同車而出。見瓔珞童子稽首於前。尊者曰汝憶往事否。曰我念遠劫中與師同居。師演摩訶般若。我轉甚深修多羅。今日之事蓋契昔因。尊者又謂王曰。此童子非他。即大勢至菩薩是也。此聖之後出二人。一人化南印度。一人緣在震旦。四五年內却返此方。遂以昔因故名般若多羅。○般若多羅因東印度國王請

祖齋次。王乃問。諸人盡轉經。唯師為甚不轉。祖曰貧道出息不墮眾緣。入息不居蘊界。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。非但一卷兩卷。

俱胝誦呪

(天龍法嗣 會元八)俱胝只念三行呪。便得名超一切人。

神會義解

(會元二)西京荷澤神會禪師。年十四為沙彌。謁六祖。祖曰知識遠來大艱辛。將本來否。若有本則合識主。試說看。師曰。以無住為本。見即是主。祖曰遮沙彌爭合取次語。便以杖打。師於杖下思惟曰。大善知識歷劫難逢。今既得遇豈惜身命。自此給侍。他日祖告眾曰。吾有一物無頭無尾。無名無字。無背無面。諸人還識否。師乃出曰。是諸佛之本源。神會之佛性。祖曰。向汝道無名無字。便喚作本源佛性。師禮拜而退。祖曰。此子向後設有把茆蓋頭。也只成得箇知解宗徒。(法眼曰。古人授記人終不錯。如今立知解為宗。即荷澤也)

石頭真吼

(林間錄上)和補曰。曹溪大師將入滅。方敢全提此令者。至江西馬祖南岳石頭則火振輝之。故号石頭為真吼。馬祖為全提。

惟儼不為

(會元五)藥山謁石頭密領玄旨。一日山坐次。石頭觀之問曰。汝在這裡作甚麼。曰一切不為。石頭曰恁麼即閑坐也。曰若閑坐即為也。石頭曰汝道不為且不為箇什麼。曰千聖亦不識。以偈贊曰。

從來共住不知名。任運相將只麼行。自古上賢猶不識。造次凡流豈可明。

從諗仍舊

(林間錄上)趙州曰。莫費力也。大好言語。何不仍舊去。世間法尚有門。法豈無門。自是不仍舊故。

老讓開胸

(羅山道閑嗣傳燈廿三)江西北蘭讓禪師。湖塘亮長老問。伏承師兄畫得老師真。暫請瞻禮。師以兩手撥胸開示之。亮便禮拜。師云莫禮莫禮。亮云師兄錯也某甲不禮師兄。師云汝禮先師真。亮云因什麼教某甲莫禮。師云何曾錯。

道符縮手

(雪峰法嗣 會元七)鏡清有僧引童子到曰。此兒子常愛問僧佛法。請和尚驗看。師乃令点茶。童子點茶來。師啜訖。過盞托與童子童子近前接。師却縮手曰還道得麼。童子曰問將來。僧問和尚。此兒子見解如何。師云也只是一兩生持戒僧。

豐干饒舌

(傳燈廿七)閩丘徹請豐干欲住持。干不從。丘云。若然。彼處可拜誰師乎。干曰彼有寒拾者則文殊普賢化身也。可拜彼。丘行天台興聖寺。拜寒拾。寒拾曰。因何拜我。丘云。豐干和尚曰。寒拾者文殊普賢化身也。行可拜彼。故來拜。寒拾笑曰。豐干饒舌。豐干饒舌。汝何不拜豐干。豈不知阿彌陀如來。

憩鶴多口

(韶山普法嗣 會元六)和補曰。一日僧參韶山。山問曰莫是多口白頭困麼。曰不敢。師曰有多少口。曰通身是。師曰尋常向甚麼處屙。曰向韶山句裡屙。師曰。有韶山口即得。無韶山口向甚麼處屙。因無語。師便打。

雲岳殘羹

(臨濟法嗣 傳燈十二)雲山和尚有僧從西京來。師問還將得西京主人書來否。曰不敢妄通消息。師云作家師僧。天然有在曰殘羹餽飯誰喫。師云獨有闍梨不甘喫。其僧乃作吐勢。師喚侍者曰扶出這病僧著。僧便出去。

泐潭酸酒

(真淨文法嗣 會元十七)隆興府泐潭湛堂文準禪師。僧問如何是道。師云蒼天蒼天。曰學人特伸請問。師曰。十字街頭吹尺八。村酸冷酒兩三巡。

谷泉巴鼻

(汾陽法嗣)南岳芭蕉庵主。世呼為泉大道。以其歌頌間有大道為題。如六巴鼻頌曰。大道巴鼻。問著瞌睡。背負葫蘆。任歌逸戲。散聖巴鼻。逢場作戲。東湧西沒。南州北里。禪師巴鼻。有利無利。碧嶽崔嵬。龍行虎視。衲僧巴鼻。坐具尺二。休尋短長。風高雲起。座主巴鼻。懸河無滯。地湧金蓮。手擎如意。山童巴鼻。金將火試。客問山居。遠來不易。

真歇筋斗

(丹霞子淳嗣)。

惠可斷臂

(會元一)初祖因有僧神光來參。祖端坐。莫聞誨厲。立庭下。遲明積雪齊腰。祖憫而問曰。汝久立雪中當求何事。師悲淚曰。唯願慈悲聞甘露門。廣度群品。祖曰。諸佛無上妙道。曠劫精勤難行能行。豈以小德小智輕心慢心冀真乘哉。師聞已取利刀自斷左臂。置于祖前師。迺曰。諸佛法印可得聞乎。祖曰諸佛法印匪從人得。曰我心未安乞師安心。祖曰將心來與汝安心。曰覓心不可得。祖曰與汝安心竟。又記之曰。汝但外息諸緣。內心無喘。心如墻壁。可以入道。

神觀安頭

和補曰。真淨留贈香城淳長老頌曰。簾捲西山色。禪心共月華。香城深處寺。靈觀上人家。絕頂壇猶在。盈頭乳已賒。而今淳道者。經誦白蓮花。

王老水牯

(馬祖法嗣 傳燈八)南泉因僧問。和尚百年後向什麼處去。師云作一頭水牯牛去。僧云某甲隨和尚去得否。云汝若來銜取一枝草來。

中邑獼猴

(馬祖法嗣 傳燈六)朗州中邑洪思禪師。因仰山為新戒。時到謝戒師。見來於禪床上。拍手云和和。仰山即東邊立又西邊立又中心立。然後謝戒了。却退後立。師云什麼處得此三昧。山云曹溪脫印子學來。師云汝道曹溪用此三昧接什麼人。山云接一宿覺。却云和尚什麼處得此三昧。師曰馬大師處學得。問如何得見性。師云譬如有屋。屋有六窓。內有一獼猴。東邊喚山山。山山應如是。六窓俱應。仰山禮謝起云。蒙和尚譬喻。無不了知。更有一事。只如內獼猴困睡。外獼猴欲與相見時如何。師下禪床執仰山

手作舞云。山山與汝相見了。譬如蟪蛄虫在蚊子眼睫上作窠。向十字街頭叫喚云。土曠人希。相逢者少。

茱萸釘櫬

(南泉法嗣)鄂州茱萸山和尚。初住隨州護國院為第一世。金輪可觀和尚問。如何是道。師云莫向虛空裡釘櫬。觀云虛空是櫬。師乃打之。觀捉住云。莫打某甲。已後錯打人在。師便休。

象骨鞞毬

(會元七)玄沙謂雪峯曰。某甲如今大用去。和尚作麼生。師將三箇木毬一時拋出。沙作斫牌勢。師云你親在靈山方得如此。沙曰也是自家事。一日陞座。眾集定。師鞞出木毬。玄沙遂捉來安舊處。師凡有僧來參。鞞出示之。

龍潭送餅

(天皇道悟法嗣 會元七)龍潭未出家時為餅鋪。住在天皇寺前。每日常供餅十枚上天皇。皇受了却一餅與之曰。惠汝以蔭子孫。潭云是某將來。何以返云惠汝。皇云是汝將來。復汝何咎。潭因有悟入。遂投出家。

投子沽油

(翠微無學嗣傳燈錄)投子悟翠微宗旨結茆而居。一日趙州至桐城縣。途中相遇乃逆而問曰。莫是投子山主麼。師云茶鹽錢乞一文。州無語。先到庵中坐。師携油瓶皈。州曰。久響投子。到來只見箇賣油翁。師云。汝只見賣油翁。亦不識投子。如何是投子。師云油油。

巖陽飼虎

(趙州法嗣 傳燈十一)嚴陽尊者初參趙州。問一物不將來時如何。州云放下着。者云。一物不將來。放下箇什麼。州曰與麼則擔取去。者於言下大悟。後住山。有一虵一虎就手而食。

惠藏牧牛

(傳燈六)撫州石鞏惠藏禪師。一日在廚作務。馬祖曰作什麼生。曰牧牛。祖曰作麼生牧。曰。一回入草去。驀鼻拽將回。祖曰子真牧牛也。

宣鑿出浴

(龍潭法嗣 傳燈六)守廓侍者問德山曰。從上諸聖向甚麼處去。山曰作麼作麼。廓曰。勅点飛龍馬。跛鼈出頭來。山便休去。來日浴出。廓過茶與山。山於背上拊一下曰。昨日公案作麼生。廓曰這老漢今日方始瞥地。山又休去。

師鼎登樓

(雪峯法嗣 傳燈十九)越州諸暨縣越山師鼎。號鑿真禪師。初參雪峯而染指。後因閩王請於清風樓齋。坐久舉目。忽覩日光豁然頓曉。而有偈曰。清風樓上赴官齋。此日平生眼豁開。方識普通年遠事。不從葱嶺路將來。皈呈雪峯。峯然之。

雲庵奪席

(黃龍南法嗣 僧寶傳下)雲庵真淨克文禪師。年二二十五試所習。剃髮受具足戒。學經論無不臻妙。奪京洛講席。自為主客而發奧義者數矣。

淨照隨舟

(浮山遠法嗣 僧寶廿六)浮因淨照禪師。名道臻。字伯祥。一日行江上顧舟默計曰。當隨所住。信吾緣也。問舟師曰載我船尾可乎。舟師笑曰。師欲何之。我入汴船也。師云。吾行游京師。因載之而北。

國師三喚

(六祖法嗣 會元二)南陽惠忠國師。一日三喚。侍者三應。師曰將謂吾孤負汝。却是汝孤負吾。

趙州一掐

(會元四)趙州尼問如何是密密意。州以手掐之。尼曰和尚猶有這箇在。州曰却是你有這箇在。

大隋蓋龜

(傳燈十一)益州大隋法真禪師。庵側有一龜。僧問一切眾生皮裹骨。這箇眾生為什麼骨裹皮。師拈鞋履盖龜背上。僧無語。

日丈野鴨

(會元三)見上卷百丈捲席處。○和補曰。百丈侍馬祖行次。見一群野鴨飛過。祖曰是甚麼。丈曰野鴨子。祖曰甚麼處去也。丈曰飛過去。祖遂把鼻扭。百丈痛失聲。祖曰又道飛過去也。師於言下有省。

曹嶠靈衣

(洞山价法嗣 會元十三)僧問曹山。靈衣不挂時如何。師曰曹山孝滿。曰孝滿後如何。師曰曹山好顛酒。

踈山壽塔

(會元十三)踈山因有僧為師造壽塔畢白師。師曰將多少錢與匠人。曰一切在和尚。師云為將三錢與匠人。為將兩錢與匠人。為將一錢與匠人。若道得與吾親造塔來。僧無語。後僧舉似大嶺庵閑和尚(即羅山也)。嶺曰。還有人道得麼。僧曰未有人道得。嶺曰汝皈與踈山道。若將三錢與匠人。和尚此生決定不得塔。若將兩錢與匠人。和尚與匠人共出一隻手。若將一錢與匠人。累他匠人眉鬚墮落。僧回如教而說。師具威儀望大嶺作禮。嘆曰。將謂無人。大嶺有古佛放光射到此間。雖然如是。也是臘月蓮華。大嶺後聞此語曰。我怎麼道。早是龜毛長三尺。

百會不會

(會元七)洛京南院和尚。有儒者博覽古今。時呼為張百會。謁師。師問莫是張百會麼。曰不敢。師以手於空畫一畫曰會麼。曰不會。師曰。一尚不會。甚麼處得百會來。

法達不達

(六祖法嗣 傳燈五)洪州法達禪師者。洪州豐城人也。七歲出家。誦法華經。進具之後來禮六祖。頭不至地。祖訶曰。禮不投地何如不禮。汝心中必有一物。蘊習何事耶。師云念法華經已及三千部。祖曰汝若念至萬部。不得其經意。不以為勝。則與吾偕行。汝今負此事。即生亡功福無比。祖又曰汝名什麼。對曰名法達。祖曰。汝名法達。何曾達法。復說偈曰。汝今名法達。勤誦未休歇。空誦但循聲。明心號菩薩。汝今有緣故。吾今為汝說。但信佛無言。蓮華從口發。師聞偈悔過曰。而今而後當謙恭一切。唯願和尚大慈略說經中義理。祖曰。汝念此經以何為宗。師云。學人愚鈍。從來但依文誦念。豈知宗趣。祖曰。汝試為吾念一編。

吾當為汝解說。師即高聲念經。至方便品。祖曰。止。此經元來以因緣出世為宗。縱說多種譬喻亦無越於此。何者因緣。唯一大事。一大事即佛知見也。汝慎勿錯解經意。見他道開示悟入自是佛之知見。我輩無分。若作此解。乃是謗經毀佛也。彼既是佛。已具知見。何用更開。汝今當信佛知見者。只汝自心。更無別體。蓋為一切眾生自蔽光明。貪受塵境。外緣內擾。甘受驅馳。便勞他從三昧起。種種苦口勸令寢息。莫向外求與佛無二。故云開佛知見。故但勞勞孰念調為功課者。何異犛牛愛尾也。師云。若然者俱得解義。不勞誦經耶。祖曰。經有何過。豈障汝念。只為迷悟在人。損益由汝。聽吾偈曰。心迷法華轉。心悟轉法華。誦久不明已。與義作讎家。無念念即正。有念念成邪。有無俱不計。長御白牛車。師聞偈再啟曰。經云諸大聲聞乃至菩薩皆盡思度量。尚不能測於佛智。今令凡夫但悟自心便名佛之知見。自非上根未免疑謗。又經說三車大牛之車與白牛車如何區別。願和尚再垂宣說。祖曰。經意分明。汝自迷背。諸三乘人不能測佛智者。患在度量也。饒伊盡思共推。轉加懸遠。佛本為凡夫說。不為佛說。此理若不肯信者。從他退席。殊不知坐却白牛車。更於門外覓三車。況經文明向汝道。無二亦無三。汝何不省三車是假。為昔時故。一乘是實。為今時故。只教汝去假歸實。歸實之後實亦無名。應知所有珍財盡屬於汝。由汝受用。更不作父想。亦不作子想。亦無用想。是名持法華經。從劫至劫手不釋卷。從晝至夜無不念時也。師既蒙啟發。踊躍歡喜。以偈贊曰。經誦三千部。曹溪一句亡。未明出世旨。寧歇累生狂。羊鹿牛權設。初中後善揚。誰知火宅內。元是法中王。祖曰。汝今後方可名為念經僧也。師從此領玄旨。亦不輟誦持。

揚岐八棒

臨濟四喝

(黃檗法嗣)臨濟謂僧曰。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。有時一喝如踞地師子。有時一喝如探竿影草。有時一喝不作一喝用。汝作麼生會。僧擬議。師便喝。

匾頭被罵

(會元十七)黃龍惠南禪師。叢林目曰南匾頭。因趨詣慈明之室曰。惠南以闇短望道未見。此聞夜參。如迷行得指南之車。然唯大慈更施法施。使盡餘疑。慈明笑曰。書記已領徒游方。名聞叢林。借有疑不以襄陋鄙。棄坐而商略顧不可哉。呼侍者進榻且使坐。師固辭。哀懇愈切。慈明曰。書記學雲門禪。必善其旨。如曰放洞山三頓棒。洞山于時應打不應打。師云應打。慈明色壯而言。聞三頓棒聲便是喫棒。則汝自旦及暮聞鷓鴣鳴鵲噪鐘魚鼓板之聲亦應喫棒。何時當已哉。師瞠而却。慈明云。吾始疑不堪汝師。今可也。即使拜師。拜起。慈明理前語曰。脫如汝會雲門意旨。則趙州嘗言。臺山婆子被我勘破。試指其可勘處。師面熱汗下不知答。趨出。明日詣之。又遭詬罵。師慙。見左右即曰。政以未解求決耳。罵豈慈悲法施之式。慈明笑曰。是罵耶。師於是默悟其旨。失聲曰。泐潭果是死語。猷語曰。傑出叢林是趙州。老婆勘破沒來由。而今四海清如鏡。行人莫以路為讎。慈明以手點沒字顧師。師即易有之字。而心服其妙密。留月餘辭去。

水潦遭蹈

(傳燈八)水潦和尚參馬祖。禮拜起欲伸問。祖一蹈蹈倒。師忽然大悟。起來呵呵大笑云。也太奇。也太奇。百千三昧。無量妙義。只向一毫端上識得根源去。便禮拜。

死心下火

(黃龍法嗣 會元十七)寶覺禪師將入滅。命門人黃太史庭堅主後事。荼毗日隣峯為康炬火不續。黃顧師之得法上首死心新禪師曰。此老師有待於吾兄也。新以喪拒。黃強之。新執炬召眾曰。不是餘殃累及我。彌天罪過不容誅。而今兩脚捎空去。不作牛驢定作驢。以火炬打一圓相。祇向這裡雪屈。擲炬應手而爇。

自禪掛塔

(五祖演法嗣)蘄州五祖表自禪師。嗣祖席。衲子四至不可遏。師榜侍者門曰。東山有三句。若人道得掛塔。衲子皆披靡。一日有僧携坐具徑造丈室謂師曰。某甲道不得。祇要掛塔。師大喜呼維那於明窓下安排。

天然口啞

(石頭迁法嗣 會元三)龐居士一日見丹霞來。遂不語亦不起。霞迺拈起手中拂子。士便拈起鎚子。霞曰只恁麼別更有在。士曰此回見兄不似於前。霞云不妨減人聲價。士曰本來要折倒汝一上。霞曰恁麼則啞却天然口也。士曰汝啞却本分。猶累我啞却。霞乃擲却拂子去。士曰。然闍梨。然闍梨。霞不顧。士曰。不唯患啞。兼亦患聾。

大耳心通

(會元二)唐肅宗詔南陽惠忠國師試驗西天大耳三藏他心通。師到。三藏作禮立左邊。師問曰汝得他心通耶。曰不敢。師曰汝道老僧只今在何處。曰和尚是一國之師却去西川看競渡。又問汝道只今又在何處。曰天津橋上看弄胡孫。又問汝道只今聾。三藏罔然。師叱曰。者野狐精。他心通在何處。

文益書字

(桂琛法嗣 會元六)和補曰。昔有一老宿住菴。於門上書心字。於窓上書心字。於壁上書心字。法眼云。門上但書門字。窓上但書窓字。壁上但書壁字。玄覺云。門上不要書門字。窓上不要書窓字。壁上不要書壁字。何故。字義炳然。

曉聰栽松

(文殊應天真嗣五燈十五)洞山曉聰禪師。手植萬松於東嶺而誦金剛般若經。山中人名其嶺曰金剛。方植松而寶禪師至。時親自五祖來。師問上嶺一句作麼生。道寶曰氣急殺人。師拄鑊呵曰。從何得此隨語生解阿師。見問上嶺便言氣急。佛法却成流布。寶請代語。師曰何不道氣喘殺人。逍遙問嶺在此金剛在什麼處。師指曰此一株松是老僧親栽。初比部郎中許公式出守南昌。過蓮華峯。聞祥公曰聰道者在江西。試尋訪之。此僧人天眼目也。許公既至。聞聰住山家風。作詩寄之曰。語言渾不滯。高躡祖師蹤。夜坐連雲石。晝栽帶雨松。鏡分金殿燭。山蒼月樓鐘。有問西來意。靈堂對遠峰。

禾山義虎

(黃龍南法嗣 僧寶傳下)禾山普禪師初秀。出講席解唯識起信論。兩川無敢難詰者。號義虎。

瑞岩臥龍

(岩頭法嗣 傳燈十七)台州瑞岩師彥禪師。謁夾山會和尚。會問什麼處來。曰臥龍來。會曰來時龍還起未。師乃顧視之。會曰灸瘡上更著艾燠。曰和尚苦如此作什麼。會便休。

翠岩唾地

(石霜法嗣 會元十七)蕪州開元子琦禪師謁翠岩真禪師問佛法大意。唾地曰這一滴落在甚麼處。琦捫膺曰學人今日脾疼。師解顏。

寶壽釘空

(臨濟法嗣 傳燈十二)鎮州寶壽沼和尚。胡釘鉸來參。師問汝莫是胡釘鉸。曰不敢。師曰還解釘得虛空否。曰請和尚打破。某甲與釘。師以拄杖打之。胡曰和尚莫錯打某甲。師云向後有多口阿師與點破在。

一城人瞎

(傳燈十二)寶壽開堂。三聖推出一僧在寶壽前。壽便打其僧。聖云。長老若恁麼為人。瞎却鎮州一城人眼在。

三日耳聾

(會元三)見前黃蘗吐舌處。

東山餛飩

(五祖錄)和補曰。法演遊方十餘年。海上參尋見數人尊宿。乃到浮山圓鑑會下。直是開口不得。後到白雲門下。咬破一箇鐵餛飩。直得百味具足。且道餛飩子一句作麼生道。乃有偈。花發雞冠媚早稱。誰人能染紫絲頭。有時風動頻相倚。似向階前鬪不休。

揚岐栗蓬

(會元十九)楊岐問僧。栗棘蓬作麼生吞。金剛圈作麼生透。

惠南主法

(僧寶傳下)黃龍南曰。住持要在得眾。得眾要在見情。先師言。人情者為世之福田。蓋理道所由生也。故時之否泰事損益必因人情。情有時通塞則否泰生。事有時厚薄則損益至。唯聖人能通天下之情。故易之別卦乾下坤上則曰泰。乾上坤下則曰否。其取象損上益下則曰益。損下益上則曰損。夫乾為天。坤為地。天在下而地在上。位故乖矣。而返謂之泰者。上下交故也。主在上而賓處下。義故順矣。而返謂之否者。上下不交故也。是以天地不交庶物不育。人情不交萬事不和。損益之義亦由是矣。夫在人上者能約己以裕下。下必悅而奉上矣。豈不謂之益乎。在上者蔑下而肆諸己。下必怨而叛上矣。豈不謂之損乎。故上下交則泰。不交則否。自損者人益。自益者人損。情之得失豈容易乎。先聖嘗喻人為舟。情為水。水能載舟亦能覆舟。水順舟浮。違則沒矣。故住持得人情則興。失人情則廢。全得而全興。全失而全廢。故同善則福多。同惡則禍甚。善惡同類端如貫珠。興廢象行明若觀日。斯歷代之元龜也。

居訥扶宗

(延慶榮法嗣 會元十六)圓通居訥禪師。仁宗皇帝聞其名。皇祐初詔住十方淨因禪院。師稱目疾不能奉詔。有旨令舉自代。遂舉僧懷璉禪學精深在居訥之右。於是詔璉。璉至引對問佛法大意稱旨。天下賢師知人。

洪濟師子

遼陽大虫

趙州探水

(傳燈十)趙州一日訪茱萸。將拄杖於法堂上東行西行。萸云作什麼。州云探水。萸云我這裡一滴也無。州將拄杖靠壁便出。

百丈夾火

(傳燈九) 澠山一日侍百丈次。丈問誰。山曰靈祐。丈曰汝撥爐中有火否。山撥之無火。丈躬自深撥得栗火。舉以似山云。你道無。者箇響。山忽然契悟。遂禮拜。陳其所解。丈云。此迺暫時岐路耳。欲識佛性義。當觀時節因緣。時節若至。如迷忽悟如忘忽憶。方省己物不從他得。故祖師云。悟了同未悟。無心亦無法。只是無虛妄凡聖等心。本來心法元自具足。汝今既是。善自護持。次日同百丈入山作務。丈曰將得火來麼。山曰將得來。丈曰在甚處。山乃拈一枝柴吹兩吹度與百丈。丈曰如蟲禦木。

金峰行餅

(禪林類聚十八) 金峰一日於僧堂內喫餠餅次。自拈一枚餅從上板頭。轉一匝。大眾見一時合掌。峰云。假使你十分擡起手。也祇得一半。至晚有僧請益云。今日行餅見僧合掌。和尚道假饒十分擡起手也祇得一半。請和尚全道。峯作拈餅勢復云。會麼。僧云不會。峯云。金峯也祇得一半。

布袋拈果

(傳燈廿七) 布袋在通衢立。有僧云作什麼。布袋云等箇人。僧云來也。布袋取一橘子與僧。僧纔接。布袋縮手云。你不是者箇人。

中邑鳴哪

中邑每見僧。拍手鼓唇曰。哪鳴哪鳴。

青山骨剝

(黃蘗法嗣 傳燈十二) 杭州羅漢院宗徹禪師。僧問如何是西來意。師云骨剝也。師對機多用此語。時人因號骨剝和尚。

明招目眇

(羅山道閑法嗣 會元十三)務州明招謙和尚。眇一目。叢林號獨眼龍。

雲門脚跛

(會元五)雲門初參睦州。方扣門。州搥之曰道道。門驚不暇答。乃推出曰。秦時[車*度]轆鑽。隨掩其扉。損門右足。

四處謾人

(傳燈十九)漳州保福從展禪師四謾人。一問僧。殿裏是甚麼佛。僧曰和尚定當看。師曰釋迦佛。僧云莫謾人好。師云却是你謾我。二問僧。作甚麼業喫得與麼大。僧云和尚也不少。師作蹲勢。僧云和尚莫謾人好。師云却是你謾我。三問僧。汝名甚麼。僧云咸澤。師云忽遇枯涸看如何。僧云誰是枯涸者。師云我是。僧云和尚莫謾人好。師云却是你謾我。四問浴主湯鍋潤多少。主云請師量。師便作量勢。主云和尚莫謾人好。師云却是你謾我。

三翻慳儻

(傳燈)隋州護國院守澄淨果禪師。僧問鶴立枯松時如何。師云地下底一場慳儻。問會王沙汰時護法善神向甚麼處去。師云三門前兩箇一場慳儻。問滴水滴凍時如何。師云日出後一場慳儻。

韶陽九九

(雲門錄事苑三)僧問雲門如何是向上一竅。門云九九八十一。又僧問如何是最初一句。門云九九八十一。又僧問。以字不是。八字不成。未審是甚麼字。門云九九八十一。

文殊三三

杭州無著文喜禪師。初謁大慈山性空禪師。空曰子何不徧參乎。師直往五臺山華嚴寺至金剛窟禮謁。遇一老翁牽牛而行。邀師入寺。翁呼均提。有童子應聲出迎。翁縱牛引師陞堂。堂宇皆耀金色。翁踞床指繡[糸*敦]命坐。翁曰近自何來。師云南方。翁曰南方佛法如何住持。師云末法比丘少奉戒律。翁曰多少眾。師曰或三百或五百。師却問此間佛法如何住持。翁曰龍蛇混雜凡聖同居。師云多少眾。翁曰前三三後三三。翁呼童子致茶并進酥酪。師納其味。心意豁然。翁拈起玻璃盞問曰。南方還有這箇否。師曰無。翁曰尋常將甚麼喫茶。師無對。師視日色稍晚。遂問翁擬投一宿得否。翁曰。汝有執心在。不得宿。師曰某甲無執心。翁曰汝曾受戒否。師曰受戒久矣。翁曰汝若無執心何用受戒。師辭退。翁令童子相送。師問童子。前三三後三三是多少。童召大德。師應諾。童曰是多少。師復問曰。此為何處。童曰此金剛窟般若寺也。師悽然悟彼翁者即文殊也。不可再見。即稽首童子。願乞一言為別。童說偈曰。面上無嗔供養具。口裏無嗔吐妙香。心裏無嗔是珍寶。無垢無染是真常。言訖均提與寺俱隱。但見五色雲中文殊乘金毛師子往來。忽有白雲自東方來覆不見。時有滄州菩提寺僧修政等至。尚聞山石震吼之聲。師因駐錫五臺(見會元二)。

金牛飯桶

(馬祖法嗣 會元三)金牛和尚每至齋時。自將飯桶於僧堂前作舞。呵呵大笑云。菩薩子喫飯來。

靈照菜籃

(傳燈十四)丹霞訪龐居士。門前見女子靈照去洗菜。霞問居士在否。照放下菜籃斂手而立。霞曰居士在否。照提起菜籃而去。霞便回。居士從外歸。靈照舉似居士。居士云丹霞在否。照云已去也。居士云赤土塗牛妳。

丹霞燒佛

(傳燈十四)丹霞嘗到洛古惠林寺。值天寒取木佛燒之。院主呵之。霞曰吾燒取舍利。主云木佛豈有舍利。霞曰若爾何責我乎。院主後眉鬚墮落。

婆子焚庵

(會元六)昔有婆子供養一庵主經二十年。常令一二八女子送飯給侍。一日令女子抱定曰正恁麼時如何。主曰。枯木倚寒岩。三冬無暖氣。女子舉似婆。婆曰我二十年祇供養得箇俗漢。遂遣出。燒却庵。

雲盖論義

(石霜諸法嗣 會元六)雲盖元禪師因潭州道正表聞馬王乞師論義。王請師上殿相見。茶罷師就王乞劍。師握劍問道正曰。你本教中道恍恍惚惚其中有物。是何物。杳杳冥冥其中有精。是何精。道得不斬。道不得即斬。道正茫然便禮拜懺悔。師謂王曰還識此人否。王曰識。師曰是誰。王曰道正。師曰。不是。道若正。合對得臣僧。此祇是箇無主孤魂。因茲道士更不紛紜。

德山小參

(傳燈十五)德山小參示眾云。今夜小參不答話。問話者三十棒。時有僧出禮拜。師便打。僧云某甲話也未問在。師云你是什麼處

人。僧云新羅人。師云。未跨船舷子。好與三十棒。

芙蓉妙唱

(投子青法嗣 人天眼目)芙蓉楷禪師妙唱不干舌頌曰。剎剎塵塵處處談。不勞彈指善財參。空生也解通消息。花雨岩前鳥不啣。(空生者須菩提也)

常察玄談

(九峯虔法嗣 傳灯廿九)同安常察禪師十玄談。○心印○祖意○玄機○塵異○佛教○還鄉曲○破還鄉曲○轉位歸○回機○正位前。

二祖安心

在前惠可斷臂之處。

洞山見影

(雲岩晟法嗣 會元十三)洞山問雲岩。和尚百年後忽有人問還貌得師真。如何祇對。雲岩曰祖向伊道即遮箇是。師良久。雲岩曰承當遮箇事。大須審細。師猶涉疑。復因過水覩影。大悟前旨。因有一偈曰。切忌從他覓。迢迢與我疎。我今獨自往。處處得逢渠。渠今正是我。我今不是渠。應須恁麼會。方得契如如。

藥嶺榮枯

(石頭法嗣 會元五)藥山一日與道吾雲岩高沙彌遊山。見兩樹一榮一枯。山問曰榮者是枯者是。吾曰枯者是。山曰。酌然一切處。令教枯淡去。又問岩。岩曰榮者是。山曰。酌然一切處。令光明燦爛去。復問沙彌。彌曰枯者從佗枯。榮者從他榮。山回顧道吾雲岩曰。不是不是。

夾山人境

(華亭法嗣 會元五)僧問夾山如何是夾山境。山曰猿抱子歸青嶂後。鳥銜花落碧岩前。

香巖上樹

(瀉山法嗣 傳燈十一)香巖一日上堂示眾。如人上樹。口嚙一樹枝。脚不踏枝。手不攀枝。忽有人問祖師西來意。若答他即喪身失命。不答他又違他所問。時有虎頭上坐出云。樹上即不問。樹下一句道將來。巖呵呵大笑。

仰山出井

(傳燈十一)潭州石霜山性空禪師。因僧問如何是西來。空曰如人在千尺井中。不假一寸繩得出此人。即答汝西來意。僧云近日湖南鳴和尚出世亦為人東語西話。空喚沙彌拽出者死漢著(仰山沙彌也)。沙彌後舉問耽源如何出得井中人。源曰。咄。癡漢。誰在井中。仰山後問瀉山如何出得井中人。瀉山迺呼惠寂。寂應諾。瀉山曰出也。及住仰山。嘗舉前話謂眾曰。我於耽源處得體。瀉山處得地。

趙州接客

(南泉法嗣 會元)真定師王携諸子入院。趙州坐而問曰大王會麼。王云不會。師云自少持齋身已老。見人無力下禪床。王尤嘉禮重。翌日令客將傳語。師下禪床受之。少間侍者問云。和尚見大王來不下禪床。今日將軍來為什麼却下禪床。師曰。非汝所知。第一等人來禪床上接。中等人來下禪床接。末等人來三門外接。師寄拂子與大王。若問何處得來。但道老僧平日用不盡者。

价老看病

(雲岩晟法嗣)洞山僧問。和尚遺和還有不病者也無。師曰有。僧曰不病者還看和尚否。師曰老僧看他有分。曰和尚爭得看他。師曰老僧看時即不見有病。

南泉油糍

(禪林類聚九)和補曰。南泉願禪師一日不赴堂。侍者請赴堂。師云我今日在莊上喫油糍飽。者云和尚不曾出入。師云汝去問莊主。者方出門。忽見莊主歸謝和尚(云云)。

韶陽胡餅

(雪峰法嗣 雲門錄)僧問雲門如何是超佛越祖之談。門云餬餅。

德山托鉢

(傳燈十五)雪峰在德山作飯頭。一日飯遲。德山擎鉢下法堂。雪峯迺曰。鐘未鳴鼓未響老和尚托鉢向什麼處去。德山却歸方丈。岩頭在堂中聞得。拊掌曰。大小德山未會末後句。德山聞。舉令侍者喚頭上問。你不肯老僧耶。頭密啟其意。德山來日上堂。說話異於每常。頭到僧堂前撫掌大笑曰。且喜堂頭老漢會末後句。他後天下人不奈何。雖然如是。只得三年話。後三年果化。

象骨覆盆

(傳燈七)雪峯在洞山作飯頭淘米次。山問。淘沙去米。淘米去沙。師曰沙米一時去。山曰。大眾喫箇甚麼。師遂覆却米盆。山曰。據子因緣。合在德山。

婆子眷屬

(傳燈六)昔有一僧參米胡。路逢一婆住庵。僧問婆有眷屬否。曰有。僧曰在甚麼處。曰山河大地若草若木皆是我眷屬。僧曰婆莫作師姑來否。曰汝見我是甚麼。僧曰俗人。婆曰汝不可是僧。僧曰婆莫混濫佛法好。婆曰我不混濫佛法。僧曰汝恁麼豈不是混濫佛法。婆曰。你是男子。我是女人。豈曾混濫。

王老兒孫

(馬祖法嗣 傳燈八)黃蘗在南泉為首座。一日捧鉢於南泉位上坐。泉入堂見。乃問長老甚年中行道。蘗曰威音王佛已前。泉曰猶是王老師兒孫。蘗遂過第二位。

雲居送袴

(良价法嗣 會元三)洪州雲居道膺禪師。曾令侍者送袴與一住庵道者。道者曰自有娘生袴。竟不受。師再令侍者問。娘未生時著箇甚麼。道者無語。後遷化有舍利。持似於師。師曰直饒得八斛四斗。不如當時下得一轉語好。

道吾得裩

(藥山法嗣 傳燈十四)有施主施裩藥。山提起示眾曰。法身具四大否。有人道得。與他一腰裩。潭州道吾山宗智禪師云。性地非空。空非性地。此是地大。三大亦然。藥山不違前言乃與吾裩。

九峰頭尾

九峰禪師僧問如何是頭。師曰開眼不覺曉。僧曰如何是尾。師曰不坐萬年床。僧曰有頭無尾時如何。師云纔是不貴。僧曰有尾無頭時如何。師曰雖飽無力。僧曰直得頭尾相搆時如何。師曰兒孫得力室內不知。

洞山功勳

(雲岩法嗣 人天眼目)洞山功勳五位(向·奉·功·共功·功功)。僧問如何是向。洞山云喫飯時作麼生。僧問如何是奉。山云背時作麼生。僧問如何是功。山云放下鋤頭時作麼生。僧問如何是共功。山云不得色。僧問如何是功功。山云不共。

楊岐七事

元靜十門

(五祖演法嗣 普灯十一)南堂元靜禪師示眾曰。夫參學至要。不出最初句與末後句。透得過者平生參學事畢。其或未然與你作十門。各用印證自心。看得穩當也未。一須信有教外別傳。二須知有教外別傳。三須會有情說法與無情說法無二。四須見性如觀掌上。了分明一一田地隱密。五須具擇法眼。六須行鳥道玄路。七須文武兼濟。八須摧邪顯正。九須大機大用。十須向異類中行。此十門諸人還一一穩當也未。若只是閉門作活計。獨自耍了身。却不在此限。若欲荷負正宗。紹隆聖種。須盡明此綱要十門。方坐得曲条床。受得天下人禮拜。敢與佛祖為師。若不到恁麼田地。只一向虛顯。他時異日閻羅老子未敢放你在。有麼出來。大家證據。若無不用久立。

老安作用

(傳灯九)嵩岳惠安國師。因坦然懷讓二人來參。問曰如何是祖師西來意。安曰何不問自己意。曰如何是自己意。安曰當觀密作用。曰如何是密作用。安以目開合示之。然於言下大悟。更不他適。讓機緣不偶。辭往曹溪。滅時稱老安國師。

馬祖勞倦

(會元三)僧問馬大師。離四句絕百非。請師直指某甲西來意。大師云我今日勞倦不能為汝說。問取智藏去。問智藏。云何不問和尚。僧云。和尚敢來問。藏云我今日頭痛不為你說。問海兄去。僧問海兄。海云。我到者裏却不會。僧舉示馬大師。大師云。藏頭白。海頭黑。

鏡清雨聲

(雪峯法嗣 會元七)鏡清問僧。門外是什麼聲。僧曰雨滴聲。師云眾生顛倒迷己逐物。僧云和尚作麼生。師云泊不迷己。意旨如何。師云出身猶可易。脫體道應難。

龐公雪片

(馬祖弟子會元七)龐居士因辭藥山。山命十人禪客相送至門首。士乃指空中雪云。好雪片片不落別處。時有全禪客云。落在什麼處。居士送與一掌。全云居士也不得草草。士曰。恁麼稱禪客。閻羅老子未放你在。全云居士作麼生。士又與一掌云。眼見如盲。口說如啞。

雪竇靈臺

(智門祚法嗣 僧寶傳中)和補曰。師為道日損偈云。三分光陰二早過。靈臺一点不揩磨。貪生逐日區區去。喚不回頭爭奈何。

鼓山聖箭

(雪峯法嗣 會元七)鼓山赴大王請。雪峯門送。回至法堂乃曰。一隻聖箭直射九重城裏去也。太原孚曰是伊未在。峯曰渠是徹底人。孚曰若不信待某甲去勘過。遂趨至中路便問。師兄向甚麼處去。山曰九重城裏去。孚曰忽遇三軍圍繞時如何。山曰他家自有通霄

路。孚曰恁麼則離宮失殿去也。山曰何處不稱尊。孚拂袖便回。峯問如何。孚曰好隻聖箭中路折却了也。遂舉前話。峯乃曰好渠語在。孚曰這老凍膿猶有鄉情在。

鏡面退席

(興化法嗣 僧寶傳下) 蔣山元禪師歿。舒王以禮致秀鏡面嗣其席。秀至山。王先候謁。而秀方理叢林事不時見。王以為慢己。遂不合棄去。

克賓出院

(會元十一) 興化謂克賓維那曰。汝不久為唱導之師。賓曰我不入這保社。化曰。你會了不入。不會了不入。賓曰總不與麼。化便打曰。克賓維那法戰不勝。罰錢鑽飯。次日興化入堂白槌曰。克賓維那法戰不勝。罰錢五貫設鑽飯一堂。仍須出院。賓後出世住大行山。嗣興化。

池陽百問

(事苑第五普燈三) 隨州大洪第一世報恩禪師。嘗設百問以問學者。其略曰。假使百千劫。所作業不忘。為甚麼一稱南無佛。罪滅河沙劫。又作此相。○曰。森羅萬象總在其中。具眼禪人請試甄別。

佛陀三勸

(傳燈十四) 鳳翔府法門寺佛陀和尚。常持一串數珠。念三種名號。曰一釋迦。二元和。三佛陀。自餘是什麼椀躡丘一箇。過終而後始。事迹異常。時人不可測。

天然割草

(傳燈十四)如前丹霞掩耳之處。

提婆投針

(會元一)提婆菩薩自執師子國來求論難。造龍猛門。龍猛素知其名。遂滿鉢盛水令弟子持出示之。提婆見水默而投針。弟子將還。龍猛深嘉嘆曰。水之澄以方我德。彼來投針以窮其底。若斯人者可以論玄議道。

藥山長嘯

(石頭迁法嗣 傳燈十四)藥山一夜登山經行。忽雲開見月。大嘯一聲。應澧陽東九十里居民盡謂東家。明辰迭相推問。直至藥山徒眾曰。昨夜和尚山頂大嘯。李翱贈詩曰。選得幽居佼野情。終年無送亦無迎。有時直上孤峯頂。月下披雲嘯一聲。

般若狂吟

師備果子

(會元七)玄沙與韋監軍喫菓子。韋問如何是日用而不知。師拈起菓子曰喫。韋喫菓子了。再問之。師曰只者是日用而不知。

智勤林檎

(瀋山法嗣 傳燈十一)僧問靈雲如何是西來意。雲曰井底種林檎。

佛果漱口

婆子點心

(傳燈十七)德山者。簡州周氏子。卅歲出家。依年受具。精究律藏。於性相諸經貫通旨趣。常講金剛經。時謂之周金剛。嘗謂同

學曰。一毛吞海海性無虧。纖芥投鉢鉢利不動。學與無學唯我知焉。後聞南方禪席頗盛。師氣不平乃曰。出家兒千劫學佛威儀。萬劫學佛細行。不得成佛。南方魔子敢言直指人心見性成佛。我當搜其窟穴滅其種類。以報佛恩。遂擔青龍疏鈔出蜀。至澧陽。路上見一婆子賣油餅。因息肩買餅點心。婆指擔曰這箇是甚麼文字。師曰青龍疏鈔。婆曰講何經。師曰金剛經。婆云。我有一問。你若答得施與點心。若答不得且別處去。金剛經道。過去心不可得。現在心不可得。未來心不可得。未審上坐點那箇心。師無語。遂往龍潭。

蠱毒之鄉

(傳燈十七)僧問曹山。學人十二時中如何保任。山曰如經蠱毒之鄉。水不得霑著一滴。

荊棘之林

(會元十五)僧問藥山。學人擬歸鄉時如何。山曰汝父母徧身紅爛。臥在荊棘中。汝歸何所。僧曰恁麼即不歸去也。山曰汝却須歸去。汝若歸鄉。我示汝箇休糧方。僧曰便請。山曰。二時上堂。不得咬破一粒米。

本寂滲漏

(洞山法嗣 人天眼目)曹山三種滲漏。其詞曰。一見滲漏。謂機不離位。墮在毒海。二情滲漏。謂智常向背。見處偏枯。三語滲漏。謂體妙失宗。機暗終始。學者濁智流轉。不出此三種。

克符料揀

(臨濟法嗣 會元十一)臨濟初至河北住院。見普化克符二上座乃謂曰。我欲於此建立黃檗宗旨。汝且成禱我。二人珍重下去。三日後普化却上來問。和尚三日前說甚麼。濟便打。三日後克符上來問。和尚前日打普化作什麼。濟亦打。至晚小參曰。有時奪人不奪境。有時奪境不奪人。有時人境兩俱奪。有時人境俱不奪。有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。臨濟之曰。煦日發生鋪地錦。嬰兒垂髮白如絲。如何是奪境不奪人。濟云。王令已行天下徧。將軍塞外絕烟塵。如何是人境兩俱奪。濟曰。并汾絕信。獨處一方。如何是人境俱不奪。濟云。王登寶殿。野老謳歌。克符頌。奪人不奪境。緣自帶譎訛。擬欲求玄旨。思量反責麼。驪珠光燦爛。蟾桂影婆娑。覲面無差互。還應滯網羅。奪境不奪人。尋言何處真。問禪禪是妄。究理理非親。日照寒光澹。山遙翠色新。直饒玄會得。也是眼中塵。人境兩俱奪。從來正令行。不論佛與祖。那說聖凡情。擬犯吹毛劍。還如值木盲。進前求妙會。特地斬精靈。人境俱不奪。思量意不徧。主賓言不異。問答理俱全。蹈破澄潭月。穿開碧落天。不能明妙用。淪溺在無緣。

佛日體盆

國師水枕

祖庭事苑曰。未見出處。

祖心背觸

(會元十七)黃龍祖心室中常舉拳問僧曰。喚作拳頭則觸。不喚作拳頭則背。喚作甚麼。

道一長短

(南岳讓法嗣 傳燈六)有僧於馬祖前作四畫。上一畫長下三畫短。問曰。不得道一長三短。離此四句外。請和尚答。師乃畫一畫云。不得道長短。答汝了也。

石樓無耳

(石頭法嗣 會元五)汾州石樓和尚因僧問。未識本來性乞師方便指。師云石樓無耳朵。僧云某甲自知非。師云老僧還有過。僧云和尚過在甚麼處。師云過在汝非處。僧禮拜。師便打。

真溪具眼

(曹溪法嗣 會元十三)處州廣利容禪師。初住真溪有僧來參。師豎起拂子云。真溪老漢還具眼麼。僧云某甲不敢見和尚過。師云老僧死在闍梨手裡。僧以手指胸便出。師云闍梨見先師來。至晚師喫茶。僧拈起盞曰。者箇是諸佛出世邊事。作麼生是未出世邊事。師以手撥却盞云。到闍梨死在老僧手裏。僧云五里牌在郭門外。師云無故惑亂師僧。僧便起謝茶。師云特謝相訪。

可真點胸

(慈明法嗣 普灯三)翠岩可真禪師到慈明大師。慈明看便問曰如何是佛法大意。可真曰。無雲生嶺上。有月落波心。明曰頭白齒黃猶作這見解。可真垂淚求指示。明云你可問我。可真以前語問之。明曰。無雲生嶺上。有月落波心。即於其所頓明大法。住翠岩。世推為天下法窟。

昌禪擔板

德山招扇

(傳燈十六)襄州高亭簡禪師。初隔江見德山。遙合掌呼云。不審。德山以手中扇再招之。簡忽開悟。乃橫趨而去。更不迴顧。後於襄州開法。嗣德山。

迦葉剎竿

(會元一)阿難問迦葉云。師兄。世尊傳金襴袈裟外別傳何物。迦葉召阿難。難應諾。葉云倒却門前剎竿著。

佛光錦帳

佛光無礙禪師。自蘇州永安赴詔住大相國寺惠林禪院。惠恭皇后嘗於簾下見。登對罷乘空而去。自爾以太宮所進御膳供養。復令取禪師所食之餘還宮。又以地錦製法衣。自綴禪牌賜之。以表奉法之誠。冬月賜紅錦帳子。乃至服飾器皿之類。光遂以宮中所賜法衣回施法雲佛照禪師。法雲復寄與洪州寶峯湛堂和尚。書云。地錦法衣與師弟行先師之道。湛堂示寂留山門。至今猶存。

祐國金襴

滑終海嶋

亮隱西山

(會元三)洪州西山亮座主。棄經論。因參馬祖。祖問曰見說座主大講得經論是否。亮曰不敢。祖曰將甚麼講。亮曰將心講。祖曰。心如工伎兒。意如和伎者。爭解講得。亮抗聲云。心既講不得。莫是虛空講得麼。祖曰却是虛空講得。師拂袖而出。祖乃召云座主。師回首。祖曰從生至老只是者箇。師豁然大悟。遂禮拜。祖曰者鈍根阿師禮作麼。亮歸告眾曰。某甲所講經論謂無人及得。今日被馬祖一問。平生工夫永釋。已而乃隱西山更無消息。至今

西山中人往往見之。政和中有士人姓熊失其名。世為邦陽人。遊洪之諸山。道過翠岩。時長老思文即其鄉人。遣二力荷轎舁至空相所。經林壑隱翳。忽覩一僧自古神清。龐眉雪頂。編葉為衣。坐於磐石。如壁間畫佛圖澄像。心疑其異人。自惟亮公隱於西山。恐或是也。踟躕而問曰。莫是亮公不。僧以手向東指。熊隨手回。顧失僧所在。時小雨新霽。熊撫其坐處而石猶溫。回顧躊躇大息曰。夙緣不厚。遇猶不遇也。

大道松妖

(汾陽法嗣 僧寶傳下)泉大道住保真庵。蓋衡湘至險絕處。夜地坐祝融峯。下有大蟒盤繞之。泉解衣帶縛其腰。中夜不見。明日杖策徧山尋之。衣帶纏枯松上。蓋松妖也。

黃龍赤斑

(傳燈廿一)福州鼓山智岳了宗大師至鄂州黃龍。問曰。久響黃龍。到來只見赤斑蛇。黃龍曰。汝只見赤斑蛇。且不識黃龍。宗曰如何是黃龍。曰滔滔地。宗曰忽遇金翅鳥來又作麼生。曰性命難存。宗曰恁麼即被他吞却也。曰謝闍梨供養。

黃牛拒戒

(會元十)政黃牛者。錢塘人。住餘杭功臣山。幼孤為童子。有卓識。詞語皆出人意表。其師稱於人。有大檀越奇之。以度牒施之。跪捧謝而不受。其師問故。曰恩不可輕受。彼非知我者。特以師之言施百千於一童子。保其終身能施物不責報乎。如來世尊大願度生則有慈蔭。今妙法蓮華經是。當折節誦持恩併歸一。於義為當。師自是益奇之。年八十果以其志為大僧。游方問道。三十年乃罷。

師子遇姦

(會元一)端師子。錢穆父赴官浙東。見之約明日飯。端黎明獨往。避雨入道傍人家。幼婦出迎。俄其夫至詬逐。竟為羅卒所收。穆父吏速客見之。問故曰。煩寄聲錢公。本來赴齋中塗。奸情事發。請自飯。穆父聞之驚且笑。顧客曰。此僧胸中無一點疑事。

石頭路滑

(青原思法嗣 會元三)鄧隱峯辭馬祖。祖云什麼處去。峯云石頭去。祖云石頭路滑。峯云竿木隨身逢場作戲。遂到石頭。繞繩床三匝。振錫而立。云是何宗旨。頭云蒼天蒼天。峯無語。回舉似祖。祖云更去問他。待他有語。汝便噓二聲。峯去依前問。石頭迺噓兩聲。峯又無語。回舉似祖。祖云。向汝道石頭路滑。馬祖問丹霞從甚麼處來。霞曰石頭。祖曰石頭路滑還躓倒汝麼。霞曰若躓倒即不來也。

五祖機峻

(普燈十一)蘄州五祖法演禪師。自海會遷東山。太平佛鑑龍門佛眼三人詣山頭省覲。祖集耆舊主事備湯菓夜話。祖問佛鑑舒州熟否。對曰熟。祖曰太平熟否。對曰熟。祖曰諸莊共收稻多少。佛鑑籌慮間。祖正色厲聲曰。汝濫為一寺之主。事無巨細悉要究心。常住出計一眾所係。汝猶罔知。其他細務不言可見。山門執事知因識果。若師翁輔慈明祖師乎。汝不思常住物重如山乎。盖演祖尋常機辨峻據如是。

明招虎尾

(羅山道閑法嗣 會元十三)明招問疎山。虎生七子。第那箇無尾巴。山云第七箇無尾巴。

老宿鼠糞

(傳燈廿七)昔有老宿。一夏並不為師僧說話。有僧自歎曰。我只與麼空過一夏。不敢望和尚說佛法。得聞正因兩字也。老宿聊聞曰。闍梨莫[斯/言]速。若論正因。一字也無。道了乃扣齒曰。適來無端與麼道。隣壁有老宿聞得乃曰。好一釜羹。被兩顆鼠糞污却。

法演四戒

佛鑑和尚初受舒州太平請。禮辭五祖。祖曰。大凡住院。為已戒者有四。第一勢不可使盡。第二福不可受盡。第三規矩不可行盡。第四好語不可說盡。何故。好語說盡人必易之。規矩行盡人必繁之。福若受盡緣必孤。勢若使盡禍必至。鑑再拜。服膺而退。

守初三頓

(雲門法嗣 傳燈廿三)洞山守初詣雲門。門問近離何處。對曰查渡。又問夏在何處。對曰湖南報慈。又問幾時離。對曰八月二十五。門曰放汝三頓棒。山罔然。良久又申問曰。適來祇對不見有過。乃蒙賜棒。實所不曉。門呵曰。飯袋子。江西湖南便爾商略。山悟其旨曰。他日正當於無人煙處。不畜一粒米。飯十方僧。即日辭去。

成禪一喝

(楚錄上)淨因成禪師同法真圓悟慈受并十大法師齋于太尉陳公良弼府第。時徽宗私幸觀其法會。善華嚴者對眾問諸禪師曰。吾佛設教自小乘至圓頓。掃除空有獨證真常。然後萬德莊嚴方名為佛。禪師一喝轉凡成聖。與諸經論似相違背。今一喝若能入五教是為

正說。若不能入是為邪說。諸禪師顧成。成曰。如法師所問。不足三大禪師之酬。淨因小長老可以使法師無惑也。成召善。善應諾。成曰。法師所謂佛之小乘教者乃有義也。大乘始教者乃空義也。大乘終教者乃不有不空義也。大乘頓教者乃即有即空義也。一乘圓教者乃不空而不有不有不空義也。如我一喝非惟能入五教。至於百工伎藝諸子百家悉皆能入。成乃喝一喝。問善曰還聞麼。善曰聞。成曰。汝既聞。則此一喝是有能入小乘教。成須與又召善曰。還聞麼。曰不聞。成曰汝既不聞。則適來一喝是無能入始教。成又顧善曰。我初一喝。汝既道有。喝久聲消。汝復道無。道無則元初實有。道有則于今實無。不有不無。能入終教。成又曰。我有一喝之時。有非是有。因無故有。無一喝之時。無非是無。因有故無。即有即無。能入頓教。成又曰。我此一喝不作一喝用。有無不及。情解俱忘。道有之時纖塵不立。道無之時橫徧虛空。即此一喝。入百千萬億喝入此一喝。是能入圓教。善不覺身起于座。再拜於成之前。成復為善曰。非惟一喝為然。乃至語默動靜一切時一切處一切物一切事。契理契機。周遍無餘。於是四眾歡喜。聞所未聞。龍顏大悅。

太宗十問

(會元六)太宗皇帝一日幸相國寺。見僧看經問曰是甚麼經。僧曰仁王經。帝曰既是寡人經因甚却在卿手裡。僧無對(雪竇代曰。皇天無親。唯德是輔)。幸開寶塔問僧。卿是甚人。對曰塔主。帝曰。朕之塔為甚麼卿作主。僧無對(雪竇代曰。合國咸知)。一日因僧朝見。帝問甚處來。對曰廬山臥雲庵。帝曰。朕聞臥雲深處不朝天。為甚到此。僧無對(雪竇代曰。難逃至化)僧入對次奏曰。陛下還記得麼。帝曰甚處相見來。奏曰靈山一別直至如今。帝曰卿以何為驗。僧無對(雪竇代云。貧道得得來)京寺回祿。藏經悉為煨燼。僧欲乞宣賜。召問。昔日摩騰不燒。如今為甚却燒。僧無對(雪

寶代云。陛下不忘付屬)。帝嘗夢神人報曰。請陛下發菩提心。因早朝宣問左右街。菩提心作麼生發。街無對(雪寶代云。實謂今古罕聞)。智寂大師進三界圖。帝問。朕在那一界中。寂無對(保寧勇代云。陛下何處不稱尊)。一日朝罷。帝擎鉢問丞相王隨曰。既是大庾嶺頭提不起。為甚麼却在朕手裡。隨無對。

眈章寶鏡

(洞山法嗣 僧寶傳)曹山寶鏡三昧。其詞曰。如是之法。佛祖密付。汝今得之。其善保護。銀盃盛雪。明月藏鷺。類之弗齊。混則知處。意不在言。來機亦赴。動成窠臼。差落顧佇。背觸俱非。如大火聚。但形文彩。即屬染污。夜半正明。天曉不露。為物作則。用拔諸苦。雖非有為。不是無語。如臨寶鏡。形影相視。汝不是渠。渠正是汝。如世嬰兒。五相完具。不去不來。不起不住。婆婆和和。有句無句。終必得物。語未正故。重離六父。徧正回互。疊而為三。變盡成五。如莖(徒結反。具五味草也)草味。如金剛杵。正中妙挾。敲唱雙舉。通宗通塗。挾帶挾路。錯然則吉。不可犯忤。天真而妙。不屬迷悟。因緣時節。寂然昭著。細入無間。大絕方所。毫忽之差。不應律呂。今有頓漸。緣立宗趣。宗趣分矣。即是規矩。宗通趣極。真常流注。外寂中搖。係駒伏鼠。先聖悲之。為法檀度。隨其顛倒。以緇為素。顛倒相滅。肯心自許。要合古轍。請觀前古。佛道垂成。十劫觀樹。如虎之缺。如馬之鼻。以有下劣。寶几珍御。以有驚異。鰲奴白牯。羿以巧力。射中百步。箭鋒相直。巧力何預。木人方歌。石兒起舞。非情識到。寧容思慮。臣奉於君。子順於父。不順於母不孝。不奉非輔。潛行密用。如愚。若魯但能相續。名主中主。

南衙題辭

新開鷄鴨

(巴陵新開顯鑒大師傳燈廿二)僧問巴陵祖意教意是同是別。陵曰。鷄寒上樹。鴨寒下水。

石門鈎錐

(首山念法嗣 會元十一)石門蘊聰慈照禪師。上堂。十五日巳前諸佛生。十五日巳後諸佛滅。十五日巳前諸佛生。你不得離我這裡。若離我這裡。我有鈎子鈎你。十五日巳後諸佛滅。你不得住我這裡。若住我這裡。我有錐子錐你。且道正當十五日。用鈎即是。用錐即是。遂有偈曰。正當十五日。鈎錐一時息。更擬問如何。回頭日又出。

無餘喝道

萬卦題詩

蚊鑽鐵牛

(會元九)泉州招慶院道匡禪師。僧問如何是西來意。師曰蚊子上銕牛。為山一日問雲岩。聞汝久在藥山是否。岩云是。山曰藥山大人相如何。岩云涅槃後有。山曰涅槃後有作麼生。岩云水灑不著。雲岩却問為山。百丈大人相如何。山曰巍巍堂堂煒煒煌煌。聲前非聲色後非色。蚊子上鐵牛。無汝下觜處。

鋸解秤槌

(會元十二)僧問大愚如何是佛。愚曰鋸解秤槌。

龐蘊是非

(傳燈八)龐居士問本溪和尚。丹霞打侍者意在何處。溪曰大老翁見人長短在。士曰為我與師同參方敢借問。溪曰。若恁麼。從頭舉

來。共你商量。士曰。大老翁。不可共你說人是非。溪曰念翁年老。士曰罪過罪過。

清平豐儉

(翠微無學法嗣 傳燈十五)鄂州清平山令遵禪師。上堂曰。諸上坐。夫出家人須會佛意始得。若會佛意不在僧俗男女貴賤。但隨家豐儉安樂便得。諸上坐盡是久處叢林徧參尊宿。且作麼生會佛意。試出來大家商量。莫空氣高。至後一事無成。一生空度。若未會佛意。直饒頭上出水。足下出火。燒身鍊臂。聰惠多辨。聚徒一千二千。說法如雲如雨。講得天華亂墜。只成箇邪說。爭競是非。去佛法大遠。在諸人幸值色身安健。不值諸難。何妨近前。著此工夫。體取佛意好。

大顛佛光

(石頭遷法嗣 事苑四)韓愈至潮州。聆大顛禪師之名。累邀之不至。一日大顛特往謁之。愈曰。三請不來。不召何來。曰。三請不來為侍郎。不召而來為佛光。愈曰如何是佛光。顛曰看看。

雪峰火焰

(會元七)玄沙因雪峰指火曰。三世諸佛在火焰裡轉大法輪。沙曰近日王令稍嚴。峯曰作麼生。沙曰不許攙奪行市。雲門曰。火焰為三世諸佛說法。三世諸佛立地聽。

大惠還僧

(圓悟勤法嗣 會元十九)臨安府徑山宗杲大惠普覺禪師道法之盛冠于一時。眾二千餘。皆諸方俊乂。侍郎張公九成亦從之游。灑然契悟。一日因議及朝政與師連禍。紹興辛酉五月毀衣牒。屏居衡

陽。乃哀先德機語。間與拈提。離為三帙。目曰正法眼藏。凡十年移居梅陽。又五年高宗皇帝特恩放還。明年春復僧伽梨。四方虛席以邀。率不就。後奉朝命居育王。逾年有旨改徑山。道俗歆慕如初。

寂音遭貶

(真淨文法嗣 僧寶傳十九)清源惠供覺範。號寂音尊者。崇寧元年反於長沙雲蓋。是時陳公瓘瑩中謫嶺外。以偈見寄。且欲其為負華嚴經入嶺。偈曰。大士遊方興盡回。家山風月絕纖埃。杖頭多少閑田地。挑取華嚴入嶺來。師和之曰。因法相逢一笑開。俯看人世過飛埃。湖湘嶺外休分別。圓寂光中共往來。其後師坐與公遊而獲譴。

首山竹篋

(風穴沼法嗣 會元十一)首山拈竹篋問僧。喚作竹篋則觸。不喚作竹篋則背。且道喚作甚麼。

玄冥木劍

禪苑蒙求卷之下(終)

[CBETA 贊助資訊](#)

(<https://www.cbeta.org/donation/index.php>)

自 2001 年 2 月 1 日起，CBETA 帳務由「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」承辦，並成立「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」－CBETA 專戶，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，歡迎各界捐款贊助。

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，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。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。

信用卡線上捐款

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，資料傳送採用 SSL (Secure Socket Layer) 傳輸加密，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。

[前往捐款](#)

信用卡（單次 / 定期定額）捐款

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。

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，請傳真至 02-2383-0649，並請來電 02-2383-2182 確認。

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。

請在此下載 [授權書](#) (MS Word 格式)

劃撥捐款

郵政劃撥帳號: 1 9 5 3 8 8 1 1

戶名: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

欲指定特殊用途者, 請特別註明, 我們會專款專用。

線上信用卡 / PayPal 捐款

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, CBETA 引用其服務,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。

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.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.

相關收據開立事宜, 由於付款幣別為美元,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,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,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。

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,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.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,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.

[線上信用卡 / PayPal 贊助](#)

支票捐款

支票抬頭請填寫「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」。

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, any donation (ex- cheques, remittance, etc.,) please entitle to "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".
